

15차 (총회) - 이영민

대회사: 김민배, 정영철, 이영민, 양완범, 김준근 2021. 1. 6. (수)  
- 화천대우, 사무실

김민배 발언 주된 은의

나는 무엇이 진실의 고지를 보는 것임 [15-23]  
(최저가점형 대주주성상 완료)

- 주가가 낮아지면 사채이익유량이 커서  
자력신용이나 터지면 막을 수 없다.

- 이익이 얼마 없을지..., 지금까지 얼마  
없었는지... 등

- 대신 가카워지고... 감당할 수 없다.

눈이 오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한다 [15-24]

○ 광복회 신배 신영 [이기인 영원 (주인영)]이  
화천대우 사채 이익를 공유하라.

끝나고 김민배와 만나고 싶다. 이영민은... [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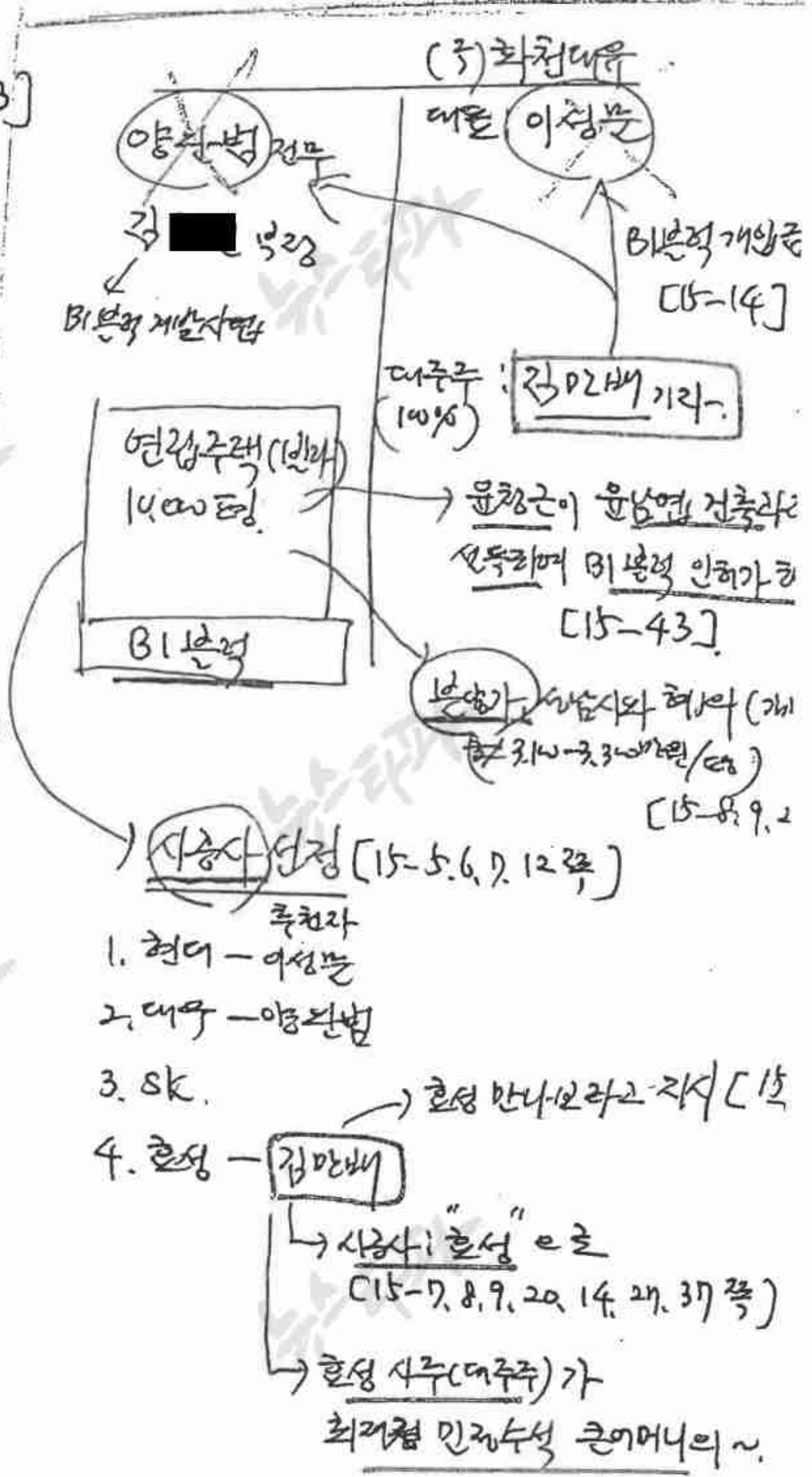
대신이라는 은이 언덕 위에서  
그 광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눈이 오는데 산을 어떻게 넘어,  
눈 오기 전에 넘어야지 [15-38]

고개 올라가기 전에 눈 내리면  
뒤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썰기야 [15-40]

BI은행의 계책을 빨리 헤쳐주고 싶다 [15-20]

산을 넘는데, 무기가 너무 부족하다 [15-31]



- 녹음일시 : 2021. 01. 06. 15:00~
- 녹음장소 : 서판교 화천대유(주) 사무실
- 대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이성문, 양완범, 김종길

정 영 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김 만 배    어. 정회계사.

정 영 학    아, 예예. 바쁘신데..

김 만 배    아니, 원래 3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정 영 학    예. 괜찮습니다. 그 뭐 특별히..

김 만 배    그거 풀어내느라고 얘기하고. 방법을 찾았어.

이 성 문    (...)니까?

김 만 배    어, 어. 그래 그래. 이따 와. 이따.

이 성 문    예, 예. → 대리등 도시개선사업 대리주성공사 준공.

김 만 배    뭐 완공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 어떤 방법이든 쫄라고 그래.  
심지어 대표이사도 방해된다면 바꿀거야.

정 영 학    예.. 방법 잘 찾으셨어요?

김 만 배    그럼. 응.

정 영 학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완공인 거지. 추가비용 안 나가고.  
그게 내 역할 아니야? 그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B1에서 1,500 별면 뭐할 거고 2,000억 별면 뭐할 거야. 응? 더 빨리  
하면 뭐하고. 잘못되는데.

그리고 준공을 제 시간에 해야지. 그거를 못하고..  
그래서 누구의 감정을 나는 뭐 배려해줄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봐.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한거야.  
대표이사도 바꿀거야. 만약에 방해되면. 내 지시 안 받으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토사구팽이라는 게 돈 안 주고 쫓아내는 게 토사구팽이지, 돈 주고 다 해  
주는데 뭘 토사구팽이야.  
어제 경고했으니까.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우리가 죽도록 밤새도록 하면서 만들어놓은 건데, 징역 가면서 수사 받으  
면서 애들 감정 배려해줄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  
그래, 안그래? 얼마나 많은 세월을 또 싸우고 그랬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응. 그래서,

정 영 학 여기까지 잘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마지막에도 잘..

김 만 배 왜냐면 저 두밀사거리도 그래. 내가 그랬거든. 6개월 전서부터. 옛날 6개  
월 전서부터. 빨리 업체 선정해서 해라. 왜냐면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것

도 수자원공사 건도 중요하고.

이 새끼 비용 절약한다고 안하더라고. 응? 하~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실기하게.

정영학 두밀사거리 때문에 많이 늦춰지는 건가요?

김만배 그렇지. 그런데 분리해야지 이걸. 분리할라고. 시하고 얘기를 해야지.

정영학 저거 선정해서 이것 다 하겠다 하면서 한 6개월부터 바뀌니까. 상가 할 테니까 조건부 준공을 해달라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싹 바뀐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 저는 어제 그, 저기 혹시 그 위애가 5백억 넘게 든다고..

김만배 철탑?

정영학 예.

김만배 아니 그거는 내가 채네들한테 말하면 저.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종길이 어딴어?

여직원 시청이요.

김만배 아, 시청 갔어? 응, 응. 독재해야 되겠어. 이 새끼들 권력을 나눠줬더니 싸움박질 하는데나 쓰고.

정영학 그게 맞습니다. 예.

김만배 응. 현장회의도 무슨 최 이한테 맡겨. 병신 같은 새끼들. 아이~ 들보잡 소리나 듣고 앉아 있으니까. 얼치기설치기.

그 얘기는 누구냐면 성문이 헛지랄 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B1은 책임지고 해줘. 응? 돈이 남든 안 남든. 애들이 신경 안 쓰게 줘.

정영학

네, 네. 일단 뭐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쪽 시행 쪽은 그냥 뭐 세금 쪽이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미 보니까 거의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김만배

그래.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라 이거지.

정영학

거의 뭐 다 되셨잖아요.

김만배

관리를 해주세요.

정영학

또 뭐 그래서 보면.. 아니, 저 형님 말씀대로 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막 할만한 게 없어요. 책임지고 할만한 게 없다고 하는 거가 일단 다 잘 여태 잘 왔어요.

김만배

분양가 정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시공사 빚질을 해야 돼. 왜냐면 분양가를 얼마만큼 잡을거나 그걸 정해놓으면 현대에서 세 가지로 단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분양가 정하는데 세 개를 똑같이 갈 수는 없어. 그럴려면 종길이라고 상의해서 빚질을 해야지. 하나로 통일해서.

정영학

그 솔직히 B1에 대한 고민은 다들 형님이 훨씬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보니까 두 개 남았어요. 시공사하고 분양가 남았습시다.

김만배

응. 그럼.

정영학

솔직히 시공사, 분양가인데, 그냥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분양가는 사실 정해지지 않은 변수이고, 지금 뭐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산 데 갔다가.. 그건 어떻게 정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김 만 배 분양, 자기가 와서 정해.

정 영 학 제가 무슨 정합니까? 형님이 결정하셔야죠. 제가..  
시공사 부분이랑 형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김 만 배 자, 내가 얘기해줄게.

정 영 학 형님이 결정해주시어야 합니다.

김 만 배 아니 아니, 지금 현대하고 대우가 왔어. 그런데 30만원 차이야.  
그런데 그 차이라면 현대가 사실 나아. 그 차이라면.

정 영 학 30만원 차이면,

김 만 배 현대가 나아.

정 영 학 만평이니까 30억 차이네요.

김 만 배 응. 그러니까 현대가 브랜드상 나아. 왜냐면 현대가 밀에 있고.

정 영 학 자금조달도 비슷할 것 같아요.

김 만 배 응. 그런데 현대는 옵션이 세 가지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빗질을 해야  
돼, 잘.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그런데 대우 카드를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현대를 빗질하는 과정에 애네  
들이 빠디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대우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예, 예, 예.

김만배 그리고 SK하고 효성도 접촉을 해보는데, 이 접촉하는 과정에 SK도..

정영학 효성계 왔다 하더라구요.

김만배 응. 왔대? 나는 처음 들어봤네.

정영학 예. 좀 전에 그냥. 얼마에 넣었는지는 보고를 한다고.

김만배 이 대표? *이제나를 때렸어*

정영학 예.

김만배 응. 저 지랄해. 감추고 있다가..

정영학 아니 뭐, 저도 이제..

김만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영학 형님한테 보고를 하면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시공사 갖고 사실 다들 선호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선호도가 틀리니까 이걸 시공사 얘기를 해라. 웬만히 하고, 그냥 지침을 정해주셔야 편합니다.

김만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정영학 안 그러면 싸움, 계속 싸움이에요.

김만배 둘이 얘기할게.

정영학 예. 형님이 그냥.. 이거는 제가 하면 또 시끄럽습니다.

김 만 배 알았어. 내가 할게.

정 영 학 이거는 형님 입장에서 명분이 있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어디로 하시거나 명분은 있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공사를 싸게 하라. 이게 회사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김 만 배 응, 응, 응.

정 영 학 우리 분양가 잘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비싸게 해라. 이거는 사실은 제가 결정해도 우습고, 다 우습고. 형님이 그냥 뭐 이렇게 보고..

김 만 배 그런데 만나는 봐야 될 거 아냐? 건설사를.

정 영 학 저는 효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게요, 제가 효성 사장하고 골프 치는 사이입니다.

김 만 배 그럼 효성으로 해.

정 영 학 아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단 한번도 안했습니다.

김 만 배 응, 응. 오케이. (...)

정 영 학 제가 나서서는 안 됩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저는 형님이 하자고 하는대로 합니다. 어디든지.

김 만 배 오케이. 내가 그러면 완범이한테도 물어볼게.

정 영 학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잖아요. 효성 팬찮으냐고.



김만배 응, 응.

정영학 (...) 하십시오. 유기적으로 싸면 저는 저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냥 여기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걸 또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의외로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김만배 효성으로 해.

정영학 저는 상관없습니다. 효성. 네.

김만배 그러면 양완범이랑,

정영학 형님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분양가.

김만배 분양가는,

정영학 분양가는 형님이 결정하셔야죠.

김만배 분양가는 영학아.

정영학 가서 고민하시죠.

김만배 가서 고민해. 지금 하지 말고.

시에서 (시에서)는 뭐 내가 얘기하는 거 3천만원 얘기했더니. 3,100만원. 그랬더니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를 해. 그건 우리의 이익이지만,

정영학 그럼 형님 편안하게,

김만배 편안하게.

정영학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김만배 가다가 3,300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정영학 그럼요.

김만배 3,500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정영학 효성이 저것만 아니면, 현대보다 높지만 않으면 쌀 거예요. 쌀 수밖에 없  
고.

김만배 효성으로 가.

정영학 싸면 거기서 가서 분양가를 편안하게 결정을 하시는 거가..  
형님이 그렇게 해야 불만이 없어요. 제가 무슨 힘이.. 힘 없어요.

김만배 그리고 여차하면 바꿀 거야. 왜냐면 돈 줘서 내보내든지 부회장으로 승진  
시키든지.

정영학 그건 아닌 것 같구요. 다 왔지 않습니까. 6개월인데.

김만배 아니, 고집이 너무 세.

정영학 시공사 때문이에요?

김만배 아니 아니, 이 준공을 해가는데.

정영학 거기서 약간 뭐..

김만배 자, 내가 물어볼게. 여덟마리 개가 있는데, 리드견은 최고 개들한테 존경  
받고 잘 달리는 놈을 리드견을 썰매 개를 시켜.

정영학 그렇죠.

김만배 썰매를 모는 사람은 채찍을 잘 쓰면 돼. 목표를 잘 알고.  
그런데 본인이 리드견이 싫다고 중간에다 놓고 영똥한 개를 앞에다 세우면 개는 썰매 개는 효율적으로 달리지를 못해.  
썰매 주인의 입장에서는 썰매를 모는 사람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경고를 하는 거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안해.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

정영학 네.

김만배 바꾸기야 하겠냐.

정영학 뭐 그러니까요.

김만배 공동대표까지 최악에는.  
두놈 오라고 그렇게.

정영학 (..)

김만배 아니, 양하고 저기. 이.

정영학 네.

김만배 저 오라고 해. 이성문이라고 양완범이.

정영학 아까 시공사 있는 거 갖고 와봐라..

김만배 응. 아니 가져오겠지.

정영학 네.. 형님이 결정하십시오.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거는.  
왜냐면요, 물어보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 정도 차이는 극복이 안 되

니까 이리 가고. 더 주겠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

김 만 배      응. 그러면 SK 하나만 먼저 (...)해보라고 그럴까? 이 셋 중에서.

정 영 학      형님이 이미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김 만 배      응.

(똑~)

김 만 배      응, 왔어?

) 정 영 학      예.

) 이 성 문      (...)

) 김 만 배      그 뭐, 효성 것 가져와봐.

) 이 성 문      예. (...)

김 만 배      그래.

행정심판 좃같이 대응했었지. → 김만배가 이성문 데한테에게

정 영 학      형님 그래도 막 뭐라고 하시면..

김 만 배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열심히 해야지.

이 성 문      (...) 효성에서 정식 제안서를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 부장이,

김 만 배      효성으로 하는 게 낫다, 영학아. 이렇게 봐. 한번 봐.  
효성도 빌라 잘 한다.

정영학 솔직히 시공사 문제는 그냥 형님 결정하시는 대로 하는 게 낫죠.

김만배 오케이. 그러면 효성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영학이가 총괄을 해. 성문이는 손 떼고.

이성문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이 준공하는데 양완범을 도와줘.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김만배 응. 쓰잘데 없이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응?

이성문 네, 알겠습니다.

김만배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

무슨 현장감독회의를 현대엔지니어링을 시키면, 감리는 가만히 있을거고, 발주처는 뭐야 그러면? 이게 시장에 소문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건 생각 안해봤지?

이성문 일단 알겠습니다. 현장회의는 양전무가 아침에 와서 양전무 판단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만배 내가 지금 한번 물어볼게. 감리단에. 그 사람 생각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리고 우리 발주처는 유상무하고 양전무는 어떻게 되고? 현엔의 최소장이 회의를 주도하면. 유중열 양완범.

이성문 현장회의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양전무가 알아서 진행하라고.

김만배 회의는 언제서부터 하는 거야?

이 성 문      매주 월요일.. 아 저, 화요일 아침 9시부터 하죠.

김 만 배      그러면 어제는 어떻게 했어?

이 성 문      어제는,

김 만 배      회의를 했어?

이 성 문      했는데 애매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 만 배      어떻게?

이 성 문      제가 그 이야기한 게, 회의 부분을 유상무가 회의진행을 하지 말고 현엔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리단이나 현엔하고 이번주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해라 라고 해서 연말에 양전무하고 유상무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니까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장이 회의—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만—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좀 혼선이 있었

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어제도 양전무한테 이야기했고, 오늘도 양전무 현장회의는 본인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 찾아서 해라.

김 만 배      어제도 한거네 그러니까?

“철탕”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이 성 문      예. 하긴 했습니다.

↑

김 만 배      다시 원상복귀 해놓고. 회의를. 응? 그리고서 이 범무적인 거는 내가 법률적인 걸 검토해서 송우철 선배한테 보낼 테니까, 보낸 다음서부터는 개입을 해. 내가 지금까지는 다 뒤에서 작업을 해놓을게. 행정소송은 해야 되니까.

→ 범무적인 테딩이름 [권, 대법원판연구관]

이 성 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환님,

이성문.

김 만 배 그리고 완범이도 그렇고 성문이도 그렇고, B1에 개입은 하지 마. 대신에 정회계사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도와달라는 부분까지.

이 성 문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응. 아니 이까짓 거에 천억이 남든 2천이 남든 우리하고, 우리의 주된 목표가 아니야. 우리는 준공이 목표인 거야. 거기에 전념을 해야지, 1년 동안 맨날 이것 때문에 싸돌아다니고..

정 영 학 B1은 사업승인까지 접수가 됐으면 사실 중요한 상당부분은 다.. 그리고 두 가지 남아있는 거가 시공사 선정, 그다음에 (...)PF 분양승인.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실무자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해결될 일이고, 그 다음에 방향도 이미 잡혔고, 사실 뭐 저 그렇게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능력은 부족하고, 어차피 중요한 결정은 형님이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김 만 배 하세요.

정 영 학 아니 형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실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야 뭐 건강상의 문제로,

김 만 배 건강은 내가 도와줘.

정 영 학 와서 살지는 못하고.

김 만 배 알았어.

정 영 학 예. 김부장이 잘 하니까요. 그냥 뭐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 시공사 결정하 고,

김 만 배 효성으로 해.

정영학 열심히 준비해서 형님이 결정해주시면..

김만배 응, 응. 그래서 효성을 만나서 빗질 잘 해서 정리를, 계약조건을

정영학 저는 아시다시피 효성은 좀 관계가 있어서 제가 안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김만배 그럼 종길이보고 만나라고 할게.

정영학 예. 제가 여기는 가면 안 되는 저기라.

김만배 그리고 내가 사주 쪽하고 연결한 선이 있어.

정영학 <sup>효성 대주주</sup> 제가 개입돼 있는 거는 진짜 알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큰일입니다 진짜. 오히려 그게 더 편합니다. 효성이 아니 그.. 하여튼 뭐 좀.. 아예 저는 효성 안 나타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골프 치는 사이입니다. 그 어디죠?

김만배 사장하고?

정영학 예. 그 저기, 웰링턴. 토요일날 10시에 같이 치는 그 저기라 아유 좀..

김만배 최재경 수석 큰어머니의..

정영학 오너 일가 쪽에?

김만배 응.

정영학 뭐..



이 성 문      더 말씀 없으시면 (...)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방향이 한번 맞으면 형님이 그냥 결정하고 가시면 되죠.

김 만 배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 준공도 못하고 죽썩. 왜냐면,

정 영 학      네, 네. 지금 시공사 결정하면 김부장 니만 하고 나머지 밖에 있다가 어려운 일 도와달라, 그게 맞습니다.

김 만 배      여직원 하나 뽑고. 여직원 하나 뽑아.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여직원 하나 뽑아서 나중에 잡일 할 애 뽑고. 그래서 개가.. 응?  
저 일이 많아. 왜냐면 땅 사간 사람들 것 나중에 등록해야지 뭐해야지 이런 처리, 이게 되게 많아.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그러니까 김■■■■이한테 뽑으라고 했어.

정 영 학      아, 지시하셨습니까?

김 만 배      응, 응. 좋은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저 김포도시공사에 있던 애 하나 하고, 또 포스코에 우리 현장 담당했던 애가 있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길래 둘 중에 하나 뽑으라고 했어.

정 영 학      예.. 사람 뽑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김 만 배      응. 나도 안 봤어.

정영학 사람은 형님이 보셔야죠.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요.

김만배 이거는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냐. 그지?

정영학 100억 차이가 넘게 납니다.

김만배 응. 이리 가. 그지?

정영학 고민할 게 없는 거죠, 형님.

김만배 그럼! 현대 가서 뭐.. 효성 것도 다 완판되는 판인데.

정영학 예. 해외금리 각 기업 조달금리도 대우가 훨씬 높긴 한데요. 오히려 대우보다 효성이 자금조달이 더 잘 되는 회사입니다. 이자율이.

김만배 몇%야? 이자율은.

정영학 여기 3.95 현대가 3.7 대우가 4.3 낮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비슷해요. 공사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자율 차이가 없는데 공사비 차이니까 똑같습니다.

김만배 응, 응.

정영학 (...) 공기도 작고, 그리고 또 해봤고,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 회사는.

김만배 아니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효성하고 SK를 만나봐라 했지. 현대에만 목메느니.

정영학 차이가 많이 나요.

김 만 배      내가 왜 극단적으로 조치를 해놨냐면, 현장에 현장회의가 있어. 발주처 직원 하나. 그런데 유상무량 양완범이가 주도한 게 있는데, 이거를 현엔 소장이 주도하게 조치를 했더라고.

정 영 학      여기서요?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이대표가?

김 만 배      응. 왜냐면 유가 좀 불안하니까. 잘 이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양완범이 주도권은 주기 싫고. 그 대안으로.  
감정적인 거지. 일에 대해 감정이 개입했어.  
우리는 감정적이지 않은 작업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볼 때 감정이 개입된 거지. 명분이 없잖아.  
그러면 감리단장은 시공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체제가 된거고, 발주처도 시공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체제가 되는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응? 세상 어디 가서 일하니 이게. 응?

정 영 학      예. 시공사 정해지면 시공사 계약을 잘해야 되잖아요.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양전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뭐..

김 만 배      응, 응. 내가 지시는 해놓을게.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이 방도 써.

정영학 아닙니다.

김만배 씨. 들어와서 앉아있어.  
영학아, 너랑 나랑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마무리해야 돼. 준공도. 응?

정영학 네, 네.

김만배 너 공원도 지금 문제가 많아. 응?

정영학 공원 앞에 2,700억에서 돈이 좀 남는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2,700억 줘야 되기 때문에 갭은 있어서 괜찮다 생각은 했어요.

김만배 그래.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영학 준공시점이.

김만배 응. 방음벽 이거 위에 붕 씩우는 건데, 이게 건축물에 들어가는 건데, 이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공원과하고만 협의하다가,

정영학 아. 그럼 건축과에서?

김만배 응. 공문을 우리한테 발송했어.

정영학 건축과에서 뭐라 했겠네요. 건축물 이거 안 받았냐. 그 이야기인가요?

김만배 응. 그렇지. 그런데 공원과에서 몰래하기로 했는데 위에서 팀장하고 과장이 알미우니까 돌렸어. 건축과 회람을. 그러니까 공문서가 우리한테 날라온 거를 실무담당자가 무서우니까 2주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만평이면 3천평을 잘라나가면 건폐율이 있어서 애초에 그게 건폐율에 조건이 합당하다는 건 각하. 각하잖아. 각하.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지금..

정영학 새로 제안했나요? 헐고.

김만배 아니 아니 그냥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걸. 이 새끼들도 모르고.

정영학 그런데 사실 그런 방식의 기부채납이 또 저희도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거  
는 거의 떨어져 있는 공원을 하는 건 처음이라.

김만배 응. 그러니까 집중을 안하고. 그래서 정신 교육시키는 거야. 집중을.  
형이 하란대로 해. 안 그러면 좋은 것만 보고받고 좋은 얘기만 듣는다니?  
응? 멤버라는 게 뭐야? 나쁜 얘기도 같이 들어야지 대책이 나오지.

정영학 실은 형님 뭐 시공사 결정할 때도 저보고,

김만배 나는 효성.

정영학 하셔도 괜찮을.. 하세요. 예.

김만배 그래서 재네들이 여기..

정영학 공사비 135억 차이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분양가 잘 받으면 강화유리라든지 해주고 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김만배 나는 B1의 계락을 빨리 해치우고 싶은 사람이야. 응?

정영학 예.

김 만 배 왜냐면 전략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정 영 학 이제 사업승인 났으니깐요.

김 만 배 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정 영 학 사업승인 났으니깐 이제.. 맞습니다. 예.

김 만 배 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가다가 연못에 잉어 많다고 거기에서 좇나게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산을 넘어서.. 무슨 말인지 알지?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아니 연못에, 연못이 뭐 크냐고. 저 산을 넘어서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데.

자, 과일나무도 정 회계사, 아무리 과일나무가 위로 잘 뻗어도 그 한 나무로 인해서 다른 나무가, 다른 가지가 죽게 되면 그거를 자를 수밖에 없어.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응? 그지? 그렇다고 진짜 아웃시키면 안되고. 응?

정 영 학 올해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준공시점이 8,9월이면 8,9월 얼마 안 참으시면..

효성이 이자율이 잘 나옵니다. (...)면. 현대..

김 만 배 그리고 난 솔직히 <sup>비밀</sup>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B1 연못에. 잉어 연못에. 응? 나는 저 고지를 넘어야 돼. 그게 내가 성남시하고도 약속한 약속이고 주주들하고 약속한 약속인 거야. 응? 그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또 우리 조직의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회계사가 해줬으면 해.

정 영 학 하여튼 (...)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하.  
결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무적인 거야 다 할 테고.  
마지막에 이거 하고, 분양가 받을 때 문제인데요.  
가이드라인을 좀 주셔야.. 방향을. 분양가.

김 만 배 어떤? 분양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sup>51분??</sup> 분양가는 뭐 한 3200, 3300이 적당한 것 같애. 저항력도 없고.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 영 학 그 정도면 완판은 될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3500은 좀 무리한 것 같고.

정 영 학 요즘 보면 발코니 쪽에서 비용을 좀 잘 받긴 하더라고요.

김 만 배 3500은 무리야. 그리고 그 돈 남으면 너도 더 가져가.

정 영 학 아니 저야 뭐..

김 만 배 여기서 하는 만큼. 세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 영 학 저는 그냥 돈 욕심보다도 그냥 조용히 잘 팔리..

여기에 물려있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김 만 배  
31:02~

현재 350억.

정 영 학

예. 빨리 그런 거를 애들이 빼줄지 안 빼줄지 모르겠네요. 빼달라 해야 되겠네요. 시행사 30억을 좀 (...) 해달라. 형님이 좀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남들 다 빼준다는 안 되느냐.

김 만 배

그래. 아니 계약할 때 그거를 (...) 해야지.

정 영 학

예. 단가가 잘 나왔습니다. 610이면. 업그레이드를 해도 678만원이면..

김 만 배

내가 왜 극단적으로 이렇게 세계 가냐면, 얘기 다 한거야. 중간에.

정 영 학

예. 알아보고 하신 건가요? 단가를?

김 만 배

나는 뭐 욕심이 없어. 왜 그러냐면 영학아, 나는 목표가 저 산의 고지를 넘는거야.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32:30

저게 만약에 준공이 늦어지면 이익이 얼마 남니 뭐니 지역신문이나 터지면 어떻게 해. 응? 너랑 나랑. 응?

(B(보령))

이깟 건 아무것도 아닌거야, 우리한테. 응?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이득이 얼마 났는데 먹튀를.. 그럴거여.  
생각해봐. 뭘로 막아. 지금까지 돈으로 막았는데. 응?

32:50

정 영 학

예.



→ 신문사 보낼  
지회도 떠들고.

김 만 배 기자들 떠들어대면 어떻게 해. 지회도 떠들고.

정 영 학 잘 막으셨는데 괜히 이것 땀에..

김 만 배 그래~ 난 그래서 이거 왜 여기다 신경 쓰냐고. 애들이. 응? 조직을 정비 해서 가야지. 1년 더 여기서 늦은 거 아냐. 응?  
막말로 무슨 수로 감당할래. 대선은 가까워지는데. 응?  
우리는 그 전에 캐야지. 응?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이런 전문적인 게 없어요. 심지어 철탑 가지고도 말이야 했니 안했니, 비용은 어떻게 하니. 시행사나 지주들 다 (켰다)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 난 관심이 없어. 솔직히 이거. 응?

비보리

“의혹을 확인했어”는 뜻.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씨팔 (연똥) 메꾸고 싶어. 불도저로. 응?

비보리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진심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정 영 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나중에 산은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돼. 응? 눈이 오기 전에 산은 넘어야 될 거 아냐.

정 영 학 형님하고 같습니다. 저도 이거는 크게.. 준공이 중요하죠. 말씀드린 거 가.

김 만 배      그래. 그런데 (...) 없으니까.

정 영 학      네. 이미 물려있는 게 있으니까.

김 만 배      그리고 자기가 돈 벌면 좋지, 여기서.

정 영 학      예. 김부장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김부장도 일 잘하고요. 오히려.

김 만 배      아이 그럼.

정 영 학      오히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하는 것 보면. 실무적인 감각도 있고.

김 만 배      가장 나아. (...) 아니 아니 내가..

정 영 학      네. 일도 잘하고, 많이 해봤고.

김 만 배      응. 내가 직업이 기자잖아. 한 사람 얘기만 안 듣잖아. 팩트를 들어봤는데 하게 되잖아. 그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응. 전문가들한테 꼭 물어보잖아. 하자가 없느냐-

정 영 학      네. 좀 시끌시끌한가요? 시쪽이? 이 일은 많이 (...)

36:10 김 만 배      이제 이런거지. 우리 일을 (...)  
그리고 이제 남욱이 따로 은행 다니면서 떠들어댔을 거 아니야. 응?

정 영 학      네.

36:28 김 만 배      그런 얘기들이 이제 김추권(?)을 통해서 (...) 그러니까 이제 (...)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영학 성남에. 성남 쪽에.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시의원?

→ 박병채 대리 [광주광역시의원 이국]

☆ 김만배  
2/6:44

시의원. 저 병채 선배인데, 시행사 이익을 공유하자. 끝나고 나하고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 한번 만났는데. 응? 그러면서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은 시도를 (...)

정영학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런데 애들은 나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 조금만 (...) 그리고 일을 자기 주변에 완공을 시켜야 되는데.

정영학 그건 형님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준공 때 TF팀장, TF팀에 어떤 기획을 시켜오면 과연 보고 받고..

김만배 그런데, 그래서 형이 완전히 돌아오는 게 현장회의를 완벽이하고 유상무가 주도했던 거를 왜.. 완벽이한테 맡겨야지.

정영학 그렇죠. 이게 시행착오 하기에는..

김만배 시간이 없고.

정영학 예.

김만배 그리고 싸움에서 각각 주위에서 준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대선이라는 큰산이 언덕 위에서 휘몰아치는 광풍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

정영학 예, 예.

김만배 응? 그걸 내가 그 전에 알른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요게 관여를 (...)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라고.

정영학 아니, 이 문제거든요. 제일 첫 번째, 시공사 문제가 인제 어떻게 보면 계속 양보가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인제는 뭐..

) 김만배 효성으로 하고. 그리고 ■이 데리고 여직원 하나.

) 정영학 예.

) 김만배 별도의 회사다 생각하고 해.

정영학 김부장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김만배 내 말 좀 이해해줘.

정영학 예. 사실은 제가..

김만배 이해 못하면 나중에 같은 문제에 직면하는 거야.

정영학 예, 예.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저도 이거보다는 이 본사업 준공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은 하고요,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대신 인제, 이 일에 저는 그냥 뭐, 양전무나 이대표가 이

쪽 이 연못을 안 보도록 하는 역할 정도이지, 제가..

김 만 배      응. 필요한건 물어보는거지.

정 영 학      네. 제가 여기에서 뭐 제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실력도 안되고.  
겸손하게..

김 만 배      왜 안돼?

정 영 학      아, 진짜 실력이 안돼요. 괜히 산으로 갑니다. 김부장 열심히 도와줄테고  
요. 대신 두사람 하여튼 뭐, 그-

김 만 배      나는 존중하는 의미로 애들을 한 번도 여기 앉아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대표이사 항상 (...)

정 영 학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김 만 배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여도 속으로 존중하면서 일을 잘 봐야지.

정 영 학      형님이 잘해주셔서 그렇죠.

김 만 배      감사를 안히지. 여기에 감사. 응? 자, 니 앓어. 그런데..

정 영 학      이렇게 비교해서 갖고 오라고 한 건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김 만 배      아니 아니 지네들이 한거야. 내가 볼 때는 종길이가..

정 영 학      억 소리 못하잖아요.

김 만 배      ■■■이가 내가 볼 때는 비교를 한거야. 왜냐면 개가 지금 이성문하고 양완  
범 사이에 새우 등터지는 거야.

정영학 이 자리가요?

김만배 지시가 틀려서. 하나는 이성문, 하나는 양완범.

정영학 현대가 이성문, 대우는 양완범.

김만배 응. 양완범. 내가 저기, 효성 해봐라, SK 만나봐라 했거든.

정영학 김■■ 부장은 효성인가요? 아직 그건 뭐..

김만배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애는 인제 회장 얘기나 정영학 회계사가 한  
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고 (..)

정영학 김■■ 부장이 효성을 잘 알거예요.

김만배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게 (..)

정영학 완전히 이거는 형님, (...) 못하는 거거든요.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여러 가지가 전체를 비교를 해놨지 않습니까. 일단 공사비. 뒤에 자금조달  
방안, 서류심의 뭐 요런 거 그냥 다 끝내놨는데.

김만배 응, 응.

정영학 분양가가 불확실한 건 당연히.. 100% 분양이라고 (...) 이걸 뭐 잘 비교를  
해놓은 것 같아요.

김만배 미분양 많이 나면 날수록 좋아. 응?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정영학 요즘 테라스에 대한 선호도가 무지 좋습니다.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미분양 많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입구에 경남계, 경남이 아니라 좀 후진 아파트들도 다 4천 정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 만 배 응. 하여튼간 적자만 안 나게 해주세요.

정 영 학 적자 안 납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공사도 잘.. 여기는 적자 안 납니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아니 뭐, 그만큼 못 받으면 싸게 지어서, 지으면 되는 거고.

김 만 배 아니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정 영 학 예. 그다음에 좀, 그다음에 분양가 싸면 미분양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파크타운에 서안아파트 그 후진 아파트도 평당 4천이거든요.  
박연주 이사가 삼부 사는데, 진짜 삼부 지금 부동산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평당 4천입니다.  
새집에, 판교에. 그냥 뭐 저는 3천 초반이면..  
효성이면 다행히 3천만 해도 이익은 별로 걱정 없고, 2,990이어도 효성은  
이익이 나고요.  
(아 예. 네네, 죄송합니다. 회의중입니다. 예)  
분양가는 크게 부담이 없죠. 100만원 차이면 사실은 200만원 차이거든요.  
깍이.

김 만 배 그렇지. 용적률이.

정 영 학 용적률이 200 차이가. 그러니까 공사단가가 100만원이면, 분양평수로 따지

면 저희가 180만원 차이 정도 되겠고요.

김 만 배 180만원.

정 영 학 그렇게 큰 차이는..

김 만 배 나는 언덕을 빨리 넘기 위해서 하고 있어.  
저거는 언덕하고 상관없으니까 (..)

정 영 학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 만 배 나는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예.

김 만 배 그래서 산을 넘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운 (..) 싫으면 고향으로 돌려보내  
게. 입빠이 돈을 쥐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안 그러면 이거는 준공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다 힘들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지?

정 영 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

정 영 학 그다음에, 저희 구역 돼 있는 거를 무리하게 시행을 시키는 거는 여태까지  
도시개발사업 하다보면 뭐 식사지구나 (..)지구 같은 경우 인터체인지 해



내라. 다 했어요.

나중에 이 시행사들이 부당(...)금지원칙 위반이다 해가지고 소송해갖고 천 억씩 다 받아냈거든요.

김 만 배 다 받아냈지.

정 영 학 저희도 이게,

김 만 배 터널도 받아낼 수도 있어.

정 영 학 터널도 저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만 배 공원도 받아낼 수 있고.

정 영 학 대신 아마 제가 소를 제기 안하겠다라는 합의서를 넣고,

김 만 배 부제소확인서.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어.

45:00 정 영 학 하긴 뭐 그거야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치면, 여기는 진짜 추가적으로 계획 제출해야 되는데, 시행까지 부담을 하면 여태까지 서류상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소송 (...)

김 만 배 아니 이제 (...) 잘 찾아냈으니까. 응,응.

정 영 학 준공 딱 끝내놓고 시에 한 2~3년 후에 다 소송하더라고요.

김 만 배 다 하지.

정 영 학 예. 시 죽습니다.

김 만 배 그럼.

정영학 아마 (...)  
지난번에 그 A 그 인접 블록에 민원인들한테 그냥 세대당 중문 설치해주고 그..

김만배 그거 할라고.

정영학 그거 형님, 그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김만배 A11. 아니, A1, A2

정영학 예, 예. 그거 돈 별로 안 드는데 생색은 나고.

김만배 응. 백만원씩이면 돼.

정영학 예, 예. 그런 거..

김만배 그거 어차피 킨앤파트너스 돈으로 하는데.

정영학 큰돈도 아닙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 큰돈은 아니지.

정영학 거기가 땅값을 싸게 받았고 분양가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득도 많이 나고.

김만배 그럼. 그럼. 분양가 (...)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리고 아직 돈이 한 10억 정도, 20억 정도 저기할 (...)

정영학 네 네 네.

김 만 배    여기 좀 있어. 화장실 갔다 올게.

정 영 학    네 네 네.

(잠시 후) (46:50~51:00)

김 만 배    양 전무는 (...) 어. 들어오라고 그래.  
양 전무 왔네.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저 눈 내리기 전에 산 넘어야 돼.

정 영 학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머뭇거리면 안된다니까,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파도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내년, (올) 하반기부터 엄청난 공세가 시작될 텐데, 응? 뭘 머뭇거리.  
2021년.

정 영 학    예, 예. 준공 빨리 끝내야죠.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진짜 빨리 끝내야죠.

김 만 배    돈 더 들어가도 빨리 끝내고,

정 영 학    빨리 끝내야 돼요.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저 6시에 약속은 하나 있는데요.

김 만 배     아 그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럼 저녁은 어떻게?

정 영 학     저녁.. 저깁니다. 저녁 안하고 회의.

김 만 배     회의?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어떻게 하냐 그럼. 밥 안 먹어, 여기서?

정 영 학     예. 저녁 드실랍니까?

김 만 배     아니, 저녁 먹을라고 있어, 나는. 같이. 직원들 신년 회식을.

정 영 학     아, 어제 하신 거 아닌가요?

김 만 배     어제 열 받아서 밥 안 먹었다니까.

정 영 학     아. 그러면..

김 만 배     그리고 너 오면 할라고.

정 영 학     네.. 제가 카톡을 한번..

김 만 배 물어봐.

정 영 학 물어보고. 좀 빨리 가서 빨리 끝낼까요? 아니면,

김 만 배 응. 빨리 끝내고 와. (...) 해서.

정 영 학 아니요. 신길 5구역.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신길 5구역.

김 만 배 아! 그럼 그 사람들 저녁 먹고 보자고 그래.

정 영 학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 만 배 여기서 저녁 먹고.

정 영 학 먹고 한 7시쯤 출발하면,

김 만 배 7시 반.

정 영 학 7시 30분 출발. 이번에 이거.. 다 데리고 하실건가요? 식사를?

김 만 배 아니,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거지.

정 영 학 네.. 요즘 안 되지 않습니까.

김 만 배 따로따로 앉으면 되지. 테이블에 세명씩만 앉으면 되지. 응?

(똑~ 똑~)

김 만 배 예.  
들어와 여기.

양 완 범 예.

정 영 학 아 예. 안녕하십니까.

김 만 배 시청 갔다 왔어요?

양 완 범 아 예. 시청하고 공사 좀 들어갔다 오느라고요.

김 만 배 아 참, 어제 회의를 했어? 현장회의.

양 완 범 아 예.

) 김 만 배 음. 그걸 왜 해? 창피하게. 응? 인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디 가?

정 영 학 화장실 좀..

양 완 범 제가 주재하는 걸로 했죠.  
어제 안 그래도 감리에서, 감리단에서 항의를 좀 했거든요.

김 만 배 그래. 감리가 시공사한테 보고하는 형식이 될 거 아니야?  
발주처도 시공사한테 보고하는 형식이 될 거고.

양 완 범 그건 아니고, 발주처한테 보고를 하면 했지, 상급기관이 감리인데 어떻게  
시공사한테 보고를 하나. 안 그래도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김 만 배 음. 그리고 효성으로 가기로 했어.

양 완 범 아, 효성으로요?

김 만 배 응. 나도 이거 처음 봤는데, (...)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산을 넘어야 되니까, 가는 길에 황금연못에 잉어들  
이 많아도 거기에 시간을 끌다보면 고개를 못 넘어.  
눈이 오는데 산을 어떻게 넘어? 눈 오기 전에 넘어야지. 응?  
넘는데 TF 팀장을 했으니까 잘 됐고, 조직도 잘 끌고.

양 완 범 예.

김 만 배 내가 힘을 전적으로 실어줄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양 완 범 예.

김 만 배 그리고 가끔 영학이가 물어보면 도와주고.

양 완 범 예.

김 만 배 도움을 요청할 거야.  
그리고 ■■■이 보고 여직원을 하나 뽑으라고 그랬어, 내가. 여기 전담 애.  
그러니까 포스코에 있던 여직원 하나 하고, 지금 김포공사인데 호반에 가  
있는 여직원 있대.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 뽑으라고 했어.  
그래야지 나중에 단지 내에 잡무처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양 완 범 예.

김 만 배 자크 닫으세요.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부랄 커, 영학이.

정영학 아니에요.

김만배 엄청난 부분이야.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나봐.

정영학 인기 전혀 없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인기 전혀 없습니다.

양완범 더 말씀은..?

김만배 아니 뭐, 더 있고 싶으면 있고.

양완범 아니요. 두분 말씀 나누세요.

정영학 하여튼 뭐, 별일 없으시죠?

양완범 예.

김만배 이따 저녁은 어떻게 해?

양완범 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김만배 그러면 이따 생선구이 먹으러 가게 박현덕 이사보고..

정영학 저는 한 10분후에 전화 준다 했거든요.

김만배 그래, 그래.

정영학 저는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 만 배 아, 그래? 응?

양 완 범 저도 지금 (...)느라고 지금 수원하고 연락 좀 해보고 나서요.

김 만 배 그래 그래, 좋아요. 예.

양 완 범 예.

정 영 학 준공 맡아서,

김 만 배 해야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성문이가 배워가면서 응해.

정 영 학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말 안 들으면 (...) 내가 스트레스 진짜 받고 힘들다 하는 식으로..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그런데 그러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요. 시간도 없고.

김 만 배 왜냐면 돈이 문제라면 난 내버려두는데, 돈이 문제가 아닌거야.  
고개 올라가기 전에 눈 내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셀거야.

정 영 학 네네네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내버려두고, 우리는 산을 넘을라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내 마음 이해해줬으면 해.

정 영 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이런 얘기 개네들한테는 안했거든.

정 영 학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뭐 이래 정리될 수 있는 얘기가..

정 영 학 아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김 만 배 응. 재네들이야 당연히 여기에 생각이 있겠지.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돈도 얼마씩 (...)할 거고, 또 그거는 이득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려면 여기에 관여를 계속 해야지. 그러다보면 조직은..

정 영 학 형님 비유가 맞습니다. 산을 넘어야 되는데 연פות에 (...) 다 얼어죽게 생겼는데요.

김 만 배 일을 시켜야지 이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재가 일하는 건 진양의도 안해.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해.

정영학 여기도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김만배 아이 그럼.

정영학 그냥 하면 되는데.

김만배 (...) 될 거야.

정영학 예. 분양이고 그러리라고 따라서 했는데, 뭐..

김만배 그런데 애는 들이 갈등이 좀 많아. 애, 애. 갈등이 있지. 근데 최선이야. 근데 성문이는 들이 얹혀놓고, 갈등 있냐? 갈등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물어봐. 있다는데 임마 왜 없어? 응? 없습니다. 없는 (...)  
그게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나아.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초기에는 진짜 황소가 막 끌고 나가는 추진력을 기대했고, 정교한 소가 진 땅, 마른 땅을 잘 구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 되니까 들이 자존심 싸움이야.

정영학 예..

김만배 그리고 이성문의 단점이 뭐냐면, 중간과정에 대한 공유가 없어. 회장한테도 공유가 없고. (...) 튀는 애야. B1 문제로 나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 혼자서 했다고. 그러다 안된거야. 시에서.

정영학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푸는 건 양 전무가..



김 만 배      그래 그러면. 6시에 갈거야. 6시 반에.

정 영 학      5시 한 반 정도에 출발하면..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좀 있다가. 죄송합니다.

김 만 배      응, 응. 내 취지를 알지?

정 영 학      네, 네, 네, 네.

김 만 배      그래서 '이'가 구원요청을 하더라도 내 취지를 알고 있어야 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왜냐하면 좀 시기가 늦어지면 우리는 어려워져.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엄청난 구상을 한거야. (...)

정 영 학      예, 예. 지금 그러면 공원 풀어야 되고, 저것 풀어야 되고, 앞에 두밀사 거리 풀어야 되고. 저거를 그냥 양전무를 아예 그냥 시키실 걸로?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요거 형님, 보실랍니까. 제가 (...) 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만 배      응. (...)

정영학 아니 뭐 이미 다 해놨는데 뭐. 김 부장이 똑똑해서.

김만배 이것만이 아니야. (...) 응?

정영학 형님이 좀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김만배 응. 그래서 내 결정이..

정영학 형님 결정이 맞아 갑니다.

김만배 그럼. 그냥 단순하게 결정된 거 아니고.

) 정영학 아니 뭐 그건 아니죠. 교체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김만배 최악에는 부회장으로 넣고, 양완범이 대표이사 해놔야지. 만약에 말 안 듣는다면. 그건 최악.

정영학 예.

김만배 본인이 나간다면..

정영학 지금 그런데 뭐, 안 들을 게 있나요?

김만배 응? 하여튼간.

정영학 저거 B1 뭐..

김만배 응? B1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역할을 줘야지. 충분히. 조언하면서 또 지원하면서.

정영학 해야죠. 예.

김 만 배 그렇게 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본인이 뛰면 안되지.

정 영 학 네. 대표가 시공사 만나는 건 걱정할 부분 없잖아요. 실무자가 만나갖고 조율을 해야죠. (...)

김 만 배 아니 그런데데, 내가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다. 인격모독일까.

정 영 학 뭐.. 아니, 대표이사 만나야죠 뭐.

김 만 배 싫은 소리도 좀 해줘. 그래야지.

정 영 학 저는 그, 이번에도 일단 뭐 좀, 그 관리 쪽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조만간에 관리쪽에서 아마 박현덕 상무나 보고드릴 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건 좀 (...)

김 만 배 미리 좀 알려줘.

정 영 학 알려드릴까요? 형님 아는 체 하시면..

김 만 배 응. 모르니까.

정 영 학 이걸 저도 잘, 애매한 내용입니다. 애매한 내용이긴 한데요. 저쪽 그 어디죠. PM쪽이 우리 유보소득이 많아서 유보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이거를 저희가 그냥, 유보소득이 안되면 이자비용으로 다 떼게끔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쪽에는 합의서를 안 받고 준 것 같아요.

김 만 배 응. 왜냐면 자기들이 세금 아무것도 안 받지.

정 영 학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우리는 세금 다 떼고 주겠다. 합의서 안 써주면.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해달라. 이 협의는 하고 있고

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제 이게 오너회사인 거하고 아닌 회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너 있는 회사면 그냥 더 줄게,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더 줄테니까 비용처리 해달라 하는 거고, 저쪽은 안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더 달라 해야 그게 정상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몇점 더 줄게, 내지는 니네 리스크는 없어. 대신 우리는 그게 인제 세법개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피해(..)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안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피해가 크니까,

김만배      응. 그런 게 있지.

우리가 왕창 떼고 줄게 했더니, 개네들이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네 회장한테 보고를 못한답니다.

왜냐면 옛날에 좀 뭐가 변동이 있으면 잘라버리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가.

위에 인제 오너회사하고 월급쟁이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마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한번..

아직 인제 시작입니다. 시작.

김만배      자주 와. 나는 요새 서초동 안 가고 이리 와. 왜냐면 그래도 있으면서..

정영학      요거를 스터디를 박현덕 상무하고 실무자들 셋 충분히 스터디를 하면 저희 리스크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고. 김선오 이사도 좀 스터디를 요새 한참 하고 있긴 하거든요.

김만배      응, 응.

정영학      일단 결론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희한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그렇게 해놓고 혹시 세금 나오면 니네가 다 내라 라는 조항까지는 받아낼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생기면 니네가 다 토해내라. 그런 합의서도 받아서 저희 리스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쪽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구요. 지네 회장한테 보고하기 어렵다. 일단 정산할 문제입니다.

김만배 인사해.

) 김종길 네, 네. (...)님, 죄송합니다. 오늘 현장 감리단장이랑 그 주무 심 [redacted] 팀장이랑 여성분하고 저녁약속이 돼 있어서..

김만배 그래.

정영학 수고하십시오.

김종길 네.

김만배 개가 일 잘해.

정영학 예. (...)

김만배 왜냐면 시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일을 안해. 개선이 안되니까 (...)

정영학 예..

김만배 공원 문제를 풀으라고 했더니.

정영학 아! 다른 사람들 이야기 모르고요?

김 만 배      응, 안해. 이 대표도 그렇고 양 전무도 그렇고, 관심이 없어.  
씨발 좇같은 것들. 아휴.

정 영 학      (..)

김 만 배      미친놈 또라이. 어제는 (..) 조직개편에 관한 얘기.  
누구 막말 진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왜 모르겠어. 응?

정 영 학      어제 형님 표현이 진짜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 김 만 배      응.

) 정 영 학      철탑.

) 김 만 배      그래.

) 정 영 학      그 철탑 그때 실무자분들이 계산한 게 우리가 막 4-5백억 이라고 했지 않  
습니까.

)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실제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나옵니다.

김 만 배      900억 나와.

) 정 영 학      예. 그걸 예를 들어 반 부담한다 하더라도 저희 부담이 700~800억 되지 않  
을까..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이 사람이 900억이라 하더라도요 더 늘거든요 확실히.

김 만 배 응. 아니 그래서 재판에 이기는 수밖에 없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행정심판이라는 건 민원인의 의견과 의사를 많이 반영 안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부대상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걸로 해.

정 영 학 일단 뭐 제일, 행정소송 제일 잘 하시는..

김 만 배 아이 그럼. 이미 오늘도..

정 영 학 아,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응. 또 송우철이 시키고 뒤에 (...)를 법원을 해놔야지. 지난번에 대법원 하듯이. 고등법원 하듯이. 고등법원 우리 가처분 그 당시에. 응?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공사금지 가처분 들어왔었잖아. 알지?

정 영 학 SBK.

김 만 배 응, 응. 그것도 깔끔히 해야 되잖아. 재판에 진 상태인데.

정 영 학 그다음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케이블헤드부지, 이런 부지 확보 해라 라는 정도면, 혹시.

김 만 배 그것도 해당 안돼. 서진이 가지고 있는 땅에 헤드가 되도록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 영 학 아.. 쉽지 않습니다.

김 만 배      응. 그거를 이번에 대법원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 영 학      아.. 그런데 헤드부지 예를 들어 3천평이다 2천평이다 하면, 기껏 해봐야 5만원 10만원짜리 땅이라서, 5억 10억 정도 (...) 같긴 하거든요.

김 만 배      그거야 뭐 (...)

정 영 학      예. 그 정도면..  
그런데 인제 구역밖에는...

김 만 배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시가 확보해야지.

정 영 학      예. 그 부지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요.

김 만 배      응. 새 명목이 없어.

정 영 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거를 이 사업지의 바깥이면 인허가 조건부에 부규로 달든지.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예를 들어서 뭐 1공단 김천 하는 것처럼 조건을 달든지.  
땅은 그럼 저희가 사서 기부채납해라, 아니면 못사면 수용권을 줘야 된다 이건데, 아마 이게 사업부지하고도 상관도 없고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받을 주체도 없고. 그다음에 돈을 기부채납할 방법도 없고.

김 만 배      그리고 그 땅 주인이 한전이라는데.

정 영 학      예. 한전에서 그 땅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한전에 그 무슨..

김 만 배      응. 명목도 없고.

정 영 학      돈을 받기도 어렵다 생각되니까, 소송해서..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공사비가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보면,  
앞에도 보면 공사비가 2,3백인 거죠. 케이블 헤드부지는 해봐야 5억, 10억  
밖에 안되거든요. 밑에도.  
산꼭대기 임야는 아마 밑에 인제 뭐 서진 땅 그 해봐야, 2천평 해봐야 그  
게 30만원이면 2천평 6억이거든요.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저 위에 확보에만 거기는 종종땅이기 때문에 그거 해봐야 한 3-4억,  
땅값은 한 10억, 20억 밖에 안돼요.

김 만 배      그런데 터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터널 위로 또 터널이 가야 되거든.  
이게 되게 어려운거야.

정 영 학      예. 그거 공사가 안 될걸로 알고 있어요.

김 만 배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 터널.

정 영 학      밑으로 가야죠.

김 만 배      터널 밑으로?

정 영 학      예. 고압선이 터널 밑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게 이게 옆으로 가는 것도 250억 공사 들었거든요.  
이게 단차가 있으면 이렇게 안되게.

김 만 배 안돼.

정 영 학 이렇게 안되고요. 이걸 떨어트려서 수평을 맞춰야 되거든요.

김 만 배 응, 그렇지.

정 영 학 여기 떨어트리는 기술이..

김 만 배 없어.

정 영 학 저 위에는 뭐 (...) 가능한데요, 이걸 깊숙이 갖고 와서 공사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쌉니다.

김 만 배 응, 그래.

정 영 학 그때 검토는 해봤지 않습니까. 스터디도 해봤고. 다들 900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정말 어디 엔지니어 업체들 물어보면 1,500억대 나옵니다.

김 만 배 나도 들은 얘기가 있어.

정 영 학 형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거. 위에 내리면 1,700억 들 것 같다고 최악의 경우에. 그것도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위에 내리는 거는 제안상에도 뺐고. 불가능합니다.

김 만 배 응. 그래.

그리고 조직의 리더는 직원들한테 중간과정을 얘기해야 돼. 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경위. 그래야 궁금해 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런데 리더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중간 과정에서 하나도 보고를 안해. 결과만 딱 놓고 그렇게 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스터디나 할 이유가 없어.

정영학 네..

김만배 그래서 SOS를 치면 내 추리를 충분히 얘기해.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예.

) 김만배 자기도 이해하는 거야. 왜 내가 B1을 안할려고..

) 정영학 네, 네.

) 김만배 그리고 다른 일을 안하느냐고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 힘도 없고. 여기만 하고, 여기 하는데도 벽차. 얼른 가.

정영학 네. 형님.

김만배 5시 반이야.

정영학 네. 죄송합니다. 식사 (...)

김만배 아니야. 아니야. 새해 복 많이 받고.

정영학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만배 항상 고마워.

정영학 아이구, 제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김만배 어. 잘 가.

정영학 예, 예.

이 성 문 가십니까?

정 영 학 네, 네. 저는 원래 오늘 아까..

이 성 문 아, 예.

정 영 학 선약이 원래 있어갖고.

이 성 문 아 예. 오셨어요.

정 영 학 (..)  
네. 감사합니다.

이 성 문 예, 예, 가지죠.  
수고하십시오.

김 만 배 자료 되는대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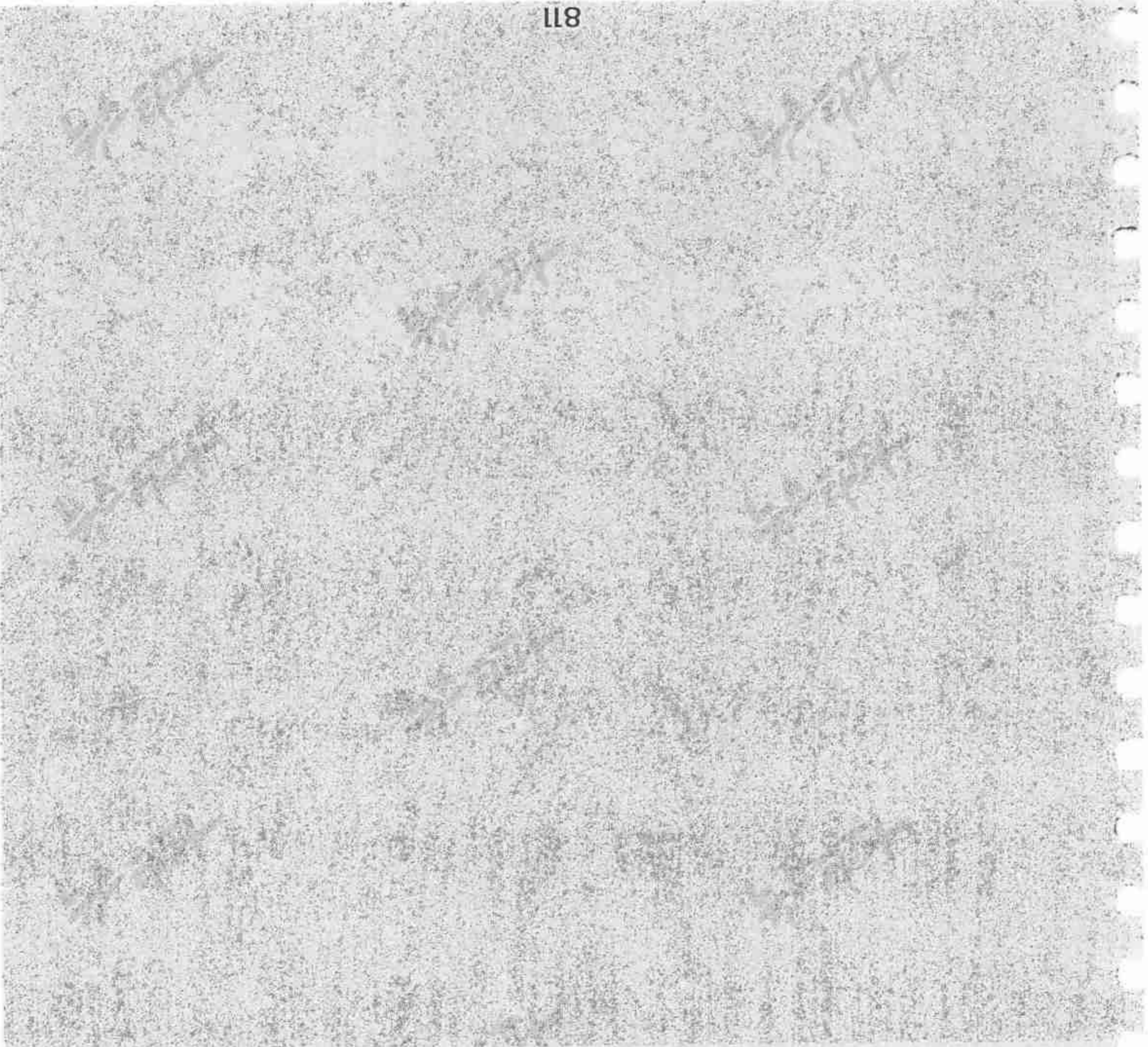
남 자 예, 알겠습니다.

정 영 학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 성 문 가지죠. 가지죠. 아니, 가시는 거 보고요.

정 영 학 예.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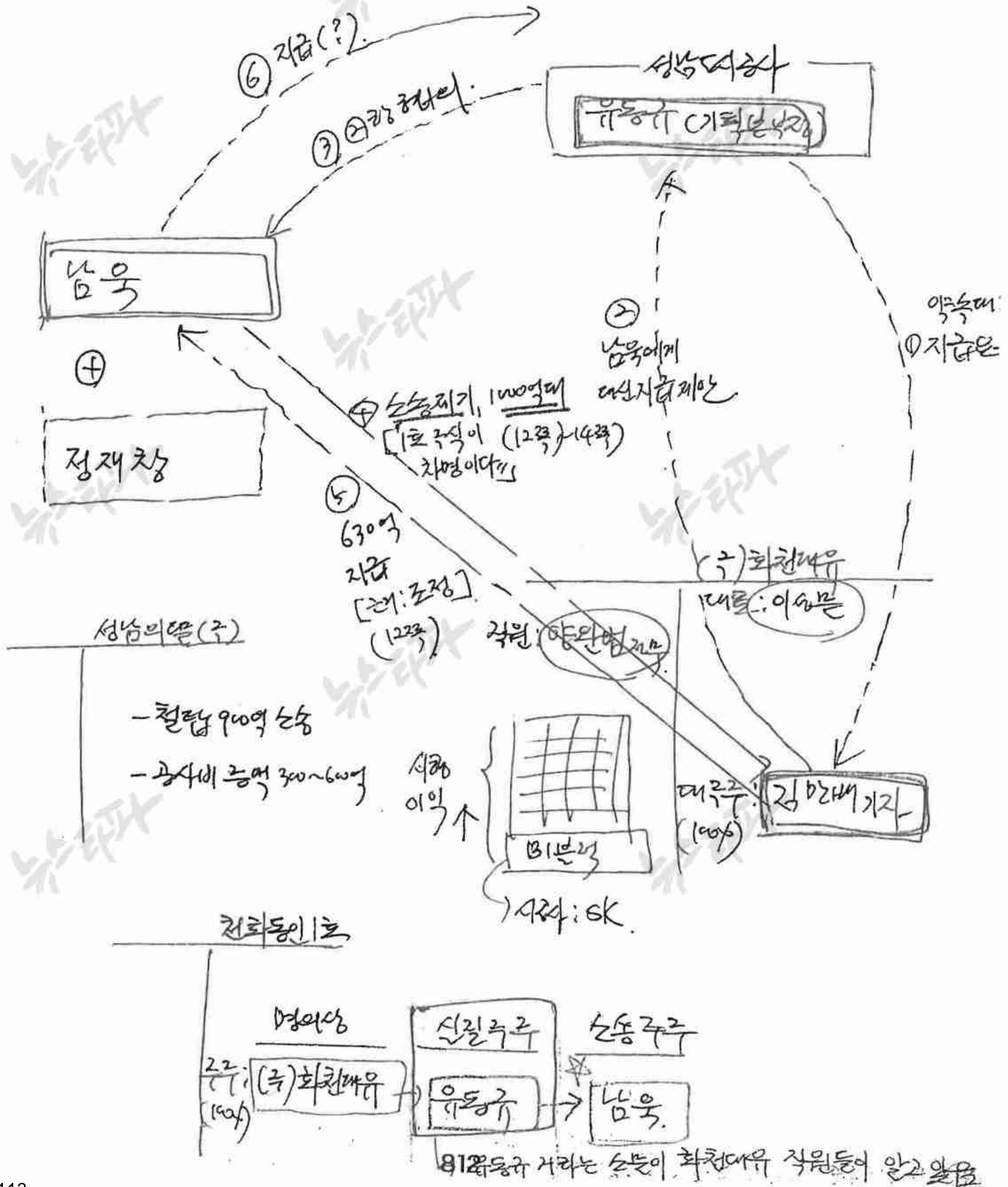




# 능률 (16차)

[ 김민태 vs 정영환 ]

2021. 2. 4C  
서원인 김민태 vs 정영환



[김민석 씨 주요 내용]

< 최문길의 장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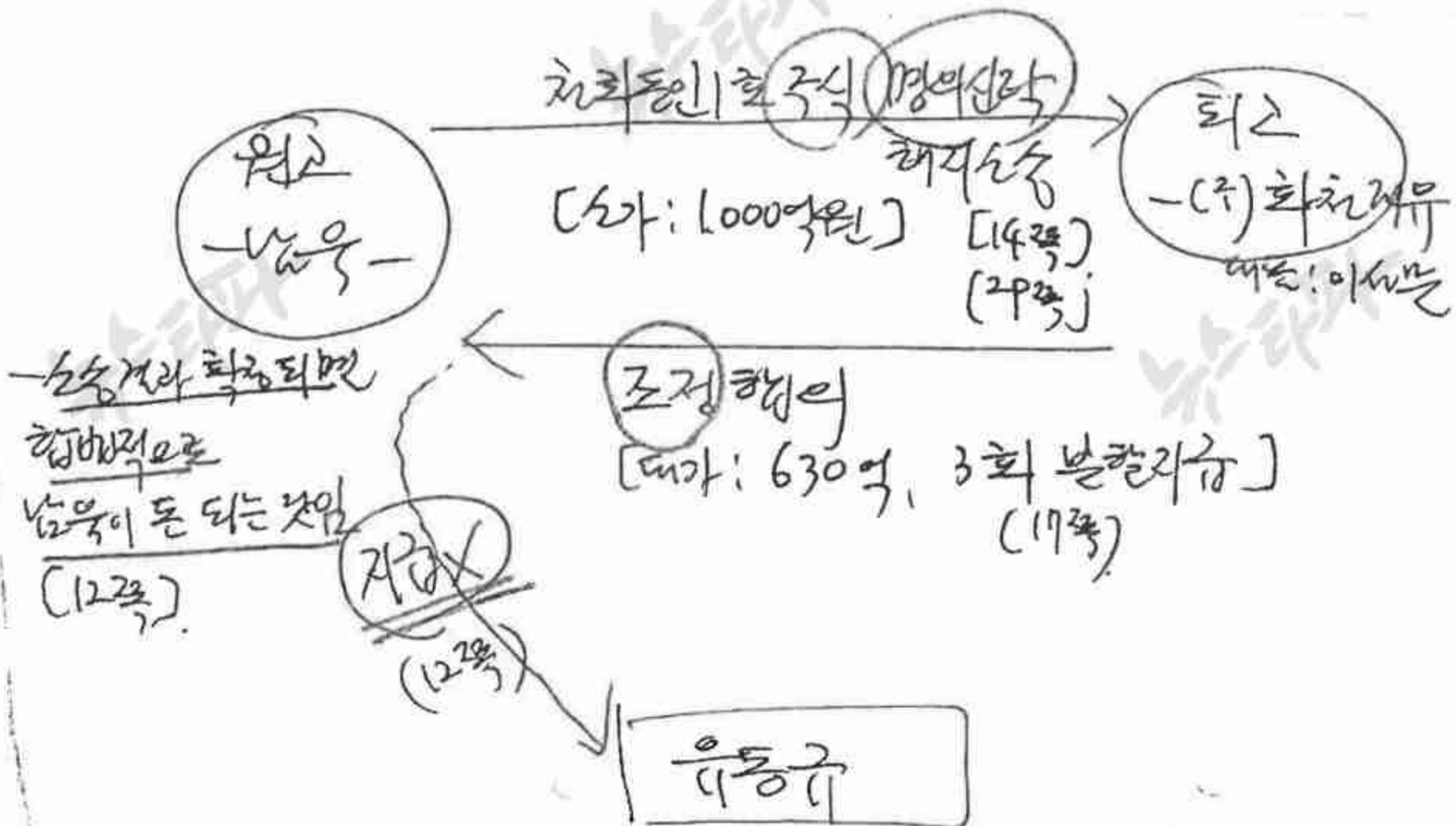
~ 영항이가 장이 많고, 비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해서 (분양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김민석 씨) 하는게 영항이가 하는 것인데다 (22쪽) 문제없다 (25쪽)

< 정재창 관련 >

- 정재창이는 여기서 어떻게 주냐. 나가 가다가서 주래? 아니면 어떻게? 30억

크 죽 미뤄 ~ (32쪽), 연생하뒤 (52쪽), 철도노동 900억 - 7배당감도사 등연시 미뤄 (102쪽)

< 천화등인 1호 주식 채무경 관련 신용 매상 (영의신라) >



사기죄 공보!

- 녹음일시 : 2021. 2. 4. (목) 오후 6:30~8:00
- 녹음장소 : 판교 운중동 "함관령" (1층,2층)
- 대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정영학 아 예, 형님.

김만배 이리 와.

정영학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배 저거 해서,

정영학 네네.

김만배 전골 하나에 냉면 하나씩 하자.

정영학 네, 좋습니다. 예.

(음식 주문)

김만배 의장님 만났어.

정영학 저요?

김만배 아니, 내가.

정영학 아!

김만배 뭐야, 이게?

정영학 상품권이에요, 형님.

김 만 배 아유 아유. 아유, 또 가져왔어? 고마워.

정 영 학 예..

→ 최흥길 의장 [전, 영주시의회]  
[2022.1 ~ 2024.6.30]

김 만 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자기 절대 나쁘게 생각 안하  
더라고. 그래서, 이해해주시라고. 영학이가 겁이 많고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영학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만 영학이가 그래서 이만큼 노동을 할 겁니다. 응? 응? 알았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대. 그 뭐 그 걸릴까봐 그러는가. 응?

종 업 원 여기 드리면 되는 겁니까?

김 만 배 예. 여기 나눠줘요.

종 업 원 하하하.

김 만 배 올라오셔.

정 영 학 올라오세요.

김 만 배 올라오세요. 또 있잖아, 여기. 홀서비스.

정 영 학 여기 자주 오시는가보네요.

김 만 배 자주 와, 여기. 두 개씩 나눠줘요.

종 업 원 아니. 하하.

정영학 SK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김만배 아니 나는 모르고, 560 왔다 이러길래, 그럼 그리로 해라. 왜냐면 뒤 산 데로 해야지. 향후 변수가.. 그지?

정영학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는 (...)

김만배 그래서 그.. 나는 뭐 SK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 왔다고 그러길래.

정영학 그러면 효성하고도 한 1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50만원 차이면.

김만배 그래. <sup>→ 정재초</sup>  
나중에 재창이는 여기서 어떻게 주냐. 니가 가져가서 줄래? 아니면 어떻게? 30억.

정영학 재창이가 원래 3월달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뭐. 3월달에 일단 어떻게 형님, 줄까요?

김만배 좀 미뤄~

정영학 예. 형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김만배 응, 응. 좀 미뤄.

정영학 네.

김만배 응? 세무조사나 이런 것 앞두고 좀 미루자 이래. 합법적으로. 왜냐면 세무조사가 가장 중요하잖아. 회계적인 거.

정영학 아니 이번에도 금액이 많으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다.

김만배 응응. 그렇게 하고.

공사비를 현안이 너무 올려놨어. 그래서 좀. 뭐 말이 총 공사비 1,500억에 50억 정도 되는데, 더 올라갔어. 그래서 완범이보고 치라고 그랬어. 야,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냐. 공사 연장되면 어차피 관리공사로 하면 또 들어갈 텐데. 나 그런 것 못준다. 쳐라, 니가.

정영학 네..

김만배 병채한테도 비밀리에. 넘어가는 척했어도 저쪽에 적어놔. 우리가 설계 만약에 잘못하면.. 지금 보니까 설계가 아닌 상태에서 공사를 주고, 설계 없는 거를 애네들이 계속 뜯어먹은 거야.

정영학 물량이 없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좀 그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김만배 응. 그래가지고 이 공사비에 대한 단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없는 거야. 신 차장이..

정영학 (어. 박프로. 나 회의중. 업무상 회의. 네네. 네네네. 네. 아..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도 일단 고민 좀 해보십시오. 한달?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난 주식 잘 못해. 그래요. 하하. 알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죄송합니다.

김만배 응. 그래서 신 차장이 입찰할 때 여기 틈을 너무 본 것 같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얼마든지 나중에 올릴 수 있다하니 상태를 보고.

정영학 네.

김만배 정 지금 1,500억까지 해도 관리공사로 가면 또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제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양완범한테 그랬어. 개네들 의도가 관리공사로 같거다.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

성문이는 사실 이런 걸 모르지. 얘기해도 몰라. 할 수 없어. 전공 아니면. 전공자가 아닌 걸 뭐.

정영학 전공자가 아닌데요.

김만배 그래. 음음. 그래서 내가 일부러 현장에 가서 휴일날도 (...) 그러는데, 신 차장이 있길래 신 차장하고 얘기하니깐, 양완범이 뭐 칭찬을 할래나.. 양완범 칭찬 안해. 능력 없다고 봐. 그랬더니 양완범이한테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

정영학 하하하.

김만배 그래서 주군한테 회장님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을 어떻게 (...) 야 새끼야, 왜 니 문제를 나한테 물어봐. 니가 사표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회장님. 땀짓 해가지고 이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정영학 잘 됐네요.

김만배 이 새끼야 니가 무협지 쓰면 새끼야 나보고 (...) 응? 니 얘기 니가 해야지. 니가 사표를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잘못하고 있어? 응? 오늘은 공사비 저기를 어떻게.. 응?

정영학 아, 그 양 전무가요?

김만배 내가 그랬지. 새끼야, 피엠으로 (...)

정영학 진작 열심히 좀 하지.

김만배 응. 그러니까 사표 쓰겠대.

그건 니가 알아서 해. 사표 쓰든 말든. 왜 나한테 물어봐 임마. 니 얘기 니가 쓰는 거지. 응? 지금에 와서 이 새끼야 니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있



어. 응? 아니면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 응? (...)?

정영학 네. (...)으로 할까요?

김만배 응.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자식아 니가 그만두든 내가 무슨 상관있어, 임마.

정영학 (...)

김만배 무슨 상관있어, 내가 그랬어. 의미가 없잖아, 내가 그랬어.

정영학 진작 좀.. 보니까 내갈려 둔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앞에서 하니까.

김만배 내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 야 이새끼야, 너 이성문이가..

정영학 내갈려 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김만배 내가 그래서 그랬어. 이성문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니네끼리 해봐라 해서 너 안 줬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영학 그건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이 그럼 그 좀 줘야죠.

김만배 그럼.

정영학 그거를 내갈려 두면 아무리..

김만배 응. 그래서 내가 막 소리했어. 양완범이한테.

정영학 잘 하셨습니다. 그러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김만배 이 새끼야 니 잘못이지. 내가 그랬어.

정영학 그럼요.

김만배 아무리 대표이사가 이 새끼야 너한테 뭐라고 그런다고 (...)한다고.

정영학 본인이.. 예, 맞습니다.

김만배 니가 피엠이니? 이성문이가 피엠이니? 내가 그랬어.

정영학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김만배 누가 피엠이야? 내가 그랬어.  
그리고 이 새끼야 사표 쓸라면 써. 반성할라면 죄송합니다 반성문 가지고  
오든 뭐하든 니가 알아야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임마.  
무협지 쓰니, 이 새끼야? 너 무협지 많이 읽었지? 내가 그랬어.

정영학 잘 하셨습니다.

김만배 내가 막 소리 했지.

정영학 아니 형님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좀 보니까 좀 이렇게 고집도 있고, 앞에서 이 대표 하는 거  
를 그거는 좀 성숙된 저기면 그냥 뭐 하는데, 이게 또 그쪽 분들이 엔지  
니어 쪽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김만배 호락호락하지 않아.

정영학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김만배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지랄했어, 막. 너 이 새끼야, 니가..

정영학

왜 내갈려 두고..

이동원님 계속

김만배

내갈려 두고 이 새끼야 이제 와서 이 씨팔놈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군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사표 써, 이 새끼야. 아니면 니가 명예회복 할라면 죽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오든가 해와, 이 새끼야.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어제 들어오더니,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 (...) 그랬어.

정영학

그게 필요합니다.

김만배

음. 공사비만 죽나게 올라가는데 공사비 감독할 놈도 없어. 응? 현엔 좋은 일 시키겠다야.

정영학

네네.

김만배

고마워요.

종업원

감사합니다.

정영학

직원들하고 대표하고 공을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공을 다투는 일 없고. 어차피 정해져있고. 본인도 그건 미리 정해놓으신 거고. 이번 문제 때문에.

열심히 안한 거에 대해서는 좀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김만배

내가 뭐라고 그랬지. 나갈라면 나가, 임마. 뭐가 없어서 못했니? 이왕 못한 건데.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김 만 배      내가 그랬어. 야 이새끼야, 이왕 못한 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입주자들 가사용 승인이나 받으면 되는데. 아무나 하는 건데, 그건. 나갈라면 나가고, 명예회복 하겠습니까 할거면 해, 임마.

정 영 학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김 만 배      공사비 하늘로 올라가는 거 막고, 이 새끼야. 공사비가 이게 뭐냐? 내가 그랬어.

정 영 학      바보 된 느낌이죠.

김 만 배      야. 내가 그랬어. 이 새끼야 공사비가 이게 뭐야. 응? 공기가. 이새끼야. 서서히 늘어지게 가다가 갑자기 준공 앞두고 막 그쪽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누가 끌려가냐? 내가 그랬어. 니가 등신이냐? 내가 그랬어. 너 뭐하는 놈이야? 내가 그랬어.  
성문이한테 이런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할거야. 할 수 없는 거지.  
유 상무 모르는 놈 데리고 가봤자 그 말만 하고.  
그런데 성문이 역할도 있어. 음?

정 영 학      되게 정성껏 합니다. 그래서,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진짜 이번에 겪어보시면 정성껏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요령껏 하는 사람하고..

김 만 배      남욕이하고 재창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핑계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행정심판 가서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응? 설사. 응? B1도 그렇고 (...)이고.

그래서 행정심판 왜 졌냐고 그러면, 과거에 도시계획국에서 작성해놓은 문서가 유출이 돼서 졌다. 그래서 배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응? 재창이한테도 이렇게 해놔.

재창

정 영 학 네네. 연락은 안 옵니다. 아니, 아시다시피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 행정소송 가면 어떻게 할래? 응?

정 영 학 예, 예.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 만 배 응응. 그런 차원으로 영학아, 공사비는싼 데로 가자.

비싼데

정 영 학 좋습니다.

김 만 배 응.  
유동규는 오늘 남욱이 만난대.

정 영 학 아..

김 만 배 남욱이한테 그거 하는 것 물어본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면 땡규지 뭐, 우리는. 응? 법률적인 리스크는 남욱  
이가 져야지.  
그 이유가 남욱이는 받을 수도 있는거다 이거지.

정 영 학 아 예. 전..

김 만 배 그런데 남욱이가 유동규를 주지 않을 것이고.  
남욱이는 유동규는 투자로 해달라는데, 투자로 해줬다가는 죽는대.

정 영 학 예..

김만배

잠깐.

(전화통화) 어, 동규야. 음음. 하기로 했어? 음. 음.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하기 싫은 놈이 왜 그랬어. 음. 뭘 넘겨, 내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지, 무슨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아, 내가 옥이한테 통해서 받으면 된다고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형이 그.. 아, 저번에도 그랬잖아. 한달 전에. 아니. 무슨 말을 해? 내가 그랬잖아. 음음. 음음. 어떻게? 얘기해봐. 그러면 나한테 일체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얘기하면 안돼. 못받아도 그만, 잘 받아도 그만. 법률적으로도. 그래, 그래. 그러면 개가 나한테 소송을 넣으라고 그래. 아, 개가 전화 하면 받을게 내가. 전화 오면 그렇게 한다니까. 절차를. 그것 뭐 그냥 그냥 쉽게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알았어. 음~ 음~

법률적으로 되면 그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그냥 하청업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유동규

남욱

남욱

정영학

네.

김만배

지금까지 쓴 비용을 제하고 본인이 600억만 가져간대. 음?  
그래서 내가 그랬어. '700억 줄게. 700억 주는 데서, 니네들이 모르는 돈이 나갔어' 무슨 말인지 알지?

유동규

정영학

네.

김만배

그리고 또 나가게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영수 처리도 못하고 세금 처리도 못하면 응? 우리 한 400억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600억만 가져가겠다.  
'아니 형이 700억 줄게. 700억 주는데, 거기서 남욱이 거를 공식적으로 빼. 60억. 응? 그리고 (...) 5억 준 거에 대해서 내가 회사에서 빌려간 것까지 다블로 (...) 10억으로 쳐서, 그래서 70억 공제하고 630억을 남욱이 소송을 넣으라고 그래. 그러면 소송에서 조정하는 걸로'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소송이 좀 오래 걸립니까?

김만배 아니, 걸릴 게 어디 있어. 조정하면 되지. 조정하면 돼. 응?

정영학 네.

김만배 남옥이가 1,000억 소송을 걸면 한 600 얼마로 조정하면 돼.

정영학 네네.

김만배 그러면 동규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남옥이가 주겠니? 합법적으로 본인 것 됐는데.

→ \*16차 10.29주  
\* 2021-4-22차  
유대론 수법 (7쪽)  
- 남옥 해가 되는 것임

정영학 소송해서 찾아가면 그게 남옥이 돈이죠.

김만배 응.

정영학 남옥이가 어떻게 할지는 뭐 그 둘만의 관계야 뭐 모르는 거고요.

김만배 응, 그렇지. 넌 빠져있어. 법률적으로. 응? 넌 나중에도 해야 돼.

정영학 저야 뭐..

김만배 너는 세무적인 거랑 금액적인 거 대신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방법은 맞다. 응?

정영학 네. 세금, 지난번에 세금적인 것 설명을 드렸고.

김만배 응. 그렇게 해. 그거 이상 없다.

그거 뭐 어때. 응? 공무원에게 돈 거래는 너는 모르는 걸로 하라고.

내가 볼 때 유동규는 저거 죽어.

정영학 아니 저야 뭐 아는 것도 없고, 소송해서 찾아가서 뭐..

김만배 아니 저러다간, 유동규 저러다가 죽어.  
법률적인 것 (본인이 리스크 (...))  
지금 안줄 거야. 응? 남욱이 투자로 주든.

정영학 예, 예.

김만배 만약에 남욱이가 물어보면 '나한테 묻지 마세요'

정영학 아니 저하고.. 하도 저 욕을 많이 해서..

김만배 '그런 얘기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정영학 예. 저는 아예 모르는 이야기구요.

김만배 응. 모르는 얘기고, 세무적인 것만 물어보면..

정영학 예. 세금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응. 거기서나..

정영학 예. 남 변호사도 제가 세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유 무섭더라고요. 핑계를 대는 거라. 아유 되게..

김만배 리스크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정영학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많이 나온다고 책임지라 해서, 나도 그만큼 내는데 어떻게 하나. 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뭐뭐 회사에서 돈을 그냥 송금합니다. 본인한테. 송금해놓고 비용처리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거도 없이.



김 만 배 그런데 천화동인1이 유동규 거라는 소문이 회사 내에 났어. 왜냐면,

정 영 학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 만 배 양 전무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옥이가 떠들고 다닌다매. 소송가는 일도. 은행에 지난번에,  
그래서 유동규가 옥이한테 물어봤대. 왜 그런 얘기를 할라고 그러냐 하니  
까, 만배형이 아무래도 독식하면 혼자 먹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정 영 학 실제 몰랐던 일이고, 또 옥이한테 연락이 와도 제가 모르는 거고.

김 만 배 이거는 (...)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응. 전화하라고 그래야겠다. 내가 전화하면 안 되고.  
(전화통화) 어. 여보세요? 음. 그러면 개보고 전화하라고 그래. 언제든  
지. 방법에 대해서. 응. 음. 그래 알았어. 인제 앞으로는 일체 얘기 안할  
거다 이. 응. 그래 그래. 응. 응응.

돈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는..

천화동인1이 차명이다 이렇게 해서 소명을 해야 돼, 남옥이가.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그러면 천화동인1에 대한 차명인 이유를 남옥이가 법률적으로 소명을 해  
야 돼. 그래야지..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너는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돼.

정 영 학 아 예, 저는 뭐 모르죠. 예.

김 만 배 음음. 그래야지 만이 너는 이 일에 관여가 안돼.

정 영 학 예. 전 몰랐고, 남욱이가 소송해도 제가 모르는 거고. 실제 몰랐고.

김 만 배 음음.

정 영 학 그리고, 실제 몰랐구요.

김 만 배 그래. 형은 근데 조정을 할거야. 법률적으로.

정 영 학 저는 뭐 거기에 전혀 아는 사항도 없고.

김 만 배 맞았다, 이거.

정 영 학 네. 표정이 좋으신데요?

김 만 배 너무 시달렸어. 왜냐면, 내가 그랬어. 동규한테.  
'돈 안 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져가라. 그런데 니가 말하는 다시마 회사를 차려서 니가 상식적으로 회사를 1,000억에 어떻게 인수하니' 응?

정 영 학 아.. 유원축당스

김 만 배 '당장 회사를 인수하니' 아무 상관없대.  
'그건 아니야. 형이 아니면 배임으로 죽어'  
뭐 투자로 해달래. '야, 투자도 뭐 사업거리가 있고 뭐 있어야지 그게 투자할 게 있고 그게 투자가 되지. 그러면 안돼' 음?  
차라리 그러면 남욱이 통해서 일부를 줌 해달래.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거절했다가 나중에 그랬어.  
'그러면 이 돈 전체를 옥이가 가져가서 옥이가 니한테 투자해주는 걸로 해라. 내가 옥이라면 안하겠지만, 한번 물어봐'  
옥이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거지.

↓  
남욱

↓  
유동규

정영학 네..

김만배 형은 좋아.  
내가 무슨 수로 돈을 맨날 해줘.

정영학 돈 욕심이 있네요. 남욱이가.

김만배 남욱이가 안 줄 거야. 내가 볼 때.

정영학 남욱이 소송한다고 합니다. 남욱이가.

김만배 응. 문서를 받아놓을까 말까? 남욱이하고 동규한테.

정영학 형님이.. 저는 잘..

김만배 남욱이가 안 줘도 나한테 이의제기 안한다는 거. 응?  
그리고 남욱이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나한테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정영학 저는 법적인 건 잘 모릅니다. 형님이 한번..

김만배 아니 그래도 해놔야지. 그지?

정영학 네..

김만배 아니, 말이라도. 이제 남욱이랑 셋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나는 영학아,

정영학 네.

김만배 형은 이게 속편해.

내가 그랬어. '3회에 걸쳐서 주겠다. 왜냐면 세무조사도 안 나왔고 이래서 어차피 돈도 없다, 회사에. 너랑 나랑 금전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는데 돈 때문에 처리 못한 거잖아. 나하고 이런 얘기 상의한 것도 없고'

정영학 아 예. 저 진짜 형님..

김만배 그러면.. 무지 싸웠어. 이것 가지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으로 이랬어. '형이 남욱이가 소송해서 형이 조정하는 걸로 해서 넘겨줄 테니까 그리로 가서 받아라. 찍자' 그래서 그날 물어본 거야. (...) 내가. 진짜 해달라고 그랬지. 몇 년이야 그게? 투자금이 (...) 몇 년이야?

정영학 일단 세법상으로는, 법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세법상으로는 대손처리를 할 거구요. 대손처리도 이게 대손인지 아닌지는 실질에 따라서 가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음음. 객관적으로 말하면 내 문제다, 남욱이 문제다 이런 걸 떠나서 세금적으로 볼 때 (...)

정영학 (...)

김만배 결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정영학 예. 남욱이가 지꺼다 해서 지가 갖고 가서 알아서 하는거야 뭐 형님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고.

김만배 그래서 먼저 전화도 안할라고 그래. 이 새끼 녹음하니까. 남욱이. 내가 제안했다 이런다고.

정영학 예..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김만배 음. 그리고 한번 이런 게 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정영학 둘이 가깝게 지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형님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김만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정영학 둘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거고.

김만배 응. 그럼.

정영학 준공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김만배 음. 이거야. 영학아. 무슨 얘기했냐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준공하는 건 의미가 없어. 우리가 (...)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 6천 가구가 들어와서 입주할 한다  
고. 그지? 제일건설 (...) 빼고.  
그렇다면 우선 2천 세대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  
할라면 가사용승인을 해줘야 돼.

정영학 예. 임시사용승인.

김만배 응. 이것을 뭐냐면 전기, 수도, 통신, 도로 이거는 넣어야 돼.  
이거는 해줄거야. 해주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자기네 공기 내에 못한 부  
분이 서류상 했다 그러고 뒤로 미뤄서 관리공사도 (...) 나온거야. 응?

정영학 네.

김만배 그러니까 여기서 도장을 찍어주면 안돼. (...)  
그리고 우리도 이걸 받아서는 안돼.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그런데 알아야 될 문제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아니 이게 송전탑 진입로, KT

그리고 저 버스차고지 용역, 이 세 가지가 있어. 이건 현대엔지니어링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책임이야.

이게 그런데 애네들은 여기에 집중 부각시켜서 자기네가 늦어지는 거를 현혹시키고 있어. 왜냐면 생태수로. 생태수로 밑에 방사성.

그런데 핑계를 이렇게 댈거야. 설계가 늦어서 (...)

그런데 우리는 고가 수주를 (...) 응?

정영학 예..

김만배 설계관리를 누가 했는지 나는 (...)

그런데 설계가 없는 데다 (...)를 만드니까 공사비를 엄청나게 업 시키면서 (...)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김만배 응.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지금 공사비가 한 300억 정도 됐거든. 응?

정영학 저희가 CM 쪽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만배 응, 그래. 자. 그러니까.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조금 (...) 그리고 관리공사 하는 부분도,

정영학 없애고.

김만배 없애고서 업 이제 그건 안돼. 여기서 추가비용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응?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진양희는 신 차장과 (...) 진양희는 이 말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양완범이가 하든 병채가 해야 돼. 양완범이를 시켜야지. 병채하고.

자, 이제 터널. 터널을 4월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형이 볼 때는 늦어지는 이유는 이걸 시하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걸 푼다 안해준다 하는 이유가 현안이 무슨 작업을 한 것 같애.

(..) 터널에 (..) 할라고. 왜냐면 기일 내에 준공 못하면 현안이 지체보상금액이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양완범이나 진양익이 했어야 되는데, 병채는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정영학 전공이 아니니까.

김만배 전공이 아니니까 의심은 가는데 그걸 되치기할 게 못돼.

정영학 양 전무 혼내신 건 잘하신 겁니다. 양 전무가 해야 또 진양익이 움직이니까.

김만배 음음. 그래서 성문이는 몰라. 그리고 의욕만 앞서.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 양 전무가 (..) 만들어준 게 성문이야. 그래서 내가 성문이보고 야 이 새끼야, 개네들 잘한다 (..) 해야지, 왜 니가 이 새끼야 (..) 니가 왜 가블라고 그래? 니가 가지도 못하는 새끼가. 가다가 재네들이 가게 해야지.

정영학 원래 저 같아도 이게 본인이 잘하는 파트가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데 말 안 들으면 제가 막 (..)할 것 같애요. 일반적으로.

김만배 응?

정영학 제가 너 가만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다음에 제가 밤 새워서 하든지.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그 습성인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 너무 컸어요.

김만배 그리고 성문이가 몰라. 유 상무가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자른다.'

왜냐면 나는 돈을 얼마를 벌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 명확하게 준공을 못할 거라고 작년 7월서부터 현장에서 얘기 나오면 정신을 차려야지. 포스코하고 현대건설하고 준공 못한다고. 이 실력으로. 응? 이 실력으로 준공 못한다고. 응? 화천대유는 듣보잡이고. 현엔이 가지고 논다고. 응?

정영학 네..

김만배 공사비는 쪽 올라가고 (...)  
그러면 양 전무도 꼬드기든 차단을 좀 미리 시켜야지. 응? 이렇게 빠져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시가 인수인계 받아가는 것도 (...) 보니까.

정영학 네.

김만배 진양의 실력으로 안되고 성문이 실력으로도 안돼.  
형이 봤는데 과장들도 친한 놈이 하나도 없어. 음?

정영학 예예.

김만배 과장들이 결재해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응?

정영학 그나마 좀 늦었지만 형님이 그래도 신경을 쓰셔서..

김만배 음. 그래서 성문이기도 그렇고. 성문이는 내가 지적하는 걸 이해를 못해. 얘기해보면 알잖아. 응?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얘기하고 나면 (...) 받아서 이해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성문이를 욕하는 건 아니야. 업무적으로. 그런데 양완범이는 정신 차릴거야.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그게 그렇더라구요. 그냥 앞에서 이 대표 챙길 거는 그냥 이 대표 승인 뭐뭐 그냥 넘겨버리는 것 같더라구요. 언젠가 포기하고 도와달라 하면 하는 거고.



김 만 배      그런데 선을 넘었어.  
                 위에 올라가서 커피 한잔 할까?

정 영 학      예, 형님 좋습니다. 커피 맛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구. 아이구.  
                 계산이요.  
                 네, 감사합니다.

종 업 원      감사합니다.

정 영 학      네.  
                 이제 현대건설에 대한 미련은 좀 버린 것 같긴 합니다.

김 만 배      양 전무? 아니, 저기 이성문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음. 300억 돈이 영학아, 우리 돈 저거 얼마 잘려나갈지 몰라.  
                 그러니까 싸게 해서 니가 많이 벌어야. 어차피 그러면 너도 가져가고.

정 영 학      아니 저는 뭐..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렇게 해. 왜냐면 어차피 한 거 벌어야지 뭘. 응?

정 영 학      형님, 공통비 많이 쓰십시오. 허허.

김 만 배      그래서.. 커피숍 나쁘지 않지?

정 영 학      예.

(2층 커피숍으로 옮겨서)

정영학 아 예. 함관령 2층 커피숍.

(잠시후)

정영학 자리를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김만배 응?

정영학 어디가 편하시겠습니까?

김만배 아니, 아무 데나. 여기 앉아. 여기.

정영학 예.  
현대건설하고 한 300억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만배 응. 니가 (...) 결정해. SK로 할지, 효성. 나는 두 개는 상관없어.

정영학 형님이 결정하신 게 맞아 보입니다.

김만배 SK?

정영학 예.

김만배 나는 상관없는데.

정영학 저도 상관없는데요.

김만배 왜냐면 우리 돈을 벌어야 돼.

정영학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 만 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거..

정 영 학      저도 형님 생각이 그냥 (...)

김 만 배      SK.. 현엔 애들이 볼 때. 그래서 공사비를 우리 원래는 다 (...)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공사비에 관련해서 (...) 했다는 거를 알면서도 (...).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맨살을 보였어. 너무 친하고 너무 속살을 (...)  
 그래서 (...) 되는 게 유 상무 밑에 누구를 하나 넣어놔야 되는데. 응?  
 응? 유 상무를 (...)

정 영 학      (...) 저도 모르는 분야이고, 또..

김 만 배      응. 나도 그래.

정 영 학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갑자기 늘어나니까.

김 만 배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공사로 가면 형이 볼 때는 2,3백억은 뽑아갈 것 같  
 애. 형이 볼 때. 그러면 그때 (...) B1 날라가는 거 (...) B1 너 많이 가져  
 가.

정 영 학      아니 저는..

김 만 배      아니 아니, 형이 줄게. 형을 믿어.

정 영 학      네네. 300억 차이면 사실 브랜드는..

김 만 배      SK (...)  
 성문이라도 뭐 하나 꺾히면 (...) 그게 좋은 거는,

정 영 학      현대에 대한 아쉬움이 끝끝내 있길래, 그거는 분양가가 이겁니다. 분양가  
 가 확정이 됐으면 오히려 분양을 잘하는 거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아침에 그냥 이성문 대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옵션 포함이나. 옵션도 평당 20만원 최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 30만원까지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SK 옵션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거의 그냥 노마진으로 들어온 것 같다. 일이 없  
어서.

김 만 배 효성에 일이 없지.

정 영 학 네네. 그러면 쓸 수도 있다. 계약서만 잘 쓰고.

김 만 배 그걸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한대.

정 영 학 검토할 능력은 솔직히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제가 잘 아는 분야  
다, 모른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수지계산 할 때 보면,

김 만 배 종길이도..

정 영 학 예. 종길이 시키면 됩니다. 인허가도 종길이 시키면 됩니다.

김 만 배 응. 그리고 최윤길 의장이 왔기 때문에. 최윤길 의장이 너에 대해서 (...) 아무런 문제 없어. 그리고 어떤 비밀도 나가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을 믿어. 응?

정 영 학 예, 예. 요즘 판교가 시세가 5천정도 됩니다. 동판교. 서판교는 4천6백 초  
반. 건설비만 낮추면 (...)하니까.  
인제부터는 현대에서 분양하던데, 지금 (...) 아닙니다.  
지금 브레이크 없어도 됩니다. 지금.

김 만 배 그래. 그리고 SK 하든 (...)

정 영 학 제일 비쌉니다.

김 만 배 (...)

정 영 학 예, 예. (...)

김 만 배 그런 소리 안 들어?

정 영 학 아니요.

김 만 배 그런데 그것도 비밀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

정 영 학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거.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정 영 학 일단은.

김 만 배 그것도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너한테도 비밀로 하고 싶어.

정 영 학 돈 많이 먹었습니까?

김 만 배 80억 돼. 65억 (...)

정 영 학 형님이 재테크를 잘 하시더라구요.

김 만 배 형이 한 게 아니야.

정 영 학 아니 뭐..

김 만 배 (...) 다른 이야기. (...) 우리 도와줬던 얘기인데.

정 영 학 그걸 떠나서,

관고운중등  
"산문 아필바움" 이영동  
- 친화등번호 소유.

2021-2-4

김 만 배      응. 무슨 말인지 알지? 형도 (...)

정 영 학      아니, (...) 65억, 80억 되는 것들이 15억 많이 올려놨습니다.

김 만 배      응. 그러니까 영학아. 그게 안전해. 수원 SK(...) 응?  
603호에 여기는 조재연 대법관님 따님이 살아. 대법원 도와줄 수 있어.  
응? 너한테는 얘기해.

정 영 학      예. 그다음에,

김 만 배      여기 따님이 살아.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주식은 형이 전문가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현대차에 미래가 있다고. 엘지전자하고.

정 영 학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옛날에 한번 형님이 벤츠 회장이 와가지고 현대차 엔진은 주머니에 넣고 가고 싶다 했다 했습니다. 그때 전기차.. 아니, 현대차.  
아유. 그 이후에 어마하게 오르더라고요.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저는 주식을 안하는 이유가, 회계법인은 필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감리 받아야 되고. 안에 것도. 참석을 할 걸 그랬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이제 영학아, 이런 게 있잖아. 너랑 나랑 아무리 신뢰했어도 서로

뭐가 깊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의 본심을 보고 이런 과정이 (...) 간단한데,

정영학 예. 저는 뭐..

김만배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우리 정 회계사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인정하고, 또 파트너로서 (...) 생각해.

정영학 감사합니다. (...)

김만배 나는 선은 후가 되는데 가다가 잘못된 부분, 의도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후려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는 (...)

정영학 네네. 저도 뭐 특별히 오해도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김만배 형을 믿고.

정영학 네네. 그냥 안전 때문에 그건 뭐 잘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형님 말씀하신 것 항상 그 때문에, 뭐 형님한테 하나도 제가 뭐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김만배 그리고 나는, 어떤 다른 (...) 안해.

정영학 예. 이번에 (...)

김만배 그럼. 응. 요번에도 (...) 왜냐면 나중에 친하게 얘기하면 애가 줄 놈이 아니야. (...) 응? 나는 당시 주식을 (...) 너는 나한테 (...)

정영학 능력 없다고.. 하하.

김만배 동규는 (...)

동규는 형이 이제 5천만원 (...) 남욱이한테 1,000억을 주는 거야.

그런데 3천만원으로 줄이면 (...) 만들어놓고 그래서 투자라고 얘기 (...)

정영학 네..

김만배 지금까지는 숨길 수 있는데 더 이상 못 숨겨. (...) 덮어줄 수 있어. 덮어줄 수 있어?

정영학 일단 뭐 요즘 워낙 거기서도 (...)

김만배 안돼.

정영학 요즘 하도 금융정보원에서도 (...) 이재명 도지사 그..

김만배 경영금지.

정영학 경영금지로 해서.

김만배 그런데 (...) 아니야. 차라리 제삼자를 주고 증여로 받아가든지. 증여는 세금 내면 (...) 응?

'동규야, 형이 배당을 받아서 그 현찰을 줄게. 수표로. 그것도 안되면 투자는 아니고. 투자는 형이 죽어. 그럼 니가 좋아하는 남욱이한테 혹시라도 달라고 그러면, 몽땅 남욱이보고 소송을 넣으라고 그래. 그럼 형이 700억에 합의를 해서 비용 제하고 주면 되잖아'

100% 받아갈 거라고 다. 남욱이 돈 주면.

100% 남욱이가 안 주면 못 가져가, 유동규가. 응? 그지?

↓ 김만배

정영학 B1 인허가는 (...)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만배 아니 아니야. 나는 대장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B1은 인허가 (...)

정영학 2월 규정 지나면. 아니면 3월까지로. 그때는 사업 목표가 2월말인데 (...)

\* 16차 10.12.29 쪽

\* 휴대전화 녹음 842 2021-2-22 (17쪽)



김 만 배 그러면 그거 내가 챙겨볼게.

정 영 학 네. 한번 챙겨보십시오.

김 만 배 (...) 불러서 너하고 나하고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

정 영 학 테라스라는 형태가 판교가 처음입니다.  
대우는 했습니다만, 대우는 뒤에 공간을 띄워놓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상태이고요. 그 복설계하면 우리는 뒤에 공간을 띄워놓은 거가 처음이라. 아마 그 부분은 저도 (...)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김 만 배 그리고 앞에 (...) 작업하는 땅이 있어.

정 영 학 저한테는 이야기 안할 겁니다.

김 만 배 오해해서.

정 영 학 오해 안합니다.

김 만 배 아니 그게 대장동 땅이어서.

정 영 학 그런데 (...) 이게 좀 그..

김 만 배 아니 아니 (...) 우리처럼 그렇게 (...) 형은 왜냐면 이해됐고. 여기는 의도한대로 (...)것 같애. 응? (...) 응? 그래서..

정 영 학 그것도 형님 뒤에서 그냥 한 거예요. (...) 해서.

김 만 배 그래서 (...)

정 영 학 가능합니다. 하하.

→ 권재현 대표이사  
(비밀해당취청)

김만배: 그건 따블이.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 겠습니다. 음?

정영학: (...) 현재.

김만배: 그거. 그게 그거야.

정영학: 그쪽에 (...)

김만배: 응. 그 부분이 그분은 (...) → 권재현 대표이사 (비밀해당취청)

정영학: 그런데 형님이.. 아니 뭐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소송이 되면.

김만배: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이한성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정영학: 아니요.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선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할 때.

김만배: 그럼. 왜냐면 (...) 약속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 (...) 이러더라고. 그걸 제가 (...) 하는 것 (...)

정영학: 네..

김만배: 그게,

정영학: 말이 안되지요.

김만배: (...)

정영학 그러면 안되죠.

김만배 응.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랑 곽상도랑 (...) 깊은 대화를 했다.

정영학 (...)

김만배 (...) 곽상도한테.

정영학 어디서..

김만배 몰라 나도. 양주에서 얘기했겠지. 개가. (...)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 (...)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서 나는 일단 그 일이 마무리 될 줄 알고 저거를 그러더라고. 형은 (...) 이게 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2,000억으로 생각해서 너 1,000억, 내 1,000억 회계를 니가 해서 했잖아.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까지 (...) 이렇게 해서 그거는 (...) 이게 그렇게 처리하면 비용이 600억 정도 (...)할 거 아냐. 그러면 끝. 그리고 니가 남욱이 저거한대매. 응? 니가 내준대매 새끼야. 그러면 (...) 니가 낸대매? 그러면 니꺼에서 빼. 지가 만약에 (...) 빼. 그리고 여기는 현찰 5억 준 거 (...) 내가 5억을 받으려면 10억 든다. (...) 그런데 보자고 그러고 다른 얘기는 안해.

4,500억 60%

정영학 아니, 일단 뭐 저도.. 그래도 (...)

→ 2021. 1. 31, 5억씩 (유동유)

김만배 (...)

정영학 아니 그거 뭐.. 그게 뭐가 문제가..

김 만 배 (...) 응?

정 영 학 대단하십니다. 하하.

김 만 배 근데..

정 영 학 형님이 (...)

김 만 배 대법관이니까. (...) 8년을. 그런데 (...) 어차피 같은 대법관이고. 그런데 내가 빌라를 하나 (...) 금강이 지금 준공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 정 영 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하면 (...) 할 것 같은데요.

김 만 배 응.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하면은 (...) 끝나.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되게 (...)하는 사이야.  
그래서 형이.. 일단 오해는 하지마.

정 영 학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괜히 여쭙봤네요.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얘기는 해줘야지.

정 영 학 SK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냥 뭐 제가 한것도 아니고, SK 브랜드가 나쁘냐. 나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하다보면 그것도 좀 실무적으로 하다보면요, SK도 우리도 출발을 했지만, 하다보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 만 배 아유, 그래.

정영학      거 봐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거라 하면 안될 것 같고요.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 같이 올라갑니다.

김만배      그럼.

정영학      이 기업문화가 원래 효성이.. 효성, 대우, 현대 같은 데가 더 악랄합니  
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SK는 하여튼 그런 문화가 그냥 뭐 조금 (...) 보니까 악랄하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들이 무슨 마인드도 좋고.  
형님도 조금 무리가 되면 좀 이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그거 갖고 인제..

김만배      그래. 그럼.

정영학      사항이 틀리다는 등 뭐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김만배      그리고,

정영학      실무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

김만배      B1에 대해서 자신 없어. 왜냐면 대장동 (...) 무슨 수로 빌리느냐.  
행정심판도 100% 이긴다고 그러더니 이 새끼들 덜렁 졌잖아. 응?

정영학      네..

김만배      소송도 여차하면 잘못하면 감당 못하는 거야.

정영학      예..

김 만 배 무슨 소송 장답을 해야지. 행정소송. 응? 그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러니까 B1에서 돈을 벌어서 너도 가져가고, 돈을 좀 가져가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져가면 돼.

정 영 학 제가 뭐 특별히..

김 만 배 (...)

정 영 학 50억 빌려드린 거에 대한 이자 주시면 됩니다.

김 만 배 많이 줄래. 이자도 주고.

정 영 학 아니 괜찮습니다. 이자는..

김 만 배 아니 아니, 더 줄게. 그리고 재창이 결 여기서 해결하고. 우리 회사에서. 응? (...) 영학이가 처리하기에 법률적 리스크가 있어서..

정 영 학 이미 60억 나갔습니다. 나가고 30억만 남았습니다.

김 만 배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영학이가 주는 건데, 여기서 주는 걸로 해. 응? 응?

정 영 학 재창이 (...)합니다.

김 만 배 아니면 너 줄 테니까 재창이 줘. (...)

정 영 학 당분간 그럼 신규 무슨 나오는 사업은 계속 (...)

김 만 배 해야지.

정영학 예. (..)

김만배 (..)

정영학 네네.

김만배 오리역은. 오리역은 너랑 나랑 (..)  
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고.

정영학 (..)

김만배 응? 많이 가져가.  
너, 지분은 오직 너하고 나하고 하니까.

정영학 저는 (..) 저는 그냥 뭐 돈 그렇게 뭐..

김만배 (..)

정영학 스트레스 안 받으셨습니까?

김만배 그래야 내 것까지 뺀다고. (..) 빼는 것.

정영학 네..

김만배 왜냐면 모든 (..) 응? 그 따님이 살아.

정영학 저는 모르는 걸로..

김만배 따님이. 그런데 금강에서 빌라 짓는 기간 분양 받아서..

정영학 금강도 이번에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아놓으면 엄청 좋아할 겁니다.

김 만 배      그럼. 좋아하지.

정 영 학      예. 그런데 이게 좀 제일 걱정이 이제, 테라스하고 본 건물이 분리돼있다.  
아니다. 테라스가 맞다. 그거가..

김 만 배      그때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시에서 문제가 돼서..

정 영 학      이거 원래 옛날부터 문제 있던 겁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성남시만 안해줍니다.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김 만 배      응. 그런데 하여튼간 내가 내일 종길이한테 물어볼게.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런데 거기도 (..) 형이 대장동 (..)

정 영 학      아 그러면 (..)

김 만 배      대장동은 이 타고 다니는 게..

정 영 학      네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 만 배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있더라고. 돈 달라면 (..) 300 몇억이 올라가.  
관리공사로 가면 200억이면..

정 영 학      그거를 감독을 그것도 몇 번을 (..)

김 만 배      (..) 300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애 착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이..

정영학 사람이 인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 해줘야..

김만배 그런데 완범이는 하여튼..

정영학 이번에 잘 혼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김만배 일요일날, 일요일날 (...) 그동안 혼냈어. 몇 번. (...) 그런데 성문이는 뭐 그냥 (...) 하고 얘기했는데, (...) 완범이는 (...) 술 먹고 나중에. 술 먹으면 안돼.

정영학 예예예.

김만배 소장이 누가 보냈든 (...) 감을 잡아야지. (...) 얘기하는 걸 점점 얘기하면 직선을 그어서 아.. 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안돼.

정영학 안되죠. 예.

김만배 안돼. 완범이는 내가 물어보면 내 뜻을 조치하고 싶어 얘기해. 선 부분은 알아. 응? 그거 (...)

정영학 예..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 정리하는 거..

김만배 응. 그래서 내가 계속 힘들다 했는데, 형이 뭐 비밀리에 맨날 (...)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일요일날, 공교롭게 신 차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 뽕통 났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네.

김만배 그래서 신 차장을 만났는데 칭찬을 막 하길래,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

(...) 응? 응? 그래서 (...)

정영학 네..

김만배 그러니까 (...) 떠들어 대더라고. (...) 형이 보니까,

정영학 현대엔지니어링 현직 공무과에 남아있으면 잘하는 거죠.  
그런 사람 공무과장 출신을 한명 줘..

김만배 데려다가 써야 돼. 그런데 (...) 새끼야. 응?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런데 진양희가 양완범이 (...)테니까 내일 어느정도 진양희하고 양완범이  
하겠다 했지. (...) 떠들고 있고. 씨팔 씹어댔으니까. 이새끼 (...)  
아주 대놓고 씹어댔지. 그랬더니 그다음날 거기를 갔더니 양완범이가 (...)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대. 얘기하라고. 유 상무도 들어오시오. (...)  
회장님이 (...)

정영학 (...)

김만배 그러게. 그래서 그랬어. 야, 너 이새끼야, 사표 낼려면 내고. 응? 회장님,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다시 한번 (...) 하겠습니다. (...)  
그런데 1안, 2안 지금 아무 (...) 않고. B1 늦어졌는데 이 새끼야 뭘 (...)  
니가 다시 (...) 응? 그리고 (...) 실패한 놈이. 피엠으로서.  
실패했지? 그러니까, 실패했대. 이 새끼야 실패한 새끼가 무슨 새끼야 사  
표를 내고.. 니가 내, 새끼야.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말고.  
무협지 쓰니? 니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사표를 내든 이 새끼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든 니가 결정해서 와. 응?

정영학 멋지게 하셨네요.

김 만 배 옥도 (...) 했어. 너 이 새끼야, 니 문제는 니가 써, 나한테. 사표를 가져 오든, 열심히 하겠습니까 반성문을 가져오든.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대. 열심히 해. 비용도 절약하고. 응? 너, 이게 뭐야? (...)

정 영 학 이성문 대표가 뭐를 하든 잘못되면 니 책임이야,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이성문 대표 나가서 하니까는 (...) 있더라고요 그게.  
이성문 대표가 어떻게 (...) 모른다 치고, 여기에서 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니가 피엠이니까 잘못되면 니 책임이야.. 해놓으셔야 됩니다.

김 만 배 그렇게 해놨어.

정 영 학 B1도 그래요. 방향을 좀 빨리 잡지.  
1년동안 내갈려 뒤편 거잖아요. 양 전무한테..

김 만 배 아무 놈한테 실력이 없어서 안 물어본다고 그랬어. 그리고,

정 영 학 (...)

김 만 배 응? 그리고 나서부터 양 전무가 회장님, 이거는 도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랬는데,

정 영 학 다 씹었죠?

김 만 배 응?

정 영 학 다 씹었죠?

김 만 배 성문이가 다 씹었지. 처음에.

정 영 학 최소 1년, 2년..

김 만 배 2년 걸려. 그거 늘면서 대장동도 논거야. 1년을 논거야. 응? 계집질이나

하고, 술 먹고, 카드나 쓰고.  
형이 카드도 승인해주면 한도가 끝없이 가길래 뭐라고 그랬지.  
그리고 돈 바꿔놓은 돈이 다.. 형은 쓴 것도 없어. (...)

정영학 이게 계속기업도 아니고 한 프로젝트에 딱 한판인데, 그걸 사실 (...) 이렇게까지 딴 방향으로 엇갈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김만배 성문이 한 것도 봐. 양 전무한테는 두 번째였어. 진양 의하고 양 전무한테 했어. 그랬어. 야 새끼야, 니네들 씨팔놈들아 시청에 가서 너 아는 새끼 있으면 손들어 봐.

시청에서 오히려 물어봤대. (...) 용인시청에 물어봤대. 건축과에서. 그랬더니 용인시청에서 누군지 모른대. 응? 누군지 모른대. 누구 알아? 성남시청에서도 니네들 주사를 통해서 화천대유 (...) 화천대유를 모르는데 누구 만나서 그동안 골프 치러 다니고 돈 가져갔는데? 누구 만났냐? 그랬어. 응?

용인시청에도 모른대. 성남시청에서 전화해봤대. 애네들 인허가 준공을 할 수 있는 애들인가.

그랬더니 이 새끼야, 다른사람 얘기를 하더래. 니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응?

그랬더니 진양 의가 회장님, 사실은 (...) 내가 차장으로 시청에 왔다갔다 했고, 완범이는 (...)

열심히 해. 어차피 니네 (...) 늦었잖아, 내가 이랬어.

(...) 그런데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입주민들 민원 안 생기게 자세한 (...) 하고. 응?

야 새끼야, 공원에 (...) 뚜껑을 덮는데 용적율이 3천평 잘려나갔어. 건폐율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 공원과에서 건축과에다 심의 올리면 건축과에서 뭐래냐. 니네들 듣보잡이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3천평이 잘려나갔는데 건폐율 계산도 못하는 새끼들이 도시계획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정영학 (...)

김만배 (...) 야 개네들이 뭐라고 하겠어? 공무원들이. 니네들이 (...)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러니? 견해도 계산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실력으로 하겠냐고  
그래. 응?

처음에 이 새끼야 (...) 공무원들이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시공사에다 얘기했는데, 시공사도 우리한테 얘기해도 (...)  
너무 아니니까 이새끼야 광병채가 회장이 (...) 광병채가 얘기했대. 시에서  
그러더라. 응?

정영학 예.. 문제가 있네요.

김만배 내가 그랬어. 이새끼야, 니네들이 이새끼야 (...) 건축과에서 이새끼야 공  
문을 검토했는데도 그게 안되니까 반려한다고 했지만, 야 이새끼야 (...)  
씨팔놈들아 (...) 내가 하니?

정영학 실무자들 지식이 있는 거구요, 형님은 일 처리할 지혜가 있는 거구요.  
전부다 아니다 하더라도 (...) 잘 하셔야 됩니다.

김만배 아니, 내가 해줘야 돼? 야 이새끼야, 그리고 너 (...) 내가 이제 와서 너  
한테 얘기하니까 대표이사도 놀래고 전무도 놀래고. 늦게 알았습니다. 죄  
송합니다. 그게 말이 되니? 응?  
내가 그러면 대표이사 애들이 (...) 죽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맨날 그  
렇게 하더니. 문제야.  
너 전력의 20%도 안돼. 영학이.

정영학 전혀 아닙니다. 잘 하는 사람들이 협조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완범이는 B1 (...) 한번 그렇게 해준 거지. 내가 쌍욕했어. 이 씨팔놈아,  
무협지 쓰니? 니 일은 니가 해. 사표를 쓰든 이 새끼야, 회장님 명예회복  
할 기회를 주십시오. 니가 알아서 해, 이 새끼야. 나한테 묻지 마.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하도 이성문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성문 대표한테 물어보면 안 시킨답니다.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그 이유는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김 만 배 뭐?

정 영 학 (...) 대표로서 자존심이 있죠. 뭐 하다가 인제 내가 (...)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김 만 배 그래. 공사비 같은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한번 보라고 그래. (...)

정 영 학 아니 (...) 공사비는 계속 원가계산.. 원가계산이 아니라, 제가 (...)할 때 토목공사비를 정말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제가 (...) 토목공사비 다 갖다 놓고 저희 예산 다 집어넣고. (...) 낮습니다. (...)해야죠.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예. (...)

김 만 배 야. 1,500 요 밑에 말 같은 소리를 해. 응? 1,200억 정도는 아주 세계 친 (...)

정 영 학 벌포지구가 평당 30만원 그렇습니다. 맥스 해봐야 900억입니다. 정말 그냥 잘했다고 했을 때. (...) 요즘에는 그것도 10만평, 12만평짜리가 30만원이고, 저희가 30만평짜리는 일단 동천 28만원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600억, 700억이거든요.

김 만 배 그런데 설계가 너무 늦었어. 설계 만약에 누가 했는데 (...) 설계가 1,600만원이야. (...)

정 영 학 (...)

김 만 배 근데 왜 돈을 줘? 돈을 주지 말고, 돈으로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내가 뭐라고 해야지. (...) 아니라, 나중에.

정 영 학 네네. 그리고 600억. 600억 짜리는 생각을 전혀..

김 만 배 (...) 보라 이제. 한 200억 되니까.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래서 양완범이한테, 너..

정 영 학 (...) 이 사업도 나중에 또 관공사업이다 보면 현대엔지니어링 이거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수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 만 배 나중에 이제, 나중에 봐. 그리고 완범이 그러더라고. (...) 음?  
내가,

정 영 학 효성이 (...)지구 22만원 정도 하니까 660억이죠. (...)

김 만 배 그리고 신 차장은 200억 (...)

정 영 학 (...) 관리 쪽이 서울 쪽 (...) 시흥 쪽은 걸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잘 안하게 (...) 그쪽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시행은 (...)

김 만 배 (...)

정 영 학 그 정도면 형님이라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대로 흘러왔지 않습니까.

김 만 배 아니, 죽어버릴라고 그랬지. 그 새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1년은 성문이 B1 가지고 맨날 정일천이 찾아다니고. 응? 안 되는 거는 할라고 그러고. 시에서 B1이 그쪽 거냐고 물어볼 정도야. 응? 나한테.  
내가 얼마나 챙피했는지. (...) 응?  
우리가 성남시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응?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어떤 놈이 친해도 우리만큼 친하겠냐. 그지?

정 영 학 형님이 제일 친하시죠. 저는.. 형님이 관리를 잘 하시니까.

김 만 배 그런데 (...) 내가 얘기했지? 내가 이거 성남시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태광에서 돈을 뿌렸거든.  
그런데 회장님이 이런 거는 회장님이 안하고 밑에 대표나 상무나 전무가 해야 되는데 (...)

정 영 학 하하. 예..

김 만 배 무슨 말이야. 응? 아니, 우리 그런 거라도 좀 많이 양보해달라고. 회장님이.  
B1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났어. 그런데 돈은 되게 많이 가져갔어. 공무원하고 공친다고. 응? 현찰.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무슨 말인지 알지? 뭉텅이로 가져갔어. 1억씩 가져갈 때도 있어. 응?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현찰 가져가면 1억 순식간에 가져가고 그랬어. 응?

정 영 학 예.. 일이 잘 됐으면 원래는 그냥 뭐 넘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안 됐으니까.



김 만 배      아니 그래서 내가 골프치는데.

정 영 학      상관없는 거죠.

김 만 배      칠 놈이 없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그지? 누구하고 치냐.  
공사 관계자랑 보면 지네들이 이것 해야지, 애들 접대한 거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영학아, 형이 (...)

정 영 학      네.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김 만 배      내가 쉬는 날 (...) 안해.

정 영 학      아니, 잘하신 것 같아요.

김 만 배      그래서 개네들이 민망하니까. 내가 니네들 욕 보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정 영 학      형님, 민망해야 돼요.

김 만 배      응. 왜냐면 니네들을 욕 보일라는 게 아니라, 형이 인제 알아야 되기 때문  
에.

정 영 학      사실 최고대우이지 않습니까.

김 만 배      그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다 사표 쓰고 나가도 내가 약속한 거 줄게.  
나가. 응? 니네들 없어도 내가 이거 다 마무리 지어. 그렇잖아? 응? 뭘 갖  
다가 일하니? 응? 저 뭐야, 포스코 소장은 골프도 안 쳐요. (...)  
현대건설 소장도 (...)

정영학 (...)

김만배 형이 사귀었지.

정영학 아..

김만배 응? 고기도 보내주고 홍삼도 보내주면서 사귀어놨지.

정영학 아.. 대단하십니다.

김만배 그러면 문자로만 한번 해주고, 응?  
그런데 한놈은 골프장에 돈도 안 써. 그래서 사귀어놨지, 응?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러면 문자로..

정영학 거기서 현장소장들이 제일 잘 아니까. 맨날 회의를 해보거나.

김만배 지금. 그러면 내가 그랬지. 포스코 소장이 잘하면 (...) 포스코 밑에 임마  
직원들 중에 형이 (...)

정영학 그렇죠. 알아보지도 못하고.

김만배 응. 아니 또 있지. 수성고등학교 출신일 수도 있고.

정영학 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끄꿍 앓겠네요.

김만배 그런데 개네들은 현장 회의할 때 나온 얘기를 내가 하니까, 응?  
개네들이 한 얘기를 내가 해.  
그런데 이거는 (...) 업무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포스코 소장이나 현대 소장이 가서 얘기한 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겠지. 직원들한테. 개네들이 (...)  
그런데 결국은 (...) 해주고 해줬잖아.

정영학 아..

김만배 (...) 단가 후려치기 해서 (...) 쫓아갑니다. 응? 하청업체 입찰을 6개월씩 기다리는 데가 어딴어. 마지막에 (...) 만들어서 공사비 (...)텐데.

정영학 예..

김만배 그리고 준공 과정 내에 서류상 (...) 관리공사로 (...) 깎지 말고, 응?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야.

정영학 사실 뭐 저기가 너무 과하게 받으면 현대엔지니어링도 감사원 많이 불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가겠지만, 감사원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뭐뭐 짝 갖다놓고 니네가 제일 비싸. 뭐 (...)할 것 같은데요.

김만배 그리고 형 친구가 감사위원회 (...) 은석이.

정영학 아, 그래요?

김만배 (...)

정영학 전혀..

김만배 그러더라고. (...) 우리 고문으로 앉히려 한다.

정영학 (...) 공동사업인데 (...)

김만배 감사위원회 (...)  
형이 잘 마무리할게.

정영학 네.

김만배 B1에서는 (...) 그래야지 너도 거기서 부족한 것 빼고.

정영학 B1은 인허가만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그리고 <sup>유동규</sup> 동규 문제는 (...)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어차피 줘야 되는데 뭐.

그리고 진실은 실행하는 사람 만이 아는 거야. 아무리 (...) 그래도 새 사람이 있고 (...) 있는데, (...)

정영학 다들 고맙다고 해야죠 뭐.

김만배 그럼.

정영학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야 잘하는 거니까요.

김만배 그럼. 이게 금강을 하면 그때 잘 해서 해야 되는 거고. (...)

정영학 예..

김만배 응?

정영학 예. 지금도 현대차 갖고 계십니까?

김만배 그럼. 형은 엘지전자, 현대차, 엔씨소프트, 카카오 가지고 있지. 형은 작년에 67억, 요번에는 한 78억 정도 벌었어.

정영학 형님, 1년에 80억 버신 거네요.

김만배 너는 형이 주식 사라고 할 때 안 샀지?

정영학 회계사는 못삽니다. 저희가 주식을 살려면 저나 관계회사는 심리실에 연금 파는 게 있는 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백건이라 파악이 안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샀으면 됐습니다.

김만배 옥이하고 똑같으니까.

정영학 (...) 형님이 안하시고..

김만배 안해도 나는 회사 시키는 대로 했지. 법인은.

정영학 법인도 괜찮을까요?

김만배 괜찮아. 내가 다 회사..

정영학 아.. 형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하셨습니까? (...) 형님이 하신 거죠?

김만배 그래. (...)

정영학 형님이 아니시면 됐죠 뭐.

김만배 그럼. 그리고 내가 현대차 출입기자가 아니니까.

정영학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만배 응, 그렇지. 가지고 있는데.

정영학 현대차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만배 20배는 오를거야. 만약에 애플하고 손잡는 순간에.

- 정영학 거의 발표 직전 아닙니까?
- 김만배 그렇지.
- 정영학 형님, 삼성전자는?
- 김만배 삼성전자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 정영학 가긴 가더라고요.
- 김만배 그런데 그게 떨어지지 않아, 삼성전자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엘지전자나 현대차나 삼성전자에 액면분할 (...)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에서는 액면분할해서 (...) 그지? 그런데 엘지전자는..
- 정영학 예, 예. 편하겠습니까. (...) 앓고.
- 김만배 응. 엘지전자는 삼성전자의 액면 그냥 반 정도만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액면분할을 안 해주겠지. 반 정도. 엘지전자가 회장이 (...)
- 정영학 이번에 3월달에 받으면 돈은 4월말이 되더라고요. 세금을. 한달 사이에 주식이 좀 오르면 이번에 좀..
- 김만배 너 50억 줄까? 미리. 50억 돌려줘? 3월말에.
- 정영학 사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으면요, 세금 40억 내고, 중간에 20억 남겨뒀고, 재창이 30억 주면, 10억 남아요. 그래서 그거..
- 김만배 50억을 그러면 50억, 배당 받아서 돌려줄게. 그리고 이자도 주고.
- 정영학 예. 돈 생기시면..

→ 재채가능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그리고 재채이는 저기 연장해놔, 좀. 철탐소송 때문에.

정 영 학      한 10억정도 쥐도 팬찮을까요? 다 안주고 하면 또..

김 만 배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 가서 소송 들어가면 900억 받으니까. (...)

정 영 학      그냥 형님 돈 생기시면. 좀 여유 있을 때.

김 만 배      아니 아니 아니.

정 영 학      돈 많이 버셔서. 하하.

김 만 배      돌려줄게.

정 영 학      그거 해갖고,

→ 이한성 (천학동인1호, 대퓔야)

김 만 배      50억을 주라고 그렇게. 만약에 한성이보고 돈을 주라고 그렇게.  
지금 한 200억 있거든. 주라고 그렇게.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다는 아니어도 반이라도 주고, 이자도 줄게.

정 영 학      주시면 한, 요번에 조금밖에 안 남는다 하더라고요. 조금밖에 안 남는데. 세금 내면 10억 되는데요. (...)

김 만 배      현대차..

정 영 학      (...) 올렸습니다. 어제. (...)

김 만 배      (...)

정영학 (...) → 흥신근 회랑 [머니투데이]

김만배 형은 저기, 만약에 회장이 200억 빌려달라는데 CD로 찍어서 해준다고 그래서 그거는 해줄게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너는 몇개?

정영학 저는 뭐..

김만배 저거를 하자. 오리역을. 오리역을 해서 우리가 시를 상대로 (...)해서 저거를 (...) 풀어서 10층을, 15층을 풀어서 분양하면 (...)

정영학 네..

김만배 알았지?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래서 됐으면 (...) 응?

정영학 예.

김만배 동규가 남옥이가 그랬대. 만배형이 영학이 형님만 믿고 하고. 응?

정영학 제가 말은 잘 들으니깐요. 제가 형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뭐..

김만배 응. 그러면서 영학이 형이랑 한 편이라고 그랬대.  
그래서 나한테 동규가 그러는 거야. 형,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진짜 조심해야 될 놈이 영학인 거 알아? 그래서, (너) 아직 멀었다..

정영학 하하하.

↓  
응동규



김 만 배      개는 (...) 있는 애야.

정 영 학      예. 그다음에 한 회사에 91년부터 일했으니까 30년이고 이게. 그 어떤,  
(...) 못 벗어납니다. 조직생활 오래 했으면.

김 만 배      그럼.

정 영 학      (...) 못하죠. 예, 그냥..

김 만 배      가자.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 을 때까지.

정 영 학      네.

김 만 배      (...)

정 영 학      저야 뭐.. 여기까지 온 게 다 형님 덕분인거 알죠. 하하.  
감사합니다.

김 만 배      야, (...) 이런 얘기 하는 건 서로에 대한 얘기겠지만 (...) 눈에 보이는데  
저거 못하겠니?

형은 저거 오리역이든 하얏트든. 하얏트보다는 나는 오리역을 하고 싶어.

정 영 학      네,네. 연말까지 뭔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거가요, 이부장이 내년엔  
자리를 옮길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아, 그래?

정 영 학      뭔가 하실 거예요, 연말까지.

김 만 배      그러면 올 연말에 저기,  
정 영 학      하반기에는 뭔가 시작을..  
김 만 배      A12 배당금 나오면 그거를 하자고.  
정 영 학      네네. 거기다 좀 (...) 해놓고, 자리를 어디로 갈 건지를 좀 물어보고,  
김 만 배      왜 자리를 옮길려고 그러지?  
정 영 학      그 자리에 올해 1년을.. 이것 끝나는 거 보고 갈려고 좀 버텨던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분양은 이제 더 이상 안된대?  
정 영 학      올해 뭔가 좀.. 그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 다들..  
김 만 배      그런데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 하나은행이.  
정 영 학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본부장으로.  
                  본부장으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는 사실은 모른답니다.  
김 만 배      형이 소개해줄까?  
정 영 학      좀 어떻게 (...) 형님 편이죠. 형님 편. (...)  
김 만 배      그러니까 어때? 형이 좀 (...)할까?  
정 영 학      형님 저기네요.  
김 만 배      응?

정영학 전문이시네요.

김만배 전문이지. 응?

정영학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죠.

김만배 응?

정영학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죠.

김만배 아니, 이 부장 자존심 상하니까 몰래 해줘야지. 할라면.

*하나뿐인 이병식 님께*

정영학 그러니까 몰래 해줘야죠. 형님이 해주셔야죠. 몰래.

김만배 (..)

정영학 형님 사업을 위해서.

김만배 응, 그러니까. 이거 고마워~

정영학 네네, 형님. 명절 잘 보내십시오.

김만배 그래, 땡큐~

정영학 저, 월요일, 화요일날 어디 운동합니다. 아니, 시골 갑니다. 시골. 친구들 이랑.

김만배 아, 그래? 그거,

정영학 네, 형님.

김 만 배      그리고 SK로 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형은 B1 신경 안 쓸게.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SK로 하겠습니다, 형님.

김 만 배      응? 대장동 신경 쓰느라고 여력이 없어.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김 만 배      그래 그래.

정 영 학      네. 살펴 들어가십시오. 예. (끝)

수정완료

17. 18. 19.

## 표지

(녹취 17차, 18차, 19차 (수정))

+

요약도표

+

-17차 : 유동규가 남욱을 붙인 것이고.(17-7)

정영학은 용역보고서 도급받은 하청업자에 불과함

(즉, 김만배 지시에 따른 보고서 작성)(17-8)

-18차: 남욱은 천화동인1호 유동규 지분대가(24.5%) 상당액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소송 제기하고, 당사자 김만배는 소송에 따른 조정대가 428억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함 (18-8)

- 남욱, 김만배,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의 주범이다.(18-15)

- 정영학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쓰기 밖에 없다 (18-15)

-19차 : 남욱은 허위 소송 관계로 김만배에게 '명의신탁 각서' 라도 써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해 김만배는 "이새끼야, 형이 써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 해야지", 자꾸 그러면 안줘 이 새끼야 안주면 어쩔 거야. 니(남욱)가.....

## 표지

(휴대폰 통화녹음(이성문, 김만배), 그리고 정재창)

+

요약도표

### ◇휴대폰 통화녹음

- 2021.04.20.(이성문) 16:00

: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는, 경찰청 ⇒ 서울청 ⇒ 용산경찰서(이성문 대표 주소지 관할)

: 소명 대상자는, 이성문, 김만배, 이한성, 화천대유(주), 천화동인1호(주)

- 2021.04.20.(이성문) 17:40

: 천화동인1호 가지급금이 400억(장부상 430억 상당)인데, 이중 250억 상당은 소명이 될것으로 보고, 나머지 180억 내지 200억원 정도는 천화동인1호에서 김만배(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이체된 김만배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했을 것으로 추정됨(인출행위자는 이한성)(6쪽 참조)

- 2021.04.21.(이성문) 19:55

: 화천대유에서 이성문 대표가 모르는 돈이 70억 내지 80억 상당액(현금 20억, 수표 60억 상당액)이 있고,

김만배는 "수표를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하며, 박현덕 상무와 이성문에게 수표를 상당부분 쓴거 아니냐"라고 계속 강요 내지 추궁하고 있다고 함(13쪽)

김만배는 박현덕에게 "니가 자백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함.  
(16쪽)

김만배는 돈 사용처에 대해 “ 그 용처가 니(박현덕)가 수표를 바꿨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썼는지 이야기를 해라”하고 박현덕을 추궁했다고 함.(16쪽)

김만배는 “우리(이성문과 박현덕)보고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횡령이라고, 니가 횡령했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함(17쪽)

이성문은, “보상금으로 썼던 것도 거짓말이고, 개인으로 썼던 것도 거짓말인데.....”라고 함.(21쪽)

이성문은 화천대유(주)의 자금인출 방법에 대하여, “화천대유에서 이성문 개인 통장으로 가지급을 받았잖아요. 그걸 박현덕이가 내 통장을 다 갖고 있었죠. 나도 못해도. 내 통장의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그거는”라고 함(23쪽)

이성문은, 김만배는 이런 내용을 남욱과 상의하는지 모르겠고, 남 변호사가..중간에 누구.....100% 분란 생깁니다.라고 함.

- 2021.04.21.(이성문) 22:13

: 김만배는 사기꾼(남욱을 지칭하는 듯)을 처널 배짱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있다.(31쪽)

2021.04.21.(이성문) 11:21

: 화천대유에서 인출한 돈은 실제로 김만배가 대부분 사용했는데,

김만배는 출금내역도 모르고 박현덕과 이성문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상당한 이야기를 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고.....(33 내지 34쪽)

2021.04.21.(김만배) 19:32

: (국민권익위 신고 관련하여)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가 무슨 회사인지 등을 김만배는 물어봄.

남욱은 정재창을 계속 만나는 것 같고,(39쪽)

유동규 관련은 남욱과 김만배가 모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영학은 관계 없는 일임.(40쪽)

2021.04.21.(김만배) 20:33(12분47초)

: 김만배는 “수표를 갖다 준 사람.”이 소명해야 한다. 라고 함  
(50쪽)

김만배가 110억원을 다 쓰지는 않았고, “이상한데.... 나오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함(50쪽)

또한 수표 추적에 대해 이상한데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고 있음  
(51쪽)



2021.04.22.(김만배) 14:31

: 남욱과 정재창은 매일 만나고 있다고 함.(1쪽)

(남양주 양정지구 사업관련하여) 남욱은, “ 정영학, 유한기, 정재창 등 3인이 만나서 처음에 진행 한 이야기부터 ” 다시 또 이야기 했다고 함.

정재창의 (공갈,협박)에 대한 지출 관련하여 정재창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자 김만배는 “ 음음음”라고.....(3쪽)

그리고 정재창은 돈을 줘도 그렇게 만족하는게 없다고 하자 김만배는 “니(정영학) 탓이야”라고 헛소리를 지껄임.(5쪽)

남욱은 (유동규 관련된 소송) 망외의 소득이 있는데....저게 가면 결국은 남욱이 꺼가 되는 것이다.(7쪽)

김만배는 (회사에서) 수표 쓴거가 120억 내지 130억 정도 되는데.....(12쪽) 김만배 본인은 50억 내지 70억 정도 썼는데.....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라고 함.(12쪽)

2021.04.22.(이성문) 20:05, (4분1초)

: 김만배는 한달에 5천만원 정도 밖에 안썼다고 함.(2쪽)

2021.04.22.(이성문) 20:11, (20분54초)

: 수표 추적하면 누구도 책임질수 없는 사안이다.(5쪽)

김만배 본인은 한달에 5천만원밖에 안썼고, 나머지는 이성문과 박현덕 상무가 다 썼다고 함.(5쪽)

수표 추적할까봐 걱정입니다.(이성문)(12쪽)

이성문 본인은 수표 쓴 적 없다.(13쪽)

☆ 2021. 4. 22(이성문)(5분 1초) : 수표 갖고 간분이 이야기 해야함 (34쪽)

2021.04.23.(이성문) 10:49, (18분08초)

: 김만배는 “박현덕 상무에게 박현덕과 이성문이 돈 쓴거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하고 추궁 당했다고 함.(20쪽)

김만배는 이성문이 썼다고 경찰에서 한번 진술하면 대장동 사업 끝날때 까지 이성문을 묶어 죽일 것이다. 라고 함.(21쪽)

김만배는 가끔씩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22쪽)

이성문은, “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가 어떻게 썼다고...나를 뭐 횡령 의 주범인 것처럼 하면 본인이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함.(23쪽)

그리고 이성문은 실제로 돈 갖고 간 사실이 없다.(23쪽)

김만배 회장이 박현덕에게 돈을 바꿔 오라고 지시한 것임(24쪽)  
(그런 돈을 회장이 모르는 곳에 이성문이 쓸수 없음)

이성문이 돈 썼다고 하면, 김만배는 이성문이 돈 썼다고 모든 직원들에게 소문을 낼 것이다.(25, 29쪽)

이성문 본인은 형식상은 의사결정 라인에 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한

것 거의 없음(25쪽)

(누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이성문) 돈을 그렇게 수십억 횡령했다고 그러면 그거 옛날부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냐” 라고 하며 이성문 본인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함.(30쪽)

2021.04.27.(정재창) 13:24, (5분01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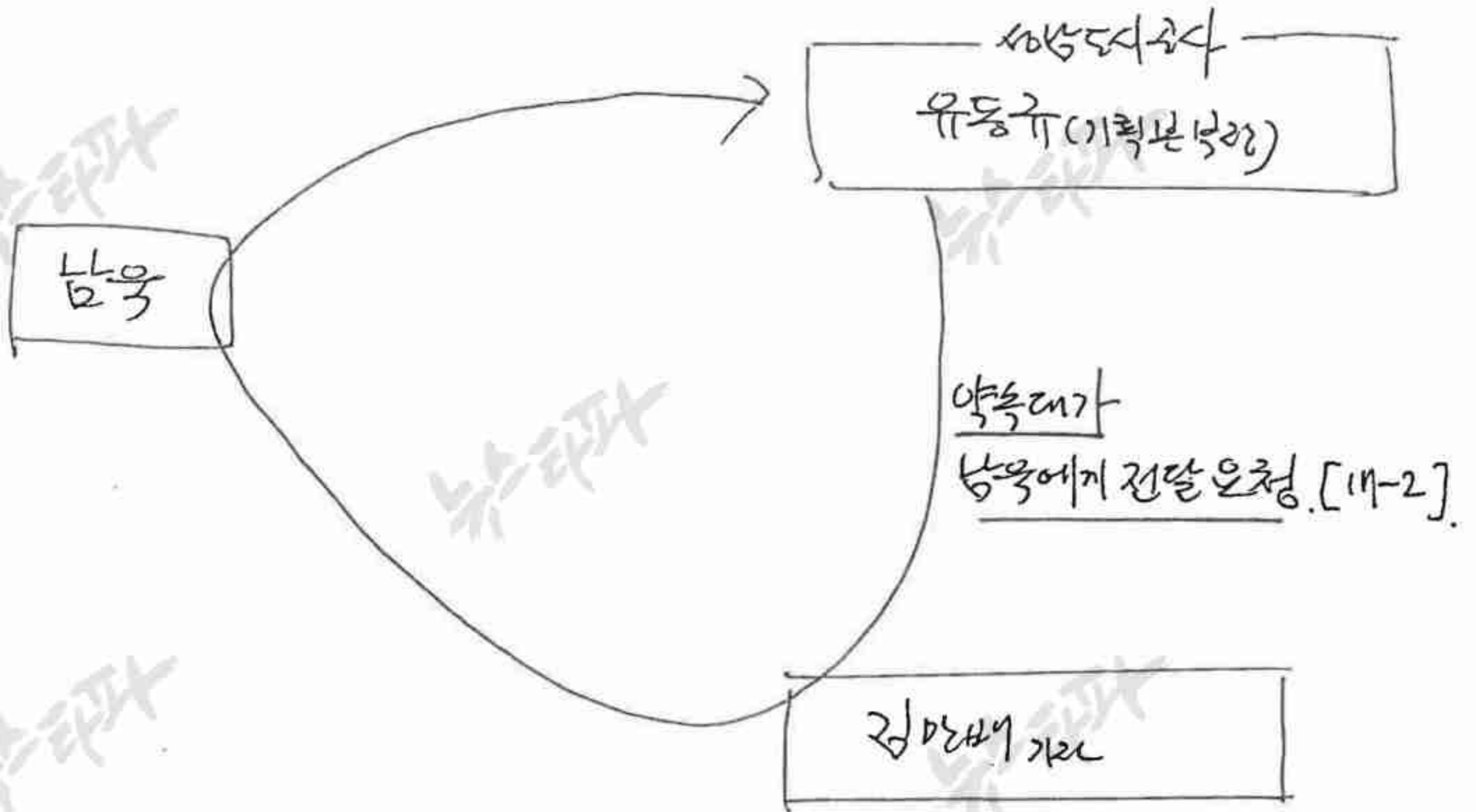
: 형(정영학)은 부자됐고, 김만배도 부자됐고.....  
    폴랑 돈 30억 때문에 그러지 마.....(1쪽)

김만배는 그새끼는 내가 죽여 버릴거야.(2쪽)

정재창이, “형이 유동규 갖다 줬다. 공무원 돈 줬다. 형이 주범이다”라고 허위사실 및 공갈 등 헛소리 한 통화에 대해, 정영학은, “뭘 개소리”라고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통화함..그럼에도 정재창은 무슨 자술서 받았느니 등 공갈,협박 내용 등 계속 추가하고 있음(5, 6쪽)

17차 (인사수료)

2024. 2. 18 (목)



- 약속레가 전달 사형에 대하여 남욱은 각서를 쓰지 않은 것임 [11-5]
- 사형장이 남욱을 배라고 했음에도 유동규가 남욱을 붙인 것임 (동행자로 끌어듦) <11-7>
- 세어하는 유희본리 단급받은 하청업체에 보내는 <11-8>

- 녹음일시 : 2021. 2. 18.(목)
- 녹음장소 : 서판교
- 대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5:30~20:20)

김 만 배 나는 남욱이 핸드폰 수신 거부해 놓은 줄 몰랐는데, 세 번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동규가 전화 와서 남욱이 전화 좀 받아달라고, 아니 내가 수신 거부한 줄 몰랐어. 그런데 그, 보자고. 그래서 '볼 게 뭐 있어? 너랑' (...)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  
 그런데 나의 얘기는 돈은 (...)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본인이 (...)

정 영 학 예..

김 만 배 (...) 빼기 때문에.  
 그런데 700억에서 본인이 (...) 응? 여기서 60억을 빼고, 5억을 빌렸는데 일단 10억을 빼야 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니까 10억을 해서 70억을 빼고 630억을 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제3자 이름으로 배당, 증여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 해라.  
그랬더니 동규는 투자를 해달래. 하면 다시마하고 (...) 그 주식을 30배를 사달라고.

정 영 학 예..

↓  
 유동규

김 만 배 (...)

정영학 저는..

김만배 다시마 만드는 회사하고 사료를 어떻게 30배 비싸게 사냐. 그거는 (..) 응?

) 정영학 예. 그것도 다시마 하는 것도 세금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주식을 파는 사람이.

김만배 그렇지. 응, 응. 그래서 그건 안된다. 두 번째. (..) 그게 형체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업장에 (..) 700억을 돌려놓고 (..)하면 된다. 안되면 나중에 이게 세법상으로 걸린다. 응? 그러니까 자기가 (..) 요구해.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금이. 그래서 돈을 미리 남욱이한테 줘서 자기가 남욱이한테 받으면 된다.(..) 응? 그러면 주범에서 탈출해내는 돈이야. 그지? 너랑 나랑은 좋은데.

정영학 아니 뭐 그, 형님..

김만배 너는 형한테 형이 (..) 의미가 없어.

정영학 저는 당연히 결정해주시는 대로 한다면 그냥 뭐 그건 해결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럼 세금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김만배 세금은 수익자가 부담해야 돼.

정영학 일단 주식 명의신탁을 한다는 거는, 그냥 당사자 간의 소송이면 그게 아마 하셨다가 해제를 해도 되고, 조정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판결 가지고 해도 되고.

김 만 배     아니 그거는 판결로 하는 걸로 해야 돼.

정 영 학     판결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김 만 배     그러니까 우리 의사로 봐서 따로 (...) 조정을 해서 630억만 지급해주는 걸로.

정 영 학     최근에 일단 회사에 쌓아놓은 (...)으로 대충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1,000 한 300억 (...) 회사 금고가 (...) 400억 정도 (...) 보고.  
그렇게 했을 때 900억이면 그중에 인제 (...)  
그런데 이제 그 주식 실소유자가 소송, 확인소송은 하게 될 경우에 아까  
그 금액만큼 저 회사 주식을 받으면 그냥 이거 (...)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때 인제, 이런 후에 주주가 누구냐를 상관할 게 아니  
라,

김 만 배     응. 비율?

정 영 학     천화동인 1호가 (...) 주식 중의 일부가 원래 잘못 받았고, 이게 (...) 주식  
이다. 이렇게 소송이 되면은 그쪽으로 주면 되는 거고. 세금도 내면 되는  
거고. 형님이 내셨던 세금을 왜 여기서 내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김 만 배     (...)

정 영 학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 1,300만 (...), 아니면 그걸 받을 수 없게 보  
입니다. 형님이 먼저 받고.

김 만 배     그런데 (...) 확정판결이 나와 되는데. 확정판결 안 나면 조정이지.  
그러면.. 내가 너랑 상의는 의논을 안해.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나는 그걸 떠나서, 만약에 내가 (...)

정영학 그러면 지금까지 (...) 1,300억.. 아. 4,300..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4,300억을 기준으로 (...) 맞추면 630억이 되잖아요.  
그냥 13% 정도를 더 줘버리면 13%를 본인꺼냐 누구꺼냐 이런 소송을 해서 소가가 조정이 되면 그냥 저희가 지급해준 13% 받았던 것.

김만배 응.

정영학 예를 들어서 그거 돌려주면 되고, 앞으로 받을 130억은 조정신청 이후에 배당은 저쪽으로 바로 나가버리니까 저쪽에서 받으면 되고.

김만배 그래. 저기 (...) 소장이 오고가고 옥신각신 하다가 조정해서 주면 돼.

정영학 예. 13%만.

김만배 13%

정영학 예. 금액에 맞게 (...)

김만배 13%로 해. 왜 그러냐면, 형은 그게 니들한테 700억 돈을 (...) 앉거든. 응?  
지금 100억을 (...) 갚으면 되는거야. 안되면 (...)  
이게 2배로 해도 200억이야. 그지? 200억.

정영학 네.. 빌려온 거, 빌려온 거를 줌 (...)

김만배 그게. 그리고 시장이 의심해. 그래서 니들한테 얘기를 안했어.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김만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런 유형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형은 일단 세무적인 부분은 실패했어.



정영학 세금은 수익자 부담 해야죠.

김만배 아니, 실패했어. (...) 빌라는 (...)

정영학 예. 이익은 좀 더 나지 않겠습니까.

김만배 아무래도 이익이 잘 나오면..

정영학 저는 요즘 제가 볼 때는,

김만배 그런데 A12 (...) B1은 (...). 그거는 뭐 형이 그것도 줘야 돼.

정영학 그러면 A12 빼고.

김만배 (...) 그런데 그걸 이해해보자.  
자 그러면 내가 각서를 동규한테 다 받고, 옥이한테도 받고.  
동규한테도 (...) 하지 않게.

정영학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만배 해놔야 돼. 그지?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그랬다니까 남옥이가 안 써. 형한테.  
남옥이한테도 못 받는데 (...)  
그리고 남옥이는 (...) 지가 투자를 해서 (...)

정영학 그런데 제가 이익추정치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마진비율을 (...)으로 정하시면 되고.

김만배 (...) 더 많이 나.

정영학 예.. 대충 이익이 덜 나면.. 예, 예. 그러면 전체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덜 받아라 하면 되는 거고.

김만배 나중에 조정이 되면 되는 거고.

정영학 그러면 이게 그냥 뭐 (...) 주식에 (...) 해야 되는데 (...)

김만배 너하고 상의 안했잖아. 왜 상의하냐고, 들어서. 여기서 (...) 혹시나 (...) 응? (...)에서 예스 할 때까지 (...) 않거든. 응?

정영학 법적인 거는..

김만배 그건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정영학 네네. 그럴만한 문제고.

김만배 그럼.

정영학 예. 하여튼 형님이 그거 맞는 거 최대한으로 (...)

김만배 (...)

정영학 실제 그 둘만의 (...)

김만배 이런 것들도 상의 안했어.

정영학 예.. 아니 뭐 그..

김만배 (...) 안 되는 거고. (...)해도 안 되는 게 (...)

정영학 법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일단 그렇고.



그러면서 너를 벨려고 그런 거야.  
나는 너만을 영학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거야.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래서 마지막 (...) 한거야.  
그런데 (...) 만배형을 저 이..

정영학 보고서 써라..

김만배 보고서 써라 해서 쓴거야. 그 이상 한 게 없었어.  
그래서 쓴거야. 응? (...)

\* 5차 2공주  
- 정영학은 신무직인  
김만배가 시킨 것만 할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러면 인제 뭐 처음에 (...) 사무실에서 누구 중재해준다고 그럴 때 뭐뭐  
뭐.. 그때는 정확하게 안 나왔을 때야. 한직에 있었을 때.  
공무원도 환지방식으로,

정영학 네. 통합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완전히 망가졌죠.

김만배 망가졌어. 응? 만배형이 검찰에서 (...) 응?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고 나서 (...)  
(...) 그때 당시 (...)

정영학 형님!

김만배 아니, 형 말 들어, 새끼야. 응? (...)  
니가 형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

그리고 우리는 이거 손보는데 짜고 치는 것도 없고, 재창이가 이자를 받아서..

정영학 예..

김만배 무슨 말인지 알지? 할 만한 거 한 거야. 응? 그래서 이긴거지.

정영학 저 이자율이 50%짜리도 있어요.

김만배 그래서 재창이한테 돈 줄라고 하다가 (...)  
나머지는 시나리오대로 했지. (...)  
문제는 옥이한테 돈이 왔다갔다 (...)  
거기에는 처음 얘기할 때부터 (...) 지금까지 (...)

정영학 그거는 뭐 남옥이하고 관계죠.

김만배 둘만의 관계지. 그럼. (끝)

# 주요 투자사 및 투자금

(시행방법인) - 법인내에서 프로젝트펀드투자를 (법인내에서) (2015.6.19)  
 (Project Financing Vehicle) (2015.6.19)

[PFV의 자회사인 AMC]  
 (주) 화진대우 자회사인, 2015.2.19  
 메일: 이진우 (2015.2.19)

## 성남의 딸 (주)

주주구성

자본금

자본비율

✓ 성남의 딸 (주) 2,500,000,000 (50.00%) - 100%

✓ 하사관회계  
 회계법인

2,150,000,000 (43.0%) - 20%

✓ (주) 화진대우 자회사인  
 SK 증권 (주)  
 (주) 화진대우 (주)

49,995,000 (0.99%) - 100%

특정투자사  
 투자사  
 2015.6.19.

2015.6.19.

위탁투자기관: 화진, 2015.6.19.

## (주) 화진대우

투자사  
 - SK 증권 (주)  
 (주) 화진대우 (주)

3호  
 산음동 (2015.2.2)  
 화진대우 (주)  
 8,120,000

4호  
 김명동 (2015.1.19)  
 화진대우 (주)  
 8,120,000

5호  
 투기동  
 - SK 증권 (주)  
 (주) 화진대우 (주)  
 8,120,000

6호  
 투기동  
 - SK 증권 (주)  
 (주) 화진대우 (주)  
 8,120,000

7호  
 투기동  
 - SK 증권 (주)  
 (주) 화진대우 (주)  
 8,120,000

투자사  
 - SK 증권 (주)  
 (주) 화진대우 (주)

주주구성

자본금

자본비율

100%

100%

49,995,000

49,995,000

주주구성 (2015.2.19)

5호

6호

7호

2015. 6. 9.

2015. 6. 9.

(3) 전취득금 5천

대금: 2천

당분

이월금

이월금

→ 2천미련 → 2천미련

5,500원

당분 (5천원)

이월금 (2천원)

(3) 전취득금 5천

2천미련

2천미련

① 1천원

② 2천미련금 1천 (2015. 9. 22) 및 당분신약 2천미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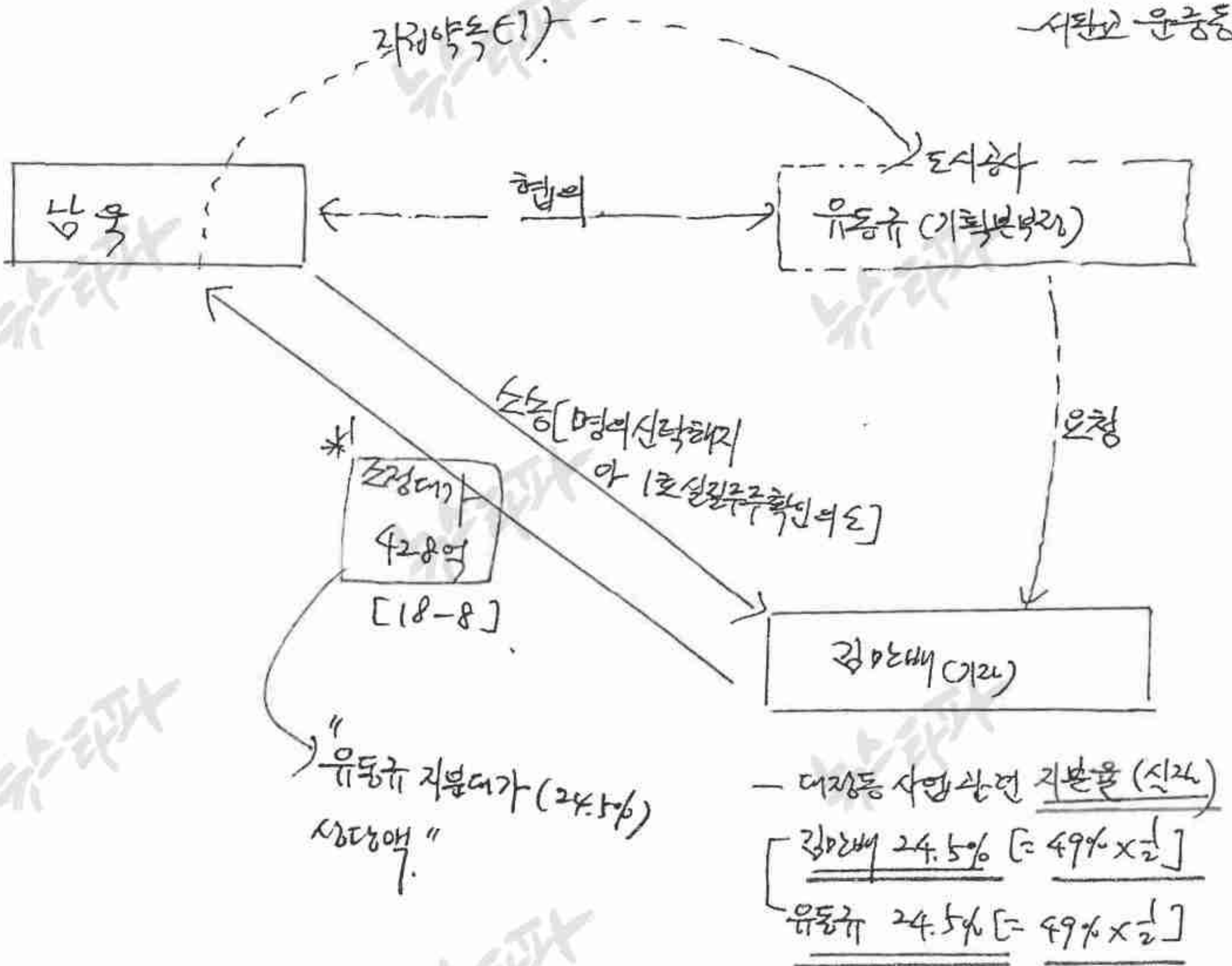
2천미련

5,500원

[11,163원 × 5,000원/3]

# 농취 (18차)

2021. 1. 22 (화)  
시원호 운동회 -



회원+1호+2호+3호

$$\frac{172,085,000}{349,995,000} = 49.16\%$$

유동규, 김민배의 <sup>74%</sup>실질지분율

$$49.16\% \times 50\% = 24.58\%$$

- 소송 행위는 금액으로 지급하게 함 [Not 주권] [18-10]

- 농취(나), 김민배(나), 유동규가 주권임 [18-15]



\* 조성비가 428억 계산내역 (예산)

	2019	2020	2021	2022	상당액(주) 계
비당액 누적					4,800억 (예산)

1. 방인세 납부후 비당 인를가능액

$$4,800\text{억} \times 0.49 \text{ (가른비분)} \times 0.76 \text{ (1-0.24 비인세)} = 1,788\text{억}$$

2. 차감액 (1)

$$650\text{억} \left[ \frac{\text{감인세 가라금 } 400\text{억}}{\text{(처리등인호)}} \text{에 대한 세전 비당액(역산)} \right]$$

3. 유동규 지분율 :  $0.49 \times \frac{1}{2}$

4. 차감액 (2) : 비부공회비 차감액 등

① 70억 (유동규 공회비 배분액)

② 60억 (남북공회비 상계액)

③ 10억 (감인세가 유동규에 가라금한 8억 + 관려이라)

$$* \left[ 4,800\text{억} \times 0.49 \times 0.76 - 650\text{억} \times \frac{1}{2} \right] - 70\text{억} - 60\text{억} - 10\text{억} = \boxed{428\text{억}}$$

(비당인세) 유동규 지분대가 상당액 .891

- 녹음일시 : 2021. 2. 22.(월)
- 녹음장소 : 운중동
- 대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3:45~16:30)

김 만 배 인제 거의 (...) 돼가지고, 내 지분이 원래는 25%인데,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내가 (...)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응? 49%의 반. 그지? 24.5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러면 지분 가지고 배당 나오는 게 총,

정 영 학 1,890개에다가요 1,500개 정도 됩니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 총 64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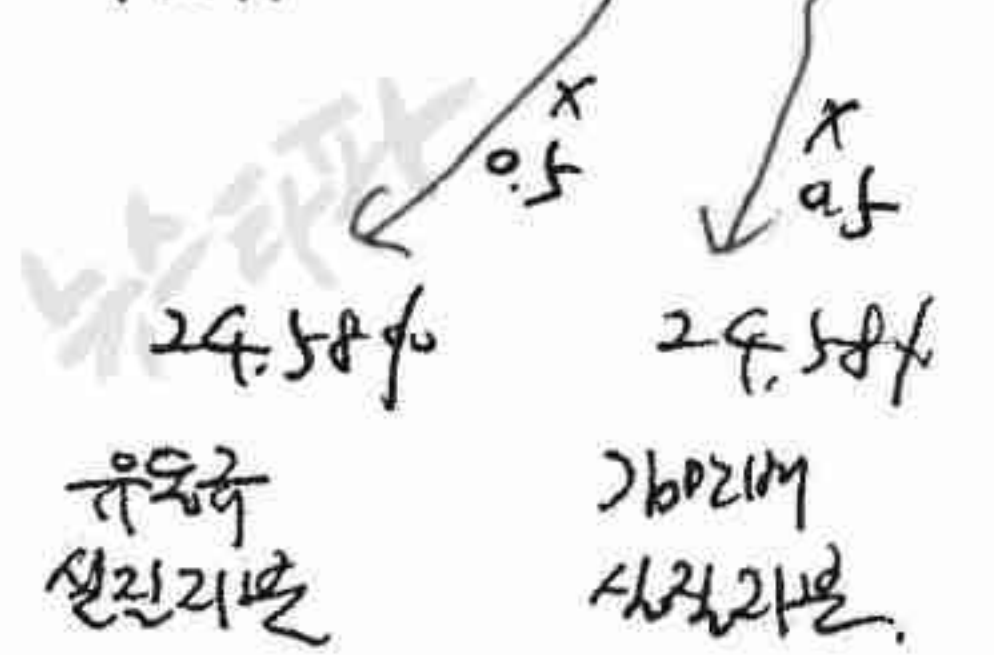
김 만 배 응. 1,390개?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거기에,

회천+1호+2호+3호 상안리분군

$$\frac{172,085,000}{349,995,000} = 49.16\%$$



정영학 세금까지 1,390개.

김만배 세금 빼고. 우선은 세금 빼고. 1,390에 세금이 24%면,

정영학 24%입니다. 24%면, 76 곱하시면 됩니다. 76.  
3390. 76. 2,576억.

김만배 2,576억. 그지? 그러면,

정영학 아 그런데 여기에 (...) 여기에 0.49를 해야 돼요. 0.

) 김만배 들어가는 거..

) 정영학 76. 예.

) 김만배 (...)

정영학 (...) 1,262억입니다.

김만배 1,262억. 거기에서 빼고,

정영학 예. 400억인데요.

김만배 400억인데, 세금..

정영학 형님, 이게 사실 (...)으로 나갔기 때문에 계산을 할려면..

김만배 내가 배당 받아오면 이거를 갚아야 돼.

정영학 갚으셔야 되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봤더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원래 400억 배당 받을 것에 세금은, 올해 세율이 올랐습니다. 45로.

거기에 (...) 11% 세금입니다.  
45에 11 하면 대충 34인데요. 주민세까지 34.4%입니다.

김 만 배      응. 38% 잡으면 돼.

정 영 학      그렇죠. 38%를 잡아야 되고요.  
400억이 될려면 38% 세금을 뺐을 때 400억이 될려면요,

김 만 배      응.

) 정 영 학      0.38 해가지고 400억. 0.62 400 나누기 0.26 645억입니다.

) 김 만 배      650억 하고.

) 정 영 학      645억. 실제 645억. 650억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공통비는 650억을 빼야 맞죠.

) 김 만 배      그렇지. 650억을 여기서 빼야지.

정 영 학      맞죠.

김 만 배      빼봐.

정 영 학      그 다음에,

김 만 배      그 다음에,

) 정 영 학      60개.

)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직원들 70개.

70억 유동규칙은 24.5% 임차비의 공헌비 부담액

김 만 배 70개. 그런데 요거는 인제 세금을 안 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한번 빼면 저기한 거니까.

정 영 학 이거는 직원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요건 세금 빼면 안되죠.  
이것도 직원들 실어주면,

김 만 배 받아가면..

정 영 학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거는.. 예. 요거는 안되고.  
1,262 (...) 마이너스 70 하면, 482억.

김 만 배 거기에서 10억을 빼면 472억. (...)

정 영 학 이거를 (...)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482억에서,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이거는 동규가 가져갈 때 그때 하는 거지.

정 영 학 아 그러고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262억에서 650개를 빼고요.

김 만 배 1,262억에서 650개를 빼고.

정 영 학 612억이죠. 이걸 나누기 2를 해야 되는거죠. (...)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이게..

정 영 학     전체 1,262억 세후에 반이 세금 이렇게 남은 게 1,262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 공통비 빼면 612억. 이걸 반 나누면요, 612 나누기 2. 이게 306억입니다.

김 만 배     306억에서 140억을 빼봐.

정 영 학     306억에서 140억을 빼면, 166억.  
현재까지 나온 배당 중에서는 166억입니다.

김 만 배     그러면 인제 다음, 요번에 나오는 것까지 하면은,

정 영 학     이번에 700억이 나올 거고요.

김 만 배     그거 다 해봐, 전체로. 내년엔 나올 것까지.  
내년에는 어떻게..

정 영 학     4800 마이너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거기서 받아갑니다. 그때는.

김 만 배     (..) 25%를 하다가, 내년엔 받아갈 것까지 총 해서 금액을..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이거는 올해 (...)거고.

정 영 학 여기까지 인제 지금까지 받은 것 그냥 나눠보시면 되고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그다음에, 나중에 내년에 받아갈 것. 700억이면..

김 만 배 내년에 700억이 나오는 거야?

정 영 학 예. 내년에 700억. 올해 700억 예상해요.

김 만 배 내년에는?

정 영 학 내년에도 한 700억 예상합니다.

김 만 배 내년에?

정 영 학 3390. 0790. 0790. 4,800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김 만 배 그러면 4,800억으로 전체를 계산해서 금액을 나한테 줘.  
왜 그러냐면 지분 22%를.. 5%를,

정 영 학 정해줄려면 몇 % 정해주셔야 되는지 금액을 뽑아봐야 됩니다.

김 만 배 그렇지. 25%를 하니까, 25%를 그런데 주식을 보면 애네들이 세금을 부과한  
대. 주식으로 한번 있고, 또 세금으로 배당 때려줄 거고.  
그러니까 그냥 25%를 개네 몫으로 해서 비용을 그렇게 정해서 돈으로 합의  
를 하면 돈을, 돈에 대해서 받는 것만 22%만 받고도 세금 내는 것이다.  
맞나?

정영학 예. 이거 166억이죠?

김만배 응.

정영학 요게 710억 정도 됩니다. 1,410억이 남아요. 이걸.

김만배 아니면 이렇게 해봐.  
3,800억에서 총. 아니, 4,800억에서. 4,800억에서.

정영학 (..)

김만배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정영학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4,800억에서,

김만배 응. 40 곱하기

정영학 0.49 2,352억입니다. 여기에 2,352에다가 세금 0.76

김만배 애네들 현재까지는 받아갈 것도 얼마뿐이 없네.

정영학 매우 적습니다. 형님 요것만. 요거 요거..

김만배 최대한 나와봤자 25%만,

정영학 쪼으면 되죠.

김만배 350억의 반이면 쪼으면 170억. 그지?

정영학 세후로 주셔야 됩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1,787억.

김만배 응,응.

정영학 여기에서 아까 그 650억을 빼야죠.

김만배 응,응.

정영학 여기 650억. 40 (...) 그러면 1,138억입니다.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요, 반반씩 하셔야 되니까. 568입니다.  
여기에서,

김만배 12?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러면,

정영학 438입니다.

김만배 438?

정영학 예.

→ 10억 :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전달한 5억 원 및

김만배 거기에서 10을 또 빼야지. (...)

이에 대한 여파(5000억씩) 관련

정영학 예. 그러면 428.

김만배 최종 428이네.

정영학 예.

김 만 배 지네들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

정 영 학 개네들이 세금 내야죠.

김 만 배 내야지.  
니네 대장 (...) 하면 내가 낼게.

정 영 학 형님, 이 정도면.. 아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비용이거든요.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는 그냥 요거 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온 거 중에.

김 만 배 지금까지 온 거는,

정 영 학 166억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70에서, 이걸 뺄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0.49에, 0.76에 나누기 2.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떼고 주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세금 떼고.

김 만 배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세금 다 떼면.

정 영 학 아. 세금 떼었습니다, 요거는.

김 만 배 그럼 얼마야?

정 영 학 132억입니다.

김 만 배 응.

정영학 710억에다가 0.49에다가 나누기 (...) 132억. 그러면 요겁니다.

김만배 이게 올 3월까지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면 이게 요 부분 합치면 200..

정영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132억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지네가 세금 냈다고 가정하고.

김만배 응, 응.

정영학 132. 132.

김만배 아니, 우리가 내서 줘야지. 우리가 만약에 하면 내서 줘야지.

정영학 아, 이걸요?

김만배 응.

정영학 소송을 가면 내년에는 배당이 저리로 갑니다.

김만배 아니, 금액으로 타게 해야 돼. 그거는, 주식으로 안하고.

정영학 금액으로 해줘도 되는 겁니까?

김만배 응. 금액으로, 조정으로 해가지고.

정영학 이걸 세금 내고 주셔야 돼요. 132억 똑같습니다.

김 만 배 이거하고 똑같애?

정 영 학 예. 132에서.

김 만 배 700억에 대해서 25%, 0.25 곱하기

정 영 학 이게 132억이고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700. 2.76. 이게 30억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김 만 배 아, 왜 이거가 770..

정 영 학 10억이 적습니다. 10억이 적고요. 그러면 166, 132, 130. 420..  
요거 세 개가 428입니다. 요거 428억 맞죠? (..)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요건, 요거 두 개 합친 거는 요거?

정 영 학 132 100 298

김 만 배 그 새끼 미리 가져가면 지 손해야. 그지?

정 영 학 엄청 손해죠.

김 만 배 (..) 남옥이가 개네들 이제 50억 (..)

정 영 학 이게 전혀 형님하고 (..)

(37:25~40:50)

정영학 저는 가급적 정리하려고..

김만배 그래서 내가 '너 알미워서 3월달에 배당 안할라고 그랬는데. 너, 재창이도 그렇고'

정영학 예..

김만배 배당도 안할라고 그랬어. (...) 응? 어찌됐든. 아니 그리고,

정영학 예. 형님,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김만배 그럼!

정영학 솔직히 주총 결의가 나면 바로 배당해야 됩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바로 배당해야 됩니다. 회사에 있는 거 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 하고 천지 차이예요.

김만배 그럼.

정영학 20일 사이에 뭘 일이 어떻게 뭐가 벌어질 줄 압니까.

김만배 그런데 성문이는 왜 그걸 가지고서 나와?

정영학 하여튼 빨리 하라 하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 빨리 빨리해 그냥.

정 영 학      예. 세상 일이 몰라요.

김 만 배      그리고 회사에 돈이 없는 거와 있는 거가..

정 영 학      아유, 형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김 만 배      그럼.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배당이 안되면 또 배임이라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정 영 학      아유, 최대한 빨리 해야죠.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작년에 3월 첫주에 했거든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이번에는 3월 말에 가서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이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좀 늦게 한다 하더라고요.

김 만 배      내가 내일.. 오늘 전화해 볼까? 내일 이사회.

정 영 학      예. 3월초에 첫제주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주총 하고 바로 내줘라.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거는 안돼.

정영학 형님.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형님이 뭐..  
한달 동안 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 그래.

정영학 갈라설지.. 회사에..

김만배 (...)

정영학 (...)  
재창이는 이번에 한 10억만 주고요.

김만배 응,응.

정영학 (...)까요?

김만배 재창이 꺼를 우리가 요구하면, 배당 받으면 우리꺼다 해서 그렇게 해.

정영학 그러면 이번에 재창이 줄까요?

김만배 한꺼번에 줄라고? 뭘 한꺼번에 주냐?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내가 모레 형이 니 돈 50억 하고 (...) 줄게. (...) 이자 10억하고 (...)

정영학 50억 플러스 이자 주시면 됩니다.

(1:04:16~1:05:40)

김만배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남옥이랑 모여서 (...)  
정민용이한테 너 누구한테 했냐. 유동규한테 했냐, (...)

45차 28  
417차 8  
418차 15

정영학은 다른 문법 회사  
가 아니라, 정영학

19 1  
2021-2-22

이기성이가 들어서 (...)한테 보고한 거야.  
 (...) 유동규랑 이기성이 (...) 거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다 밝히겠다. 응?  
 난 판결문이 그런지는 몰랐는데 (...)  
 그래서 그랬어. (너) (나) 유동규가 주범이야. 정영학이는 우리에게 합의  
 한 것을 쓴 것뿐이 없어. 쓰고 넘겨주고. 응? (너)하고 유동규하고 남욱이  
 주범이지, 새끼야. 니가 주범이지. 응?  
 그랬더니, 아이 뭐. 영학이 형이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래.  
 '너는 공범이 아니고 (...) 중범이지 새끼야. 응? 내가 뭘 범죄를 뭘 저질  
 렀는데?' 그랬지. 하여튼간 (...) 이걸 똑같은 얘기야. 옛날에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 그래서 더 이상 안해. (...)

(1:13:40~1:14:56)

김 만 배 성문이 견제해야지, 이거 씨발. 응? 응? 완범이 혼내야지.  
 정 영 학 달래서, 달래서 해야죠. 혼내든지 달래든지.  
 김 만 배 응. 성문이 말해도 안 들어. 아 난 고집 그렇게 센놈 처음 봤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 '너(이성문) HMG한테 왜 위약금을 안 받니?'  
 '친해서 안 받았습시다. 관계 나빠질까봐'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이게 세상이 내적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응? 응? 대표이사가 된 자가. 응? 응?  
 근데 돈 빌려온 거 이자는 좃나게 많이 주면서. 응?  
 야, (니) (너)도 이 새끼야 48억을 줬다. 15억 빌려서. 응?  
 그리고 저 누구야, (정) 누구. 응? 개도 거의 100% 넘게 주고, 또 PM(용역)  
 으로 30억 주고'

정 영 학 예..

정일천 [진양권선 데탕]



김 만 배 '고리해도 이런 고리 없다' 내가 그랬어.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내가 돈 쓴 걸 봤니? <sup>이건</sup>니 통장으로 받아 와서 내가 몇 번 받아 갔니? 그게 다 없어졌으면은.. 응? (끝)

- 녹음일시 : 2021. 4. 2.(목) 10:30~11:10 (19분36초)
- 녹음장소 : 태광CC 클럽하우스
- 대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07:26~08:25)

김 만 배 남욱이가 며칠 전에 찾아와가지고,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명의신탁 각서' 라도 하나 써달라고 그러더라구.  
욱이꺼 넘겨주는 거.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씨팔놈아, 안주면 어쩔 건데, 이따 대고 써달래?  
이 새끼야. 형이 써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 해야지"

정 영 학 그렇죠. 형님이 뭐..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그거야 뭐 형님이 해줘야 하는 거죠. 그게 가령 뭐 시기도 형님..

김 만 배 그래. (...) 하는 거지.

정 영 학 에.. 아..

김 만 배 "자꾸 그러면 안줘, 새끼야. 안주면 어쩔 거야, 니가?"

정 영 학 네..

김 탄 배

아, 제가 미국 갈 거라서 미리 받아놓고 갈라고 그런데.

“갔다 와, 이 새끼야. 탐새도록 핑계 뭘로 델까 고민했지? 새끼야 너. 나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할까” 아니래.

“왜 아니야? 내가 너를 보면 몰러?” (끝)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뉴리과

## 표지

(휴대폰 통화녹음(이성문, 김만배), 그리고 정제창)

+

요약도표

### ◇휴대폰 통화녹음

- 2021.04.20.(이성문) 16:00

: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는, 경찰청 ⇒ 서울청 ⇒ 용산경찰서(이성문 대표 주소지 관할)

: 소명 대상자는, 이성문, 김만배, 이한성, 화천대유(주), 천화동인1호(주)

- 2021.04.20.(이성문) 17:40

: 천화동인1호 가지급금이 400억(장부상 430억 상당)인데, 이중 250억 상당은 소명이 될것으로 보고, 나머지 180억 내지 200억원 정도는 천화동인1호에서 김만배(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이체된 김만배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했을 것으로 추정됨(인출행위자는 이한성)(6쪽 참조)

- 2021.04.21.(이성문) 19:55

: 화천대유에서 이성문 대표가 모르는 돈이 70억 내지 80억 상당액(현금 20억, 수표 60억 상당액)이 있고,

김만배는 "수표를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하며, 박현덕 상무와 이성문에게 수표를 상당부분 쓴거 아니냐"라고 계속 강요 내지 추궁하고 있다고 함(13쪽)

김만배는 박현덕에게 "니가 자백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함.  
(16쪽)

김만배는 돈 사용처에 대해 “ 그 용처가 니(박현덕)가 수표를 바꿨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썼는지 이야기를 해라”하고 박현덕을 추궁했다고 함.(16쪽)

김만배는 “우리(이성문과 박현덕)보고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횡령이라고, 니가 횡령했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함(17쪽)

이성문은, “보상금으로 썼던 것도 거짓말이고, 개인으로 썼던 것도 거짓말인데.....”라고 함.(21쪽)

이성문은 화천대유(주)의 자금인출 방법에 대하여, “화천대유에서 이성문 개인 통장으로 가지급을 받았잖아요. 그걸 박현덕이가 내 통장을 다 갖고 있었죠. 나도 못해도. 내 통장의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그거는”라고 함(23쪽)

이성문은, 김만배는 이런 내용을 남욱과 상의하는지 모르겠고, 남 변호사가..중간에 누구.....100% 분란 생깁니다.라고 함.

- 2021.04.21.(이성문) 22:13

: 김만배는 사기꾼(남욱을 지칭하는 듯)을 처널 배짱도 없어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있다.(31쪽)

2021.04.21.(이성문) 11:21

: 화천대유에서 인출한 돈은 실제로 김만배가 대부분 사용했는데,

김만배는 출금내역도 모르고 박현덕과 이성문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상당한 이야기를 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고.....(33 내지 34쪽)

2021.04.21.(김만배) 19:32

: (국민권익위 신고 관련하여) 대장 프로젝트 금융투자가 무슨 회사인지 등을 김만배는 물어봄.

남욱은 정재창을 계속 만나는 것 같고.(39쪽)

유동규 관련은 남욱과 김만배가 모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영학은 관계 없는 일임.(40쪽)

2021.04.21.(김만배) 20:33(12분47초)

: 김만배는 “수표를 갖다 준 사람.”이 소명해야 한다. 라고 함  
(50쪽)

김만배가 110억원을 다 쓰지는 않았고, “이상한데.... 나오면 어떻게 할거야”라고 함(50쪽)

또한 수표 추적에 대해 이상한데서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고 있음  
(51쪽)

2021.04.22.(김만배) 14:31

: 남욱과 정재창은 매일 만나고 있다고 함.(1쪽)

(남양주 양정지구 사업관련하여) 남욱은, “ 정영학, 유한기, 정재창 등 3인이 만나서 처음에 진행 한 이야기부터 ” 다시 또 이야기 했다고 함.

정재창의 (공갈,협박)에 대한 지출 관련하여 정재창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자 김만배는 “ 음음음”라고.....(3쪽)

그리고 정재창은 돈을 줘도 그렇게 만족하는게 없다고 하자 김만배는 “니(정영학) 탓이야”라고 헛소리를 지껄임.(5쪽)

남욱은 (유동규 관련된 소송) 망외의 소득이 있는데....저게 가면 결국은 남욱이 꺼가 되는 것이다.(7쪽)

김만배는 (회사에서) 수표 쓴거가 120억 내지 130억 정도 되는데.....(12쪽) 김만배 본인은 50억 내지 70억 정도 썼는데.....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라고 함.(12쪽)

2021.04.22.(이성문) 20:05, (4분1초)

: 김만배는 한달에 5천만원 정도 밖에 안썼다고 함.(2쪽)



2021.04.22.(이성문) 20:11, (20분54초)

: 수표 추적하면 누구도 책임질수 없는 사안이다.(5쪽)

김만배 본인은 한달에 5천만원밖에 안썼고, 나머지는 이성문과 박현덕 상무가 다 썼다고 함.(5쪽)

수표 추적할까봐 걱정입니다.(이성문)(12쪽)

이성문 본인은 수표 쓴 적 없다.(13쪽)

2021.04.23.(이성문) 10:49, (18분08초)

: 김만배는 “박현덕 상무에게 박현덕과 이성문이 돈 쓴거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하고 추궁 당했다고 함.(20쪽)

김만배는 이성문이 썼다고 경찰에서 한번 진술하면 대장동 사업 끝날때 까지 이성문을 묶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함.(21쪽)

김만배는 가끔씩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22쪽)

이성문은, “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가 어떻게 썼다고...나를 뭐 횡령 의 주범인 것처럼 하면 본인이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함.(23쪽)

그리고 이성문은 실제로 돈 갖고 간 사실이 없다.(23쪽)

김만배 회장이 박현덕에게 돈을 바꿔 오라고 지시한 것임(24쪽)  
(그런 돈을 회장이 모르는 곳에 이성문이 쓸수 없음)

이성문이 돈 썼다고 하면, 김만배는 이성문이 돈 썼다고 모든 직원들에게 소문을 낼 것이다.(25, 29쪽)

이성문 본인은 형식상은 의사결정 라인에 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한

것 거의 없음(25쪽)

(누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이성문) 돈을 그렇게 수십억 횡령했다고 그러면 그거 옛날부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냐” 라고 하며 이성문 본인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함.(30쪽)

2021.04.27.(정제창) 13:24, (5분01초)

: 형(정영학)은 부자됐고, 김만배도 부자됐고.....  
    끌랑 돈 30억 때문에 그러지 마.....(1쪽)

김만배는 그새끼는 내가 죽여 버릴거야.(2쪽)

정제창이, “형이 유동규 갖다 줬다. 공무원 돈 줬다. 형이 주범이다”라고 허위사실 및 공갈 등 헛소리 한 통화에 대해, 정영학은, “뭘 개소리”라고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통화함..그럼에도 정제창은 무슨 자술서 받았느니 등 공갈,협박 내용 등 계속 추가하고 있음(5, 6쪽)

1 ○ 통화일시 : 2021. 4. 20. 16:00 (4분31초)

○ 통화자 : 정영학, 이성문

이성문 FIU 금융분석원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게 내려갔고, 경찰청에서 서울청 거쳐서 용산으로 내려왔고. 제 집이 관할이 용산구니까.

정영학 네네.

이성문 그런데 경제1팀인데 일반경제팀인데 이러더라고 보니까. 첫째, 그 서류를 보여주더라고. 그 금융분석원에서 내려온 서류를. 그게 잘게 내역 쪽 있는데 그건 짤 글씨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앞에 표지 같은 거, 주요 사건개요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그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첫째는 이성문, 김만배,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1호 다섯 개. 개인 3명, 법인 2개 이렇게 기재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 다섯 개 주체에 대해서 통장의 첫째 자금출처가 어딘지.

정영학 아. 자금이 나간 거가요? 아니면 들어온..

이성문 아니 그러니까, 자금을 예들 들면 극단적으로 이상한 자금 갖고 와서 우리가 현금으로 바꿔줬지 않느냐, 이런 의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영학 아- 예예.

이성문 사실 우리는 자금출처야 확실한 거 아닙니까.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빌려왔든지, 아니면 배당금이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자금출처를 먼저 소명해라. 그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금을 찾아서 어디 썼냐.

정영학 아 예예.

이성문 제가 그래서 정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이 사람 도시개발사업 잘 모르잖아요.

) 정영학 맞습니다. 맞습니다.

) 이성문 구글에 검색해보라. 대장동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밑에 보조하는 여직원  
이 검색을 막 해보더라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금이 6천억이 넘는다. 토지주가 600명도 넘  
고.

정영학 아 예예.

이성문 그래서 이거를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소위 지주 작업용으로 돈을 많이 썼다.

정영학 아 예예예.

이성문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소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수궁하는 눈치더라고, 이 사람이.

정영학 그렇죠. 보통 토지작업 그 정도 하면 일반 시행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성문 우리 1%면 6000억 기준으로 60억이고, 2%면 120억인데요.

정영학 그렇죠. 예예.

이성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개괄적인..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성문, 김만배, 이한성, 천화동인1호, 화천대유 이게 무슨 관계냐. 이 사람 잘 모르잖아요, 이게.

정영학 예예, 대주주이고.

이성문 회사하고 관계나 사업구조에 대해서 내가 진술서 형식으로 상세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겠다. 진술서 형식으로 내가 내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자금출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사업비용으로 썼고, 우리가 횡령이나 배임 이런 건 절대로 없다. 이상한 용도로 쓴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덩치가 크게 때문에 회계감사 받는데도 그냥 우리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정영학 외부감사도 받고.

이성문 법에 따라서 외감법에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는데, 회계법인에서도 우리 회계나 자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 걱정하다고 판단한 자료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영학 아..

이성문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게 이성문, 김만배, 이한성, 천화동인, 화천대유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한 세트론 보는 거예요.

정영학 네..

이성문 사실 그게 맞죠.

정영학 그렇죠.

이성문 한 묶음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한성이나 선배님도 개별적으로 다 조사 그렇게 예상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천화동인1호나 나

머지 사람들 다 자금 다 소명하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 사실 내가 한꺼번에 하면 좋죠 그게.

정영학 네..

이성문 다른 사람들 이한성 상무 안 가고 나 혼자 가는 게 좋죠.

정영학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성문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게 설명만..

정영학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면 되겠죠 뭐.

이성문 설명만 해주시면 그냥 뭐 종결처리 할 수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그런데 이제 뭐 무슨 범죄혐의가 소명돼서 온 건 아니잖아요.

정영학 네. 그냥 현금 찾은 게 많아서.

이성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영학 그런데 믿을만한 정황이 있는거죠 뭐. 지주작업비고 뭐.

이성문 그래 이거를 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내가 그랬어요. 출금내역 일일이 내가 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2           ○ 통화일시 : 2021. 4. 20. 16:07 (22초)

○ 통 화 자 : 정영학, 이성문

)   이 성 문       그래서 저는 선배님께서 서초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수표를 경솔하게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하거든요.

정 영 학       아..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미팅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성 문       나중에 전화..

정 영 학        끝나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성 문        예예, 알겠습니다.

정 영 학        죄송합니다.

)   이 성 문        예. 그래요 그래요. 예예.

)   정 영 학        곧 끝납니다.

)   이 성 문        예예예.

정 영 학        네.

---

3 ○ 통화일시 : 2021. 4. 20. 17:40 (7분1초)

○ 통화자 : 정영학, 이성문

이성문 그걸 누구한테 빌려줬을 수도 있고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정영학 그건 물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성문 아니 그런데 그건 이한성 상무가 정리해주기로 했어요.

정영학 아. 예..

이성문 대충 그렇게 왁꾸를 맞춰볼까.

정영학 그럼 그게 저기로 나간 돈입니까? 대여로 나간 돈입니까?

이성문 가지급으로 나갔죠. 지금 1호의 가지급금이 더감하고 뭐 (...) 해서 400억 정도 있어요.

정영학 대표님, 그러면 그거 빼놓고는 그러면 400억 정도면 일단 200개는 소명이 되는 거고요. 더감 간 거 하고.

이성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라니까. 지금 가지급 400억 중에 더감에 100억 빌려줬죠. 그건 소명이 되죠. 나머지 또 나머지 한 150억 정도 그거는 또 소명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대충 한 200억 정도는 1호에서 선배님 개인통장으로 가지급이 지급됐고, 선배님 개인통장에서 돈을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했을 거 아니에요.

정영학 네, 네.



- 이 성 문      그것을 설명해야 된다니까
- 정 영 학      그건 물어보셔야죠 뭐. 그거 어떻게 압니까.
- 이 성 문      아니 그래서, 그걸 이한성 상무가 나한테, 내가 확인해서 나한테 이야기 해줘라. 정리해줘라 했죠.
- 정 영 학      네네네. 근데 뭐 그 뭐 그, 그게 다 현금 인출인가요?
- 이 성 문      아니, 수표가 많을 겁니다 아마.
- 정 영 학      그러면 대표님, 수표면 용처가 다 확실하지 않을까요?
- 이 성 문      저는 이제 이게 최악의 경우에 계좌추적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아까 이한성 상무하고 박현덕 상무한테 두 사람에게 계좌 추적할 수도 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수표 용처가, 용처만 투명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줬든 그거 무슨 상관이나.
- 정 영 학      그렇죠. 예. 용처만 확실하면.
- 이 성 문      특별한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 정 영 학      저는 회사에서 현금 뽑은 거가 문제라면 그거는 소명이 될 것 같아요. 아까 하신 대로.
- 이 성 문      아니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가서 소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현금 찾고 가지급도 없는데. 가지급도 다 갚았잖아요. 나하고 선배님하고 개인 부채로 남아있잖아요.
- 정 영 학      예. 일단 법적인 문제를 다 그건 카바했고.
- 이 성 문      법적인, 형사적인 문제는 없어.

정영학 그다음에 솔직히 또 보상 토지작업 할 때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상식에.

) 이성문 용산경찰에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우리가 수표나 현금으로 뽑으니까 다른 사람 돈을 갖고 와서 자금세탁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고.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정영학 예, 그건 아니고. 예예. 한번 그건 형님한테 물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성문 아니 그래서 이한성 상무가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영학 예예. 그럼 뭐 그건 괜찮을 것 같구요. 그다음에, B1 고생하셨습니다.

이성문 아이구, 아닙니다. 이제 김종길 부장이 잘 알아서 해야지 이제.

정영학 그다음에 사실 하루 차이인데, 그 돈을 인출, 그거를 550억을 상환을 다 했습니까?

이성문 한 걸로 저는.. 저는 자금 쪽에 관여 안하니까.

정영학 그거를 끝내.. 아..

이성문 그래서 B1도 혹시 뭐 다른 이야기 나오시면 그냥 아이고 뭐 어차피 일하다가 다 실수한 거죠 뭐,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이야기 진짜 하지 마십시오. 회사는 그래야, 그래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정영학 아니, 이 기분 좋게 사업승인 받았는데 왜..

이성문 아니 아니 그거는 제가 저 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일단 사

업승인 받았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여기서 일단락 해야지,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거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자꾸 듣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혹시 그런 말씀 나오면..

정영학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저기 뭐..

이성문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더 이상 논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영학 형님 이야기는 저기서 다 했다고 해요?

이성문 허허허~ 아..

정영학 아유.

이성문 내가 보니까 김종길 부장이 나는 이제 주택 예를 들면 설계나 자기가 인허가 움직이는 그런 것까지 내가 기대는 안했고, 도서를 보거나 또 외부 기관 협의할 때 빨리빨리 움직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김종길 부장이 옛날에 시행사에 있다가, 그건 또 오래된 이야기고, 김포도시공사에 있었잖아요.

정영학 예. 아..

이성문 김포도시공사에 4,5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 김포도시공사는 인허가는 필요가 없는 부서 아닙니까.

정영학 그렇죠. 예. 그게 또 있었네요.

이성문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우리 2017년, 김종길이가 2017년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2017년 말인가 2018년 초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파트 인허가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경험이 없는 거야. 애가.

정영학 아..

이성문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 내가 리건축에 부사장 그 사람은 내가 궁금한 거 물으면 그냥 귀에  
쑥쑥 이게 다 들어와요. 김종길 부장은 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설명하  
는 게. 실제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구가 낫고, 늦어  
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 도서자금 못했다. 물론 도서자금 못한 것도 있겠죠.  
아이고~! 저도 참 많이 되돌아봅니다. 결국은 다 내 잘못이지 뭐.

정영학 그래도 대표님 받아낸 게 어딴니까.

옛날에 빨리 받아봤어 봐야요. 오히려 작년에 분양한 것 보다 올해 분양  
하는 게 이익이 훨씬 더 납니다.

이성문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전화위복.

정영학 전화위복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죠 뭐.

이성문 아니 그런데 더 이상 B1은 이야기 안되니까.

정영학 하여튼 B1, 하여튼 저는 제가 보기에 리건축에서 잘한 것 같은데요.

이성문 잘했어요. 건축과 윤 과장도 소문난 또라이잖아. 성남에서. 와아~

정영학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성문 그런데 그것도 우리 운이죠 뭐. 복이죠.  
회계사님, 다음주나 점심이나 하시죠.

정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 ) 이 성 문 하여튼 용산서도 잘 대비하겠습니다.
- ) 정 영 학 네네네. 아이구, 고생하십시오.
- ) 이 성 문 그리고 남 변호사하고 그런 들리는 말 없죠?
- ) 정 영 학 예, 없습니다.
- ) 이 성 문 그리고 선배님 또 회계사님한테 연락 안하죠?
- ) 정 영 학 예. 하하. 상관없습니다.
- 이 성 문 알겠습니다.
- 정 영 학 그냥 뭐 일만 잘..
- 이 성 문 예예. 하여튼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 이 성 문 그리고 오늘 현엔하고 회의를 두밀사거리 추가개선 건으로 회의를 했어  
요. 실제로 현엔하고 내가 직접 회의한 거는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 ) 정 영 학 네네네.
- ) 이 성 문 감리단하고 월요 회의, 화요 전체회의 참석 한번 하고.
-

4 ○ 통화일시 : 2021. 4. 21. 19:55 (18분30초)

○ 통화자 : 정영학, 이성문

이성문 아니 그러니까 이 현금을 찾아서 예를들면, 전체 예를들면 100을 썼다 그러면 그 중에 예를들면 뭐 내가 또 회사에 빌려간 돈도 있고 하잖아요. 예를들면.

정영학 예, 예

이성문 그런 것 다 합해서 다 소명해봤자 3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래 다 해서,

정영학 그러면 대표님이 모르는 돈이 70-80억이 있는 건가요?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예.

정영학 화천에서요?

) 이성문 예, 예.

) 정영학 아..

) 이성문 그런데 이제

정영학 그게 소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말로 때워갖고는

이성문 아니 그래서 거기서 현금으로 찾은 게 대충 한 20억 내외 되고, 최소(수표)가 한 50억, 60억 되거든. 50억이라 치더라도,

정영학 화천에서? 일단, 화천?

이 성 문 예, 예

정 영 학 화천에서 현금 20억.

이 성 문 그래서 회계사님, 제가 이제 회계사님 뭐냐하면, 아까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셨고.

정 영 학 예.

이 성 문 박현덕이는 오늘 수요일이고, 월요일날 밤 12시까지 그 김선호하고 같이 커피숍에서 이야기, 회장님 이야기 들었다는데. 수표를 어디 썼는지 밝히라는 거예요, 나하고 이성문이하고 박현덕이하고 수표를 상당부분 너희들 쓴 거 아니냐.

정 영 학 예?

이 성 문 아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거죠 이게.  
아니 대주주나, 회사 대주주나, 오너 몰래, 회장님 몰래 우리가 수표를 백만원, 2백만원도 아니고, 한 몇 십억 썼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게

정 영 학 그게 대표님이 가져 가신건 아니실 거잖아요?

이 성 문 가져가긴 뭘 가져가요? 10원짜리 하나 갖고간 적 있습니까? 내가

정 영 학 그럼 그걸 다 뽑아서 주는, 뽑은 사람은 누구 줬는지를 알거 아닙니까.

이 성 문 회장님은 안갖고 갔다 그러잖아요. 일부만 갖고 갔다는데.

정 영 학 그럼,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이 성 문 글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박현덕이하고 자금 부분 중에 상당하게, 상당수 소명해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회장님 저는 쓴적 없습니다.

그게.

저는 이런 이야기 이해로 들리더라고. 제가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본 건데 수표 중에, 돈은 뭐 예를들면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다고 뭐 100억 썼다고 할 수는 없는거고, 한번 20억, 30억 내가 썼다 그냥.

그런데 회계사님, 내가 그래서 아까 이한성 상무하고 네 사람이 미팅하면서, 회의라기보다도 뭐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우려하는 것은 이 돈을 누가 썼는 게 그건 나는 우려되지는 않아요.

정영학 저도 돈을 쓴거는 그냥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성문 그냥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수표가 갖고, 술집에 갖고, 이런 것은 관계 없어요

정영학 그래 보입니다. 대표님 말씀 맞아 보입니다.

이성문 공적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갔느냐가 그게 문제인데, 제가 회장님한테 이렇게, 저는 그 100억,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그 돈이 수표가 누구, 흘러가서도 안될 사람 공적 신분인 사람한테 흘러가지 않았다면 그거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회사의 횡령도 아니고, 가지급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니까 회장님 이야기가, 야 그렇게 하게 되면 수사에 단서가 된다 그건. 아 그러니까 이 수표를, 그런데 이 수표를 누가 어디 썼는지 모르죠 사실. 내가 예를들면, 내 처나

정영학 가져가서 쓴 사람이 알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성문 그러니까 예를들면, 내 아는 지인들한테도 수표, 내 친구나 뭐 수표 한, 내가 1-2억, 2-3억 바꾼적 있지만, 개들은 나한테 현금을 다 줬단 말이죠.

정영학 네네



이 성 문 그래서 야 그 수표를 어디 썼냐-그러면, 이성문이한테 현금 다 찾아줬습니다, 이렇게 개들은 얘기하면 끝인 거잖아요.

정 영 학 그렇죠, 그렇죠

이 성 문 개들이 공무원도 아닌데.

정 영 학 응, 응.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성 문 제가 뭐 공무원들한테 수표 바꿔 달라 했겠습니까.

정 영 학 에이. 그런데 그렇게 인제, 1~2억이야 하시겠지만, 50~60억을 어떻게 소명을 해요? 현금 20억하고.

이 성 문 아니 그래서 이거를 뭐 좀 방안을 찾아라 길래, 나는 뭐 선배님 뜻이, 그러면 이성문이 니가 썼든 안썼든 무조건 한 20억 썼다고 이야기 하라는 뜻인지..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그 가서 내가 20억 썼다 칩시다. 그 수표가 모르는 사람이 튀어나오면, 그 사람을 나도 모르고, 그사람도 나를 모를텐데..

정 영 학 대표님.

이 성 문 아유..

정 영 학 아니 그 수표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면.. 어~ 그런데 그게 쓴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쓰고 썼다고 할 수도 없는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성 문 그렇죠. 선배님도 기억을 다 못할 거예요. 그 수표를 예를들면 A라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A라는 사람한테 줬겠냐고요?

예를들면 B라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바꾸어서 줬겠죠. 그러면 B는 그 수표가 어디로 뚱 뚱 굴러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정영학 아..

이성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재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막 회사 일 잘하고 있는데, 이거 괜히 또 이거 무슨 박현덕이가.. 나는 놀랐어요. 오늘 들었어요 어제 들은게 아니고, 김선호하고 12시에 커피숍에서, 12시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12시까지 이야기 한게 뭐냐하면, 야 니가 자백해라 뭐 이런 이야기 아납니까. 그런 취지로 이야기 했다 하더라고요.

박현덕

정영학 박현덕이한테요?

이성문 예.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박현덕이가 부당하게 나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줄 놨인가요?

정영학 아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형님이 박현덕이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가요?

이성문 내놓으라는게 아니죠. 그 용처가 니가 수표를 바꿔서 다 바꿨기 때문에 그걸 어디 썼는지 이야기를 해라.

정영학 박현덕이한테?

이성문 예. 뭐 이성문이하고 나눠 썼는지, 뭔지 이야기 해라.. 이런 뜻이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건데

정영학 그럼요.

이성문 아유.. 그런데 아무리 선배님 속뜻이 니가 예를들면 적절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좀 돌려서, 야 이거 어떻게 용처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좀 짜봐라, 이렇게 아니라, 마치 내가 쓴 것처럼 하니까.  
내가 그래서, 회장님, 나 쓴 적 없습니다.

정영학 예.

이성문 사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 거든요. <sup>→ 762내씨</sup>  
이거, 이거 진짜 이거는 그거는 진짜 선배님이 진짜, 진짜 한 차선을 넘는 거고,  
<sup>박현덕</sup> 우리보고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닌데, 횡령하라고, <sup>→ 박현덕</sup> (니가) 횡령했지 않느냐  
<sup>박현덕</sup> <sup>이성문</sup>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나요? 진짜

정영학 네..

이성문 선배님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진짜. 며칠 동안 잠잠하시더만 또 시작입니다.

정영학 박현덕, 김선호 둘 다 스트레스 엄청 받겠네요?

이성문 김선호야 (수표) 바꾼 적이 없으니.. 박현덕이 바꿨잖아요 주로.

정영학 박현덕이가 뒤집어쓰는 건가요?

이성문 내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박 상무 돈 어디 썼냐? 그랬어요 (웃음)

정영학 뭐라 합니까.

이성문 웃죠. 박현덕이가 돈을 그 지가 회사돈 진짜 단돈 천만원, 1억이라도 횡령할 수 있는 간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영학 대표님, 그사람이요 10원도 못 먹을 간쟁이예요.

이성문 그런데 그 박현덕이..

정영학 표정 보면 아시잖아요. 이사람 선한 사람이예요.

이 성 문 그래서

정 영 학 남의 돈 빼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성 문 그래서 그 수표 바꿔서 내 줬겠습니까. (하하)

정 영 학 들다 아니겠죠.

이 성 문 아유. 내가 보니까, 아유 죽겠어요 나 진짜. 아 진짜~  
사실 저는

정 영 학 그나저나 이게 그러면 70~80억인데요, 나머지 저쪽 형님 계좌에서 나간거  
200개는요?

이 성 문 그건 본인이, 회장님이 다 소명한다 하셨죠. 소명하시겠죠.

정 영 학 아. 아..

이 성 문 그런데 이게 이럴 수도.. 그거는 맞아요. 토지보상관계, 토지보상 50억  
줬다 그러면, 진짜로 50억이 수표가, 수표 추적하면 제삼자한테 돌아다니  
기 때문에 그건 결국 거짓말 하게 되는 거 거든.

정 영 학 네네. 아니 뭐 수표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현  
금은,

이 성 문 그리고 지금

정 영 학 그런데 현금은 보통 인제 막 와서 떼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성 문 지금 회계사님, 지금은 계좌추적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다 검찰에서.

정 영 학 네네네

이 성 문     우리 소명을 본다는 거죠.

정 영 학     네네. 소명도 사실 맞아야죠. 사실하고. 수표 같은 거는

이 성 문     그런데 소명이 안맞죠 여기는. 결국은 거짓말 하더라도 계좌추적-  
나도 그래요. 이 문제는 그 수표를 혹시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신분이 민간  
이라 그러면 그사람이 1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정 영 학     결국은 그냥 증여세 내지는 빌려줬다 내지는, 그 옛날에 빌린 돈 갚았다  
내지는,  
그런데 인제 그 수표가 공공 쪽으로 갔으면 아 이건 뇌물이니까요.

이 성 문     아 그러면.. 증여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여세는.  
사실은 그거를 선배님이 누구 도와줬을텐데 수표로.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러면 그사람이 증여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겁니까.

) 정 영 학     대표님, 그냥 개인간에 1-2억 돈 세금 나오지도 않습니까.

) 이 성 문     그러니까

) 정 영 학     예.

이 성 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미 수표는 써져 있는  
거잖아요

정 영 학     네네네

이 성 문     이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변명해놓고 난 뒤에,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경  
찰을 움직이든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풀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자꾸 거  
짓말을 어떻게 갖다 붙이면 그거야말로 이상하게..

- 정영학 그건 아니죠. 네네
- 이성문 이상하게 되는거고
- 정영학 네.
- 이성문 그냥 뭐, 토지보상-
- 정영학 인제 현금이야 보상 때 만나가니까, 이사 나갈 때 한 몇푼 줘서 보내겠지 만, 뭐 그사람들이 수표.. 아유, 수표는 아닐거지 않습니까.
- 이성문 아 그러니까, 수표가 채삼자한테 가 있으면 뭐..
- 정영학 그건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거야 뭐. 금방 나오니까요.
- 이성문 아이구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거 끝날 때 까지요 이번 연말 그 대장동 본단지 사업준공 추석 때까지 빠르면 이거 매일 또 이런 생난리 또 치게 생겼어요. 아유 나 참.
- 정영학 그러면 그 대장프로젝트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아까 형님이 그냥, 대표님하 고 상의를 해라?
- 이성문 아니, 상의할게 뭐 있어요? 아니 그거 정 회계사님 전달해주라고 그러더 라고.
- 정영학 네네네네
- 이성문 뭐 상의고 말게 어디 있어요? 그 대장프로젝트 내가 아는데, 예보에 다 뺏 기는데 뭘.
- 정영학 거기 보상 들어간 거 예보에 100% 그냥-

- 이 성 문 아 그렇죠. 제가 알잖아요
- 정 영 학 예, 1원도 안하고, 예보로 다 갔습니다 이 사실, 이거죠 뭐.  
왜냐하면, 대장프로젝트 금융투자의 보상금이 들어가서 어디로 갔느냐, 이  
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다 예보로 들어갔죠.
- 이 성 문 회계사님.
- 정 영 학 예
- 이 성 문 회계사님, 보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내부적으  
로, 아니 나도 돈 안썼고..이거.  
사실 나는 화천대유 부분은 내 선에서 다 정리 할려고 그랬거든요 보상금  
부분도
- 정 영 학 그런데 대표님, 수표가 이렇게 많으면
- 이 성 문 보상금 부분은 되지도 않구만
- 정 영 학 예
- 이 성 문 그거는 이렇게 내 용처 모르니까 나머지는 내가 썼다고 그래야죠.  
아니면 내가 진짜 보상금을 70-80억 뿌렸습니다, 70억 뿌렸습니다 이야기  
하던가.
- 정 영 학 (하하하)
- 이 성 문 아니 왜냐하면, 그거 내 개인으로 썼습니까. 그러면 그걸 개인이 어떻게  
40억을 씁니까? 그게 더 이상하지.  
아니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차피 둘다 다 거짓말 아니예요?  
보상금으로 썼던 것도 거짓말이고, 개인으로 썼던 것도 거짓말인데, 어느  
게 더 그래도 겉으로 그럴듯한 변명이 될 거 아니예요?

정영학 그거는 갖고 가서 쓴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어디에 썼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 이성문 (웃음) 참~ 별로 안쓰셨다 그러니까. (웃음) 아이구 나 참.

) 정영학 그다음에 대표님, 그냥 제 생각에도요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저기면, 다 바지인거는 누가 보든지 알아요.

이성문 (웃음)

정영학 그거 그냥 지나가던 소도 웃죠

이성문 뭐 내가 임의대로 회사돈 빼내서 한 30억 썼다?

정영학 아유, 대표님, 그거 믿어요? 아무도 안믿지. 아니 애들이 뭐 한 두 해 했던 애들입니까.

어디 세무조사 해도, 바지 사장이 된 횡령을 합니까, 예? 못하죠.

) 이성문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지분 그것도 아니고,

) 정영학 아이구. 아무 배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진짜 지분이 빵 프로인 이 바지지. 바지.

이성문 (웃음)

정영학 일단 이거지 않습니까 대표님. 바지..

이성문 그냥 월급쟁이 사장인데 뭐

정영학 월급쟁이 사장 바지. 뭐 지분 1%도 없는데, 뭐 돈을 빼가고 횡령을 할 권리도 없고,



이 성 문 아이구 참.

정 영 학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건 통장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이 성 문 그게 화천대유에서 이성문 개인 통장으로 가지급을 받았잖아요. 그걸 박현덕이가 내 통장을 다 갖고 있었죠. 나도 못해요. 내 통장의 비밀번호도 모릅니다 그거는.

정 영 학 대표님 그냥, 실명제위반 정도이니까.. (하하하)

이 성 문 아니, 실명제 위반 아니예요. 가지급 받았으니까 실명제 위반 아니죠.

정 영 학 그 실명제위반도 요즘은 저기도 없어요.

이 성 문 아니 아니 가지급 받았기 때문에 실명제 위반 아니고, 내 계좌 썼으니까,

정 영 학 그러면 통장에서 인출한 거 두 번이 쓰셨다면서요? (웃음)

이 성 문 아이구.

정 영 학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계좌 나 모른다, 박현덕이가 썼다, 이거네요 그러면 서로. 아이구, 답답하네요 이걸.

이 성 문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썼다 그래야죠 보상금 일부 주고, 일부는 내가 썼다고 하는 수밖에,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 경찰이 그거보다도, 보상금을 우선 다 뿌렸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일단 알았다 뭐, 수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안그러면 수공이 안 되잖아요

정 영 학 아..

이 성 문      둘 중의 하나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상당부분 70~80%를 보상금 주고, 나머지는 좀 일부 썼다고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절반은 보상금 쓰고, 절반은 내가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든지..

정 영 학      대표님, 개인적으로 어디다 써요?

이 성 문      아니 그러니까, 말이라도 뭐.

정 영 학      아..

이 성 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 찾고 할 때 다 예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나하고 박현덕이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언젠가 이야기..

정 영 학      대표님, 저는 현금 찾은거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이 성 문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야기 저희도 인제 이야기..

정 영 학      저한테 물어보시지도 않는데 뭐. 그다음에 이것도 코메디죠 이게. FIU에서 연락을 정도로 돈을 찾는거는 진짜 코메디죠. 코메디.

이 성 문      그거 이미 다 우리 예상한 거죠. 언젠가 온다.

정 영 학      예

이 성 문      내가 그래서 검찰에 있는 검사가 아닌 밑에 계장. 옛날에 범죄정보 담당했던, 대검에 담당했던 그 사람한테, 그사람 인제 퇴직하고 법무사 하는데, 서초동에서 법무사. 내가 그사람 현직에 있을 때 내 물어봤거든. 아직은 내 이름 없다.

그게 2년 전인가, 2년 반적인가 그랬어요. 내 이름 없다고.

정 영 학      아 예 인제는 그럼.. 아..

이 성 문 저는 걱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 때문에 또 선배님하고 또 불신이 생기나보다, 또 회사 또 서로간에 내분 비슷하게.. 내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또 회사 직원들, 우리 오너하고 직원들 간에 또 불신이 생기고 서로 저거한 것을 하구나.

정 영 학 그거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들려야죠. 저하고 박현덕 상무는 가져다 쓴 돈은 없습니다.

이 성 문 이야기 했죠 아까. 그 정도에도 이야기 하고.

정 영 학 예. 이걸 12시까지 그냥 이렇게 푸쉬를 하신 거네요? ‘니네가 책임져라’

이 성 문 그러니 박현덕이 얼마나 고문이겠어요? 나는 몰랐어요 여태까지. 오늘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욕 봤다’ 그랬어요.

정 영 학 아.

이 성 문 그걸 박현덕이한테 12시까지 그렇게 할 이야기입니까? 그게

정 영 학 말도 안되죠.

이 성 문 물론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겠지만. 회계사님, 아이구 죄송합니다.

정 영 학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보상비로 나갔다 하는거는 맞는거 같긴 한데.

저희가 무허가건축물 일도 많았고 세입자들도 많았잖아요.

이 성 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표에 대한 추적을 안해야 되든지..

정 영 학 수표에 대한 추적 하겠죠 당연히. 대표님. 금액이 커요.

이 성 문    아니, 아니, 아니 반드시 그런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 영 학    아니 그거는 인제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야 뭐.

이 성 문    그런데 그 위에서 판단을, 그 위에서 판단해야 돼요. 위에서 판단하고, 그  
거는 정치적으로 움직여야지. 앞으로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부분을 남 변호사하고 상의하는지 몰라요.  
나 그거 진짜 이해가 안되네.

정 영 학    남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성 문    그래, 왜 남 변호사하고 상의하는지 몰라요

정 영 학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저녁에 오라고 그래서, 아유 저, 형님 안  
잡니다..

이 성 문    인제 어울리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선배님하고 1:1로 이렇게 만나시  
고, 안그러면 남 변호사가 그 중간에 누구 이야기 하다가 온갖 또 분란..  
100% 분란 생깁니다. 하지 마십시오.

정 영 학    네네네네

이 성 문    지금까지 수없이 그렇게 반복된 거잖아요

정 영 학    네네. 아유, 저도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뭐 좀 나갔다 오든지..

이 성 문    회계사님, 하여튼 내가 나도 밥 먹으러 왔으니깐요.

정 영 학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 성 문    선배님이 밥 먹자는 거, 아유 그냥 오늘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아이구

정영학 네네

이성문 죄송합니다.

정영학 아닙니다 대표님. 네네네

이성문 하여튼 내일 전화 한번 드릴게요.

정영학 네네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성문 예.

---

5 ○ 통화일시 : 2021. 4. 21 22:13 (7분4초)

○ 통 화 자 : 정영학, 이성문

이 성 문 남욱이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정확하게 잘 정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땡큐. 내일 보자' 끝내시더라고.

정 영 학 예..

이 성 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욱이하고 왜 상의합니까? 아이고.

정 영 학 남욱이가 아마 좀 이야기를 했겠죠. 그쪽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 경찰쪽 잘 아는.

이 성 문 우리 선배님은 서초동에 최고의 멤버들 만나는 사람인데 왜 남욱이한테 도움 받아요. 계속 법원,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들 만나는 게 회장님 아닙니까? 그러게 한번 도움 청하지, 왜 돈만 주시고 아무 도움도 안 청해요.

정 영 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 문 그러니까 먹물 들은 새끼들은 얻어 쳐먹고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정 영 학 그러네요.

이 성 문 그렇죠. 내가 품 잡을 때만 좋지, 개들 그게 군대법관, 군대법관이면 법 리적으로 잘해주면 팬찮고. 우리 검찰에 있는 사람들 굶은 일 나설 것 같 습니까? 절대로 안 나서요. 개들.

정 영 학 아.. 그러네요.

이 성 문 회계사님, 절대로 안 나서요. 굶은 일 나설 사람이 있죠. 정말 정말 나하

고 동고동락 했을 때 나서죠.

정영학 그렇죠. 그렇죠.

이성문 내가 스폰서 해주고 절대로 안 나서요, 이 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별 필요도 없어요.

정영학 그러네요 진짜로.

이성문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아니 회계사님, 그건 별론이고.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우리 저 김 선배님께서 남육이하고 저렇게 엮이면 돈 많이 뜯깁니다. 여기서 해결 잘 되면 남육이가 많이 역할했다고 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참 그.. 아.. 후과가 또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영학 예. 남육이가 저한테도 연락 왔습니다. 같이 보자고.

이성문 그 새끼가 왜 연락해요?

정영학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돼 가는지 궁금하다고.

이성문 지랄하고. 지 배당 다 받았으면 됐지 뭐 지랄하고. 회계사님,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정영학 네네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성문 그런데 김 선배님도 진짜 만배 선배님도 그렇게 속이 없나요. 그렇게 욕하다가 왜 만나지?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맞장구 쳐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하 참. 남육이 관련해서 회사에서 온갖 이야기하고, 죽일놈 살릴놈 하다

가 업무 이야기하면.. 아~ 참.

정영학 엇그제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박현덕 이사가 저기 상의한다 했지 않습니까. 남옥이랑 형님이.

이성문 아니요. 그거는 박현덕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한테 최근에 남 변호사 만난 뉘앙스를, 남옥이 만났는데 남옥이가 뭐 이 새끼, 남옥이 이 새끼한테 니 가오 잡지 말고 뭐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남옥이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이고, 나 진짜..

정영학 예..

이성문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당나라군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두밀사거리도 그래요. 제1공단도 마찬가지로. 두밀사거리 현엔에서 추가공사 할 때 이 새끼들 감리단장하고 현장 나갔는데 거기서 하는 게 무슨 뭐 감리냐고 그러더라고. 두밀사거리에 대해서 계약이 안 돼서 지랄.. 정 안 되면 현엔이 아니고 다른 대림이든 대우든 거기 원청 딱 주면, 현엔 금액 주면 개들이 죽자 살자 달려들 거 아니에요.

정영학 예..

이성문 아이고~ 그 의사결정 누가 했습니까. 속 터져. 속 터져가지고.. 아..

정영학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성문 그 뭐냐면, 일을 생각 안하고 사람 관계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일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람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영학 예.. 음..



이 성 문      저는 우리 김 회장님은 만배 선배님은 내 평생 선배님으로 모시겠지만, 저분은 절대로 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셔야 돼. 저한테도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막판에 이제 완전히 전쟁이잖아요

정 영 학      그렇죠.

이 성 문      이런 전쟁 치르고 있는데 남육이 같은 사람하고 상의합니까? 아이고 참.

정 영 학      그렇죠. 남육이는 뭐 어떻게든지 간에 좀.. 돈이 없어서 이제 뭐..

이 성 문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상의하나요?

정 영 학      잘 모르겠습니다, 저야.

이 성 문      저 같으면 그래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내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 남육아, 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선배님은 배짱이 없어. 선배님은 그런 배짱도 없어. 사기꾼 처널 배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우리 회사 사업은 성공하지만 회사 망하는 수준이에요.

정 영 학      예.. 걱정입니다.

이 성 문      선배님 놀래서 저한테 그게 아니고 박현덕이한테 12시까지, 김선오. 김선오, 박현덕 그 우리 전형적인 공무원 두 사람 아닙니까.

정 영 학      네네네.

이 성 문      현덕이가 그러더라고. 12시까지 있었.. 야 그 왜 어제 이야기 안했냐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하아~ 12시, 11시든 그 사람 커피숍에 이한성이라도 있었겠죠. 그게 그 할, 그런 짓을 합니까. 아..

- 6 ○ 통화일시 : 2021. 4. 22. 11:21 (5분7초)  
○ 통 화 자 : 정영학, 이성문

이 성 문 가장 해법이 우리 FIU나 어디 위에 이야기해서 여기서 사건 덮는 거죠.

정 영 학 네..

이 성 문 아니, 덮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건이 안 덮여지면 수표 추적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 영 학 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이 성 문 아니 지금 이제 우리보고 소명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납득할 수 있으면 그냥 여기서 종결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경찰서 내에서 종결이지만, 위에 가서는 모르죠. 모르죠. 그거는 종결할지 안할지, 할 수도 있고, 한다는 전제 하에.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 영 학 네네. 그 그 그..

이 성 문 아니,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죠?  
수표추적 만약에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박현덕하고도 한참 이야기했어요. 야, 수표추적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경찰에 뭐라고 진술해야 되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 영 학 아니 그걸 안하겠습니까?

이 성 문 아니, 우리 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넘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면 6개월 후에 수표 추적한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달라질 게 뭔가요?

똑같지. 이성문이 여기와서 니 왜 거짓말했나 그것밖에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학 아..

이성문 뭐가 달라지는데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선배님 그러시더라고. '야, 보상금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수  
표 추적하면 다 밝혀지고 거짓말인 것 다 들통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수표추적이 전제 하에서 들통난다고 그러면 내가 돈을 40억, 50억  
썼다 하더라도 거짓말인 거 더 들통날 거고, 보상금 쓰더라도 들통날 거  
고, 선배님이 썼다는 이야기 그 부분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영학 네..

이성문 뭐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 대안이 뭐냐.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제가 또 어제 최 회장님한테 이야기  
해서 그렇지만.  
수표에 대한 용처가, 용처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수사 단서를 (...)

정영학 그게..

이성문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배님이 성남에서 수표를 안 썼을 거란 말  
이에요. 다만 서초동이나 아는 지인들 있잖아요. 우리 사업 비즈니스상  
관계없이. 그럴 때는 수표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영학 네네네네.

이성문 아무 대가 관계없이. 성남에서 썼을 리는 없겠죠. 이건 내 추측입니다.

정영학 대충 어디어디 쓰셨는지를 좀 이렇게 달라 하시면 안 되나요?

이성문 본인이 안 썼다는데요. 어제 뭐 한달에 5천. 5천 뭐. 한달에 5천. 한달에 1억 정도밖에 안 썼다는데. 5천도 안 썼다는데.

김민배. 나는 돈 쓴 적도 없고, 돈 출금내역도 잘 모르고, 박현덕이하고 이성문이 다 한 거 아니냐. 그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 해서 내역 주십시오, 내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오후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이 이야기를 할라고 그래요. 어차피 수표 추적하게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수표 추적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떤 이야기 할 수도 없다. 다만 추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보상금 썼다고 그러고 나중에 니 보상금 안 썼는데 그러면 그 거짓말은 거짓말했다는 게 내가 무슨 죄냐. 그건 죄는 아니잖아요.

정영학 네..

이성문 그렇게 가서 사건을 무마시키는 게 낫지, 계좌추적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배님이 이야기하시라고 해야 돼요.

내가 40억, 내가 40, 50 썼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표 추적하면 당연히 뽕통날 거 아닙니까.

정영학 그렇죠. 예.

이성문 수표 추적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해도 뽕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용산 쪽에 1차적으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진술하는 대안이.

그러면 선배님이 추적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건 다 해야 된다 하면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수표 갖고 간 분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다 해서 선배님은 어디 썼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기억도 못할뿐더러.

누수과

누수과

정영학 네..

이성문 어차피 마찬가지로. (끝)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누수과

1 ○ 통화일시 : 2021. 4. 21. 19:32 (9분18초)

○ 통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 김 만 배 대장프로젝트 금융투자는 무슨 회사지, 이게?

) 정 영 학 옛날 초창기에 했던 회사인데요.

) 김 만 배 어어.

정 영 학 이강길이 했다가, 김용철 했다가, 남욱이 했던 회사입니다.

김 만 배 아.. 그래.

정 영 학 네네.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김 만 배 음.. 이제 이 저 뭐야, 이 대표가 얘기할 건데, 심종진 상무가 공사에서 공문 받고 전화통화로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대충 얘기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발이 돼서 '제목: 부패신고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 해서, '수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왔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 쓰여 있지 않은 걸로 전화로 거기서 물어본 거는 이게 어떤 회사냐.

정 영 학 아.. 네네.

김 만 배 이 회사가 사업 시행자냐. 토지조서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대.

정 영 학 네네네정 영 학

김 만 배 그런데 이게 3월 29일날 공사에 수신이 된 거고, 그 전에 신고가 됐대.

정영학 네네네. 옛날 사업자이고, 솔직히 사업 그 각 토지에 대해서 그때 근저당 권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애들 협조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됐었다고 보입니다.

김만배 음. 그래.

) 정영학 옛날 사업자입니다. 예예.

) 김만배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이거는.

정영학 뭐 그 회사는 옛날에 다 조사도 받았고. 네. 하여튼 뭐 거기에서 문제 생길 거는.. 한번 다 정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김만배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100% 남옥이꺼지?

정영학 그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단 남 변호사꺼. 대부분이 남 변호사이고, 저도 좀 있었고요. 정재창이도 좀 있었고.

김만배 그러면 나중에 정재창이꺼 인수해서 내 앞으로 차명으로 했던 거는 어느 회사지?

정영학 그게 도시개발 DNP라는 회사입니다.

김만배 아,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회사지?

정영학 그건 폐업 됐습니다. 거기가 도시개발 DNP가 옛날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데요, 다 폐업하고 다 없어졌습니다.

김만배 음.. 그래. 그래

정영학 네네네. 다 폐업하고 없어졌고, 사실은 도시개발사업 그 기존 사업자하고 정리하지 않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미 대출 받아서 부도나 버린 현장이라 이 사업자들이 다 근저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달래주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를 끌어안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 만 배 음. 오케이.

정 영 학 네네, 형님.

김 만 배 오늘 나는 남욱이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영학이는 안 온다고 그랬대매?

정 영 학 하하. 그냥..

김 만 배 그래, 내가 둘이 만날게. 너 불편할 거야.

정 영 학 제가 남욱이 한번 잘못 봤다 90억이 날라갔는데. 하하하. 그냥.

김 만 배 근데 아무튼,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나는 남욱이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니까.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음. 그래.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김 만 배 남욱이 부분은 만나든 안 만나든 그런 건 알아서 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고.

정 영 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야 형님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해, 남욱이랑 뭐.  
근데 이 대장프로젝트 이거는 내가 하여튼간 남욱이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그럴테니까.

정 영 학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형님.  
네네.

김 만 배      그래. 뭐 하여튼간. 그 새끼 뭐 알아서 잘해라.

정 영 학      저는 그냥 가급적이면 아예 그냥 안 엮일려고.

김 만 배      맞아.

정 영 학      네네, 형님. 네네.

김 만 배      음. 내가 보니까 아직 재창이도 만나는 것 같고 그런데.

정 영 학      네.. 잘 알겠습니다. 형님 일 봐준다고 한번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김 만 배      내 일을 봐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거지 뭐. 동규,

정 영 학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구요, 원래 제가 모르는 일이고, 알아서 하라고.

김 만 배      그런 얘기 그래 하지 마. 왜냐면 지금 뭐 저..

정 영 학      네.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그걸 아는 분야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 만 배      그래. 그리고 알면 나중에 피곤해지는 거야. 그지?

정 영 학      제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모른다고.

김 만 배      응, 그래.

정 영 학      제가 모르는 일이니까 아예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두분이 합의해서 하시지, 저는 제가 뭐 아예 모르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

김 만 배      어떤 걸 물어본다고 그래?

정 영 학      사업에 대한 부분, 뭐 하여튼 뭐. 형님이 같이 만나자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 만 배      사업?

정 영 학      사업이 언제 끝나냐.

김 만 배      아니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결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영학이한테 물어봐라. 그런거지 뭘.

정 영 학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네네네.

김 만 배      응. 나는 너하고 개하고 엮지 않을라고 그래.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형님. 아유, 제가 한번..

김 만 배      그거는 엮으면 너는 손해야. 그다음에는 재창이 안 나타나겠냐. 남욱이

통해서 재창이 나타나지. 그래, 안 그래?

) 정영학 맞습니다. 네네.

) 김만배 응.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간 대응은 해라. 어떻게.

) 정영학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만배 나는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니까.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그지?

정영학 네네, 형님.

김만배 음. 김문기 처장이 그 전에 역할은 뭐 하고 이런 것까지 날라왔더라고. 밝히라고.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야. 성남판교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봤더라고. 위 사업 추진경과. 사업시행사 주식회사 성남의뜰 및 SPC 등의 회사개요. 그다음에, 귀 기관과의 관계. 성남의뜰 이사진 내역. 그다음에, 역대 귀 기관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 일처장 내역. 2016년부터. 이렇게 써있더라고.

정영학 네..

김만배 하여튼간 내가 볼 때는 간단치는 않아. 권익이라는 게 옛날에는 인권 그 것도 있지만, 부패를 신고하게 돼 있어서 거기서 각 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데야. 그러니까 나는 대장판교 모르니까.

정영학 네네네.

- 김 만 배 그지?
- 정 영 학 그.. 하여튼 형님, 대장판교가..
- 김 만 배 아니, 그거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형은 일체 모르잖아. 이게 뭔지.
- 정 영 학 네네네네.
- 김 만 배 그지?
- 정 영 학 네네네네.
- 김 만 배 응응. 뭐 대응해주고 싶어도 알아야지 대응을 해주지.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이성문 대표 연락 오면,
- 김 만 배 을거야. 이성문이가.
-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네네.
- 김 만 배 음음음.
- 정 영 학 네. 무슨 말씀이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대해서 연관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 김 만 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자기네가 보는데 이상한 회사인데. 응?
- 정 영 학 예..
- 김 만 배 여보세요?
-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자기네가 볼 때. 그러니까 성문이한테 들어. 법률적으로.

정 영 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김 만 배 응. 그런데 성문이는 법률가라기보다는 그냥 법률을, 형사적인 걸 잘 모르는 변호사더라고. 형이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잘 들어.

정 영 학 예예. 이야기하겠습니다.

김 만 배 음음.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 만 배 아니면은,

정 영 학 형님 스트레스이시겠네요.

김 만 배 아니야. 아니야.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아유. 다른 것 더 문제야.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네, 형님.

김 만 배 그래, 수고해~

정 영 학 통화 한번 해볼까요? 이성문 대표랑.

김 만 배 이성문이랑 지금 하면 회사에 있을 거야.

정영학 에.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심종진이랑 얘기하고 있을거야.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내가 전화해.

정영학 네네. 감사합니다. 네.

김만배 그래. 음.음.음.

정영학 네, 감사합니다. 네.

---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뉴타파

- 2           ○ 통화일시 : 2021. 4. 21. 20:33 (12분47초)  
              ○ 통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심종진 상무

정 영 학    예, 형님

김 만 배    응, 정 회계사.

정 영 학    예, 형님 네네.

김 만 배    응, 통화했어?

정 영 학    예, 통화했습니다 이성문 대표. 예, 예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김 만 배    내가 한 얘기 그대로 하지?

정 영 학    네네. 그 대장 PFV에 보상금은 어떻게 됐냐, 그거인거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대장 PFV 보상 들어가는 거는 울로 돈을 밖으로 흘려보낸게  
              아니라, 100% 예금보험공사로 다 반납이 됐을 겁니다.

김 만 배    응, 응, 응

정 영 학    네네네. 그래서 아마

김 만 배    형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야. 이성문이가 지금 너한테 한 얘기는

정 영 학    그거는 물어보- 제가 그래서 대장 PFV에 보상이 나갔으면,



- ) 김 만 배    응, 그 얘기를 누가 해? 이성문이냐?
- ) 정 영 학    이성문 대표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 ) 김 만 배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왜냐하면 공문이 오고, 공문이 온 다음에 오늘 그 공문은 저번에 왔는데 성문이가 나한테 보고를 안했던 거고, 나는 심종진이한테 들어서, 심종진이 얘기를 이성문이한테 했어.
- ) 정 영 학    저, 대장 PFV가 무슨 회사냐. 보상은 물어봐서,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고, 이 근저당권은 전부 예보 꺼기 때문에 몰로 간 돈은 100% 다 예보로 갚을 겁니다. 대장 PFV에 흘러간 돈은 제로입니다 제로. 100% 회수입니다.
- ) 김 만 배    그거를 저기, 이성문이냐..
- ) 정 영 학    알죠 인제 예, 예
- ) 김 만 배    대답을 했대? 그렇게
- ) 정 영 학    아니요, 그건. 그건 인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 김 만 배    그러면 자기가 이성문이한테 한 얘기지? 그거는
- ) 정 영 학    네네. 이성문 대표도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 ) 김 만 배    응, 응, 응.
- ) 정 영 학    그래서 뭐 대장 PFV의 건은 아마 그 얘기 흘러간 금액이 다 예보로 흘러간 것까지는 아직 몰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냐, 요렇게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서로 얘기는 했고요.
- ) 김 만 배    응~

정영학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거가, 현장에 보상비로 나갔던 게 좀 있으면 어떠냐 그래서, 아니 대표님, 시행사에서 토지 8천억씩 사는데 보통 무허가건축, 무허가 들어내고 뭐 이런것도 보통 일반 시행사는 나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는 신빙성이 실제 그렇게 나간게 있으면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뭐 종종 이야기도 있고.

김만배 그거는 인제 성문이가 다른 거를 물어보는 거고, 인제 대장프로젝트 이거는, 그러니까 성문이의 단점은 항상 사건을 명확하게, A에서부터 Z까지 보지 않고, A에서부터 B까지만 보는 단점이..

정영학 아..

김만배 응

정영학 그다음에 또 그것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땅을 전부 근저당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애들 협조 없이는 사업이 안됩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네네네네. 애들 우호적으로 아마 갔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김만배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해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권익이가 저기한테 물어봤지.

정영학 보상 쪽에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견이 보상 쪽에 PFV 보상을 했느냐 물어봤을 겁니다. 보상쪽에 인제 물어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상은 PFV에 보상금 수천억이 나간 거는 전부 예보로 100% 기성이니까

김만배 너한테 전달된게 또 틀려. 심중진이라고 지금까지 밥 먹으면서 한 얘기하

고.

정영학 아, 심종진이는 뭐라고 합니까.

김만배 형이 아까 전화한대로지. 뭘 뭐라 그래?

정영학 그냥, 이 회사는 뭐냐.

김만배 이 회사는 뭐냐 그러면서, 토지조서를 보고 있는데,

정영학 그렇죠 형님. 토지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김만배 토지조서는 그런데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본적이 없고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토지 세목조서를 봤겠지

정영학 형님, 토지세목 조서에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하면요, 토지세목 조서에는 1번 지번, 2번 용도, 3번 소유자, 4번 근저당권자 제한물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5번 뭐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김만배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물어봤대잖아 그렇게. 잠깐만. 끊지 말고 있어.

정영학 네네네네.

김만배 응.

정영학 네, 형님

김만배 잠깐만. 응~ 됐어.

정영학 예, 형님. 네네네네. 아니 아까 토지조서 이야기를 보면요 이게.

김만배 성문이는 아까 그리고 인제 뭐, 돈을 지주작업 하면서 뭐 썼냐 이거는,

정영학 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그거는 다른 수사 때문에 지가 쓴 돈 <sup>이거는</sup> 맞출려고 한거고

정영학 아..

김만배 형이랑 지가 쓴 돈.

정영학 그래서 원래 보통 형님 그냥 물어보길래, 저도 보통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일반 환지방식으로 하면요; 거기에 무허가

김만배 그런데 문제는 영학아. 너 대답을 잘 해줘야 돼.

정영학 예

김만배 현찰로 주면 상관 없어 그지? 현찰로 바꾼 흔적이 다 있으면.

정영학 아 네네네네.

김만배 만약에 110억을 썼어. 그런데 110억에 대한 현찰 변경기록이 다 있으면 상관없는데, 응?

정영학 네네네네

김만배 현찰은 한 40-50억 바꾸고,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래?

정영학 수표는 그걸 쓴 사람이 알겠죠.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형님, 저야 모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정 영 학 아. 수표를 그림 갖다 준사람, 쓴 사람이 알거 아닙니까.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형이 110억을 다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정 영 학 그거야 뭐..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그지?

정 영 학 그러면, 그러면 돈이 샌 건가요? 형님. 그건 아니실 거잖아요

김 만 배 모르지. 모르지. 뭐.

정 영 학 아

김 만 배 그러다가 저게 그리로 다 들어갔다 그러면.. 응?

정 영 학 수표야 형님, 요즘은

김 만 배 수표가 이상한 데서 나오면 어떻게 할거야?

정 영 학 수표 요즘은 수표. 아 설마. 그럴까요? 그거야 뭐 변호사인데

김 만 배    아니 만약에 대장동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표추적을 다 해냈는데,  
아 여보세요 이거, 대장동에 들어갔다더니 이상한데서 나오는데.. 그거 무슨  
해명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

정 영 학    아니 그거야 형님, 저야 잘 뭐 그냥, 시행사에서 돈이 이렇게 보상비로 쓰이는게 어때요? 그래서, 세입자들 나와서 데모하고 하면 뭐 합니다. 그런거는 있고.

김 만 배    아니, 주는데.

정 영 학    예. 수표를 줬으면, 그분들한테 수표를 줬겠죠.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인제 돈을 영동한테다 쓰고, 그 사람들 줬다 그러면,

정 영 학    그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김 만 배    현찰로 줬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응? 수표-

정 영 학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김 만 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라고.

정 영 학    아니 뭐 그거야 뭐. 봐서..

김 만 배    그런거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영학 네.

김만배 잠깐만. 내가 저기 그 심종진 상무 바꿔줄게.

정영학 네네네

김만배 심 상무. 정영학 회계사야. 한번 통화해봐 오늘 내용.

심종진 아, 여보세요?

정영학 아 예. 잘 지내-

심종진 아 예

정영학 예, 고생이 많으시죠? 네네

심종진 아니요, 아니요, 고생하는 거 없습니다.

정영학 네네. 아마 그 보통 토지조서에, 아마 근저당권자 제한물건에 그게 쪽 올라가 있어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심종진 예, 저도 뭐 공사에서 조사관한테 그 얘기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영학 토지조서 근저당권자인 건지 아니면 뭐, 이 회사를 어디서 파악해서 왜 물어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심종진 예, 그러니까 그 조사관 말이 자기가 지금 우리 토지조서를 보고 있다

정영학 아 그러면 토지조서에, 보통 토지조서 그-

심 종 진 아니, 저는 다 알아요.

정 영 학 그렇죠. 거기 PFV 쪽 들어가 있고 그러면 돈이

심 종 진 예, 그러니까는 토지조서를 보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많아 보인다.

정 영 학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모든 토지에 이 사람이 다 근질권이 돼 있으니까요

심 종 진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 대장프로젝트 금융투자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 그리고 이게 시행사냐, 시행자냐- 그리고 앞으로

) 정 영 학 네네. 예보. 예보죠 예보. 예보로 이게 저축은행에 돈을

) 심 종 진 예, 예 아니 그러니까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고 공사쪽 담당자한테. 그리고 관계인이라는 건 뭐냐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관계인이라는 거는 그 공사 실무자도 대충은 아니까는 얘기를 한 거고,

) 정 영 학 네네

심 종 진 그래서 인제 제가 봤을 때는 토지조서를 본 게 아니라, 토지세목고시를 본 거예요. 토지조서는 제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영 학 네네

심 종 진 세목고시는 당연히 그게 판교 PFV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 명단에 꼭 들어가 있는거고

정 영 학 그렇죠, 그렇죠.



심 종 진 그다음에 판교 PFV가 지분 같은 걸 취득한 다음에 지분 남겨놓으면서 가등기권자로 돼 있거든요. 가등기자도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돼서 한거고

정 영 학 관계자인. 이거는 나중에 예보가 다 가져간 회사입니다

심 종 진 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상관계로 하면 이게 판교 PFV가

정 영 학 설명은 아주 심플하죠.

심 종 진 예, 설명은 간단하죠 저희도

정 영 학 예. 아니 예금보험공사가 다 경영권이랑 다 갖고 가갖고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돈 회수하려고 돈 넣었다가 다 뺏기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 합니다

) 심 종 진 그렇죠 예, 예. 만약에 단순한 보상투기조사라면 저희들은 뭐 클리어 한 거고요

정 영 학 네네네네. 그렇게 이걸 다 예보 꺼다. 예

심 종 진 예, 예

정 영 학 네네.

심 종 진 그리고 실지로, 실지로

정 영 학 100% 그 돈을 빼먹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중간에

심 종 진 그렇죠. 실지로 그 예보 담당자가 나와 있었고

정 영 학 네네네네

심 종 진 아마 보상을 집행도 예보 쪽으로 다 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 영 학 네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심 종 진 예

정 영 학 그거 뭐 그 문제 한번, 그것 그게 아마 세목고시에서 관계인으로 난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된다- 아 이게 예보가 자기네 대출금 회수하던 회사고. 이거 예보가 경영권을 취득한 회사라서 보상금 들어갔다가 100% 예보가 다 회수했습니다, 그게 답이죠 뭐.

심 종 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파산관제인으로 와 있었으니까

정 영 학 그렇죠, 그렇죠

심 종 진 저희들 그러니까, 보상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클리어합니다 저희도.

정 영 학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심 종 진 예, 알겠습니다

정 영 학 그럼, 그런 목적으로 하셔서, 회장님 계시면 좀-

심 종 진 예.

김 만 배 그래, 정 회계사.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응

정영학 아까 심 상무님 얘기 들어보면, 세목고시 보고 이야기를 한 거라면, 그게 쪽 나열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사실 예보가 이미, 사고난 현장 예보가 가지고 가서 자기네 채권회수 차원에서 전부 파산관재인이 나와서 돈 다 회수해 갔다면은 아주 심플할 것 같긴 합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 오케이 알았어. 쉬어.

정영학 네네 형님. 네네. 고생하십시오.

김만배 그리고 저기 뭐야

정영학 네네

) 김만배 나는 남 변호사 좀 만나보고 갈게.

) 정영학 예, 고생하십시오 형님

) 김만배 무슨 얘기하나 좀 들어볼게.

) 정영학 아, 저는 뭐.. 죄송합니다

) 김만배 나는 뭐 뻔하지 뭐. 만나자는 얘기겠지.

) 정영학 네네네네

김만배 개 뒤에 정재창이 있는 거 아니야?

정영학 어..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김만배 그러니까 추측은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니 판단대로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애.

정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배 응, 그래. 수고.

정영학 네네 형님, 네네. 감사합니다.

김만배 응. (끝)

○ 통화일시 : 2021. 4. 22. 14:31 (13분40초)

○ 통 화 자 : 정영학, 김만배

김 만 배      응. 그리고 니가 무슨 얘기를 영학이한테 할지 모르겠지만, 영학이가 거절하면 더 이상 그만 얘기해. 개가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는, 합리적이려면 받아들이겠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는 안 받아들일 거 아냐. 그러면 니가 자꾸 개한테 뭐라고 그러면 세명이 서로 공동 공조전선에만 이상이 생기는 거고. 그래, 안 그러냐. 그랬더니 이해하고 갔어.

정 영 학      예.. 아이고, 형님이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뭘 고생을 해.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했지.

정 영 학      저기를 또 왜 들이대려고.

김 만 배      누구? 어떤 거?

정 영 학      재창이를.

김 만 배      아니, 내가 보니까 매일 만나나봐.

정 영 학      예.. 상관은 없는데요 뭐.

김 만 배      그러면서 뭐.. 그래, 상관은 없어.  
그러면서 인제 뭐, 남양주가 어떻게 저떻고 그래서, 형한테 얘기하지 마.

정 영 학      허허. 그건 뭐 자기네가 떨어진 걸 갖고 왜..

김 만 배      그래. 니네들이.. 내가 그랬어. 니네 실력 부족이지.  
더선이었다고 그래서, 알고 있었어. 더담에 더에, 화천대유에 화 해서 이 새끼야 더 써낸 거잖아. 응? 내가. 내가 딱 짐작했어 임마.

그랬더니, 맞습니다 형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짐작했지.

정영학 회사가 더썬입니까?

김만배 아, 더썬이지.

그러면서 뭐 너랑 유한기랑 재창이가 3인이 만나서 공모한 얘기서부터 다 얘기해.

야, 이제 형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형은 지금도 머리가 아프다. 수사 받고 있고, 돈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준공은 닥치고. 그러니까 형한테 얘기하지마라. 힘이 안 나서 B1 때문에 부도날 뻔 했는데 대표라는 새끼는 그 허가 떨어진다고 장담만 하고 있다가 큰일날뻔 해서 회사가 총력해서 20일 안 되는걸 각오해서 모든 걸 해냈고 다 썼다. 이성문이 이 새끼 미친새끼야 이게. 내가 기분 나쁜 얘기는 안했는데.

) 정영학 네네네네.

) 김만배 아주 진짜 애들한테 불 낮이 없을거야.

) 정영학 아! 늦어가지고 고생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김만배 음. 아니 이 새끼 무조건 된대. 이 미친 새끼.

정영학 그걸 다 메꾸시긴 한 거죠?

김만배 다 했지 뭘.

정영학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김만배 다 했지.

정영학 네네네.

김 만 배 나는 참 그, 그 새끼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참..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는 이번달 말까지 돈을 달라 하더라고요.

김 만 배 어디?

정 영 학 재창이는.

김 만 배 재창이가 너한테 연락이 왔어?

) 정 영 학 직원 시켜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 김 만 배 음음음.

) 정 영 학 아니 그렇게 받아갈 거면서.

) 김 만 배 어,어.

) 정 영 학 아이 참.

김 만 배 근데 왜 그렇게 될 저기 해. 하여튼간 근데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옥이한테. 너는 재창이 편들지 마. 왜냐면 결국은  
개는 돈이고. 개가 리스크를 같이 안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너 물어보  
자, 내가 그랬어. 어제 1시까지 얘기했거든.

정 영 학 네네네.

) 김 만 배 리스크 누가 관리할 거냐, 내가 그랬어.  
리스크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응? 리스크 너랑 나랑 영학이가 관리  
해야지, 재창이가 리스크에 책임이 있냐, 관리할 의미가 있냐. 능력이 있  
냐. 의욕이 있냐. 그러니까 개 편들지 마. 그리고 개가 무슨 얘기를 하더  
라도 너는 영학이 편들면서 해야지. 내가 그랬어.

정영학 네에..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래서 B1은 종길이 전권을 주기로 했어.  
이성문이 손 떼라고 그랬어. 내가.

정영학 아 예예예.

김만배 음. 큰일날 뻔 했어.

정영학 그렇게 하십시오. 예예.

김만배 한국감정원 이런 거 외부, 심 상무 도움 없었으면.  
그래서 어차피 20일날 안 되는 거 예상하고,

정영학 네. 준비하셨네요?

김만배 응. 다 했지.

정영학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음, 음.

정영학 쇼티지 난 거는 메꾸신 거네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김만배 빌려왔지.

정영학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나중에 저기를 해서.

정영학 아이고. 그럼 수수료 많이 나가셨겠네요.



김 만 배 수수료만이 아니라 나중에 수익을 담보로 뭘 주기로 했지. 비밀리에.

정 영 학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회사에 돈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 영 학 예예예.

김 만 배 음음음. SK증권에서도 빌려오고, 또 다른 기업에서도 빌려오고.

정 영 학 네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개는 돈을 쥐도 그렇게 만족하는 게 전혀 없네요. 고마운 것도 없  
고.

김 만 배 재창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니 탓이야.

정 영 학 저는 뭐 그렇게 오픈한 게 없는데.

김 만 배 음, 그래. 근데 내가 그래서 어제 솔직히 물어봤어, 남욱이한테.  
재창이가 니가 얘기해준 거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뭘 아냐. 너지.

정 영 학 그렇죠.

김 만 배 그럼! 아니에요, 형. 영학이 형이 3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얘기한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영학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저는 항상 커팅을 했는데요. 너는 여기 집 받아가면 안 된다.

김만배 음. 근데 내가 볼 때는 옥이야. 옥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셋 중에서 너뿐이 없어' 내가 그랬어.

정영학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그러니까 개가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일관되게 너는 중심을 유지해.  
그러면 형이 정리할 테니까.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뭘 요구를 한다 하던가요?

김만배 아니 인제 세금 불만이지 뭐. 세금. 세금 불만이지.

) 정영학 그거야 뭐 어떻게..

) 김만배 근데 하여튼간 형이 볼 때는 둘이 만나든 뭐하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셋이 만났을 때는 이상없을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미 많이 정리를 했어.

정영학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나는 개의 의도를 알아. 의도.

정영학 비용 적게 내고 싶은 거죠.

김만배 그렇지.

정영학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김 만 배

다른 거 뭐 있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한번은 니가 그런 생각 있으면  
정중하게 서로 물어봐라. 예의를 갖춰서. 파트너로서. 근데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미 망해의 소득이 있잖냐. 저게 가면 결국은  
개가 찾아가겠니? 니꺼가 되지. 내가 그랬어. 응?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러면 됐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 맞대 그거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결을 해. 왜 파트너끼리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 방  
어전선에 리스크 관리에 위협을 초래하려고 하나. 내가 그랬지.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응. 그리고 어제,

정 영 학

아니 왜냐면 지는 지분을, 재창이가 지가 지분을 거기꺼를 지가 팔고 지  
가 지분을 많이 받아갔는데 왜 제가 재창이꺼를 부담을 합니까. 그건 말  
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김 만 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니가 너는 명확하게 니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그리고 뭐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건 니 자유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그리고 그 어제 대장 무슨 그것도 얘기해줬고. 응?

정 영 학

네네네.

김 만 배      응. 그랬더니 뭐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정 영 학      네네네. 어제.. 예. 아마 파산관재인 나와서 돈 다 회수해가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쪽은.

김 만 배      응. 그래. 너 이미 보고 받은 거 아냐? 그 저기한테. 성문이한테. 그지?

정 영 학      네네네. 어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김 만 배      어제 들은 거야? 아니면 그 전에 들은 거야?

정 영 학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김 만 배      어제?

정 영 학      네네.

김 만 배      아, 그 전에 한 거 아냐?

정 영 학      어디 말입니까?

김 만 배      그 저기. 그, 어제 내가 얘기해준 거.

정 영 학      아. 그 PFV요?

김 만 배      관교. 응, PFV.

ㄱ 정 영 학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ㄱ 김 만 배      어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으응.. 며칠 전에 뭐 저기했다고 그러더니. 일주일인가 언제.

정 영 학 아, 판교 PFV 그 근저당 말입니까?

김 만 배 아니 근저당이 아니라 저 그..

정 영 학 아, 용산?

김 만 배 용산이 아니라 저기. 그 성문이한테 들은 얘기. 국민권익위.

정 영 학 아. 그거는.. 네네네. 그거는 어제 처음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김 만 배 어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 전에 한 게 아니라? 성문이가.

정 영 학 권익위 이야기는 많이 안했었는데요. 거의 뭐.

김 만 배 아니, 공사에 권익위에서 공문 보낸 얘기.

정 영 학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김 만 배 어제?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아니 그러면 그 새끼 왜 어제 얘기해.

정 영 학 아.. 오래 전에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어제 이야기 들은 걸로는 뭐..

김 만 배      내가 해준 거야? 아니면 성문이가 해준 거야?

정 영 학      형님 먼저 이야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전화가 왔는데요. 끊자마자.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그 새끼 웃긴 새끼구나. 그거.  
아니 그런 거를 너한테 얘기 미리 해야지.

) 정 영 학      아.. 예.

) 김 만 배      요번에 회사 좇 될뻔 했어. 부도날뻔 했어.

) 정 영 학      예.. 아이구, B1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내가 진짜 꽤 죽이고 싶은데. 내가 언성도 안 높였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시에서는 인허가가 절대 안 된다는데, 끝까지 된다는 거야. 이 새끼.

정 영 학      아..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시청을 한 여섯 번 갔어. 그 이후에. 한 15일 상간으로.

정 영 학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김 만 배      응. 절대 안 된다는데. 왜냐면 외부일정이 있고, 자기네가 처리하고.  
그리고 설계사가 너무 제도력이 부족하대.

정영학 아! 이번에 기안에서요?

김만배 응응. 왜냐면 그런 그거는 떠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왜 그런 새끼를 붙이는지 모르겠어.

정영학 뭐 그래도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김만배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진짜 많다. 마감 전날 한국감정원에 서류 보내고. 12시에 밤에 그것도. 못 보냈으면 큰일날뻔 했고.

정영학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그런데 그것도 나한테 얘기 안하고 지네들끼리 몰래 하고. 저거 안 됐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 부도나고.

정영학 그냥 연체조 뭐.

김만배 기안은 반납하고. 응? 이병식 부장은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고. 응? 그리고 공사에서 이사회 조건에,

정영학 안됐으면 연장 안됐으면 뭐..

김만배 그거 회수지 뭐. 회수.

정영학 중도금 납부가 돼 있어서 그냥 뭐..

김만배 아니, 안된대 그것도. 그러니까,

정영학 아이고, 고생하셨겠습니다.

김만배 음음. 너도 이 새끼야 뭘 열심히 말아준다더니 뭐 어떻게 된거야? 하나도

뭘든

안하고.

정영학 아, 저 말입니까?

김만배 응.

정영학 아유, 그 그 그냥, 말는다가 아니고, 저는 그냥 요즘 옆구리가 안 좋습니다.

김만배 너만 믿고 있다가 좇될뻔 했어.

정영학 형님, 저는 처음부터 제가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옆구리가 안 좋습니다.

김만배 그래 알았어.

정영학 형님도 너무 밤에 늦게까지 고민하지 마시구요.

김만배 아니 고민 안해. 형은 이거 일을 정리하는 거니까.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김만배 그러니까 정리 차원. 이거 누구 정리하냐 그리고.  
그리고 저 수표 쓴 거, 저거 다 어떻게 할거야.  
아무리 형이 많이 썼어도 저만큼 썼냐. 130억까지. 120억 가까이.

정영학 아. 큰일입니다.

김만배 아니, 형이 아무리 썼다 하더라도, 아무리 계산해도 5,60억, 70억 그래  
그렇게 한다 해.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이거지. 응?  
개인통장이니까 옛날에 볼 수 있어, 뭘 해?



정영학 저야 모르죠.

김만배 그래, 너도 모르고. 개인통장이니까.  
알았어. 얼른.. 이런 얘기 개한테 하지 말고.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 안합니다.

김만배 그래 그래. 수고해~

정영학 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만배 음음음.

정영학 네. (끝)

- 1           ○ 통화일시 : 2021. 4. 22. 20:05 (4분1초)  
              ○ 통 화 자 : 정영학, 이성문

이 성 문       만회해서 합리적으로 변소 할 수 있는 걸 논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 영 학       네네네. 음..

이 성 문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다른 건 안하고. 근데 제가 아.. 이 이런..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뭐랄까. 이게 자꾸 뭐랄까. 그런데 느낌이 이  
                  거 뭐라고.. 이게 아구가 좀 맞아야 되는데.

정 영 학       그렇죠.

이 성 문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 영 학       아까 낮에 통화는 낮에 형님이 전화를 한 4시? 아, 2시 3시 사이에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이 성 문       왜 하셨던가요?

정 영 학       어제 남 변호사 만나서 1시 반까지 있었고.

이 성 문       남 변호사. 9시에 만나서 1시 반까지면 4시간 반 동안 무슨 이야기하셨답  
                  니까. 하하. 아..

정 영 학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뭐 쪽 이야기하셨다 하고.  
                  본인 형님은 돈 쓴 게 별로 안 된, 자기는 별로 안 썼다.

이 성 문       그걸 누가 썼다고 그래요?

정영학 모르겠습니다.  
 이성문 <sup>가장 많이</sup> <sup>이성문</sup> 형님은 나하고 박현덕이라고 이한성 상무 있으면 '야, <sup>가장 많이</sup> 나는 한달에 5천 정도밖에 안 썼는데'

정영학 그 이야기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5천씩 썼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성문 누가 썼어요.

정영학 그래서 그.. 아니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안했습니다.

이성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영학 제가 뭐.. 대표님, 제가..

이성문 그런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야아~ 참.

정영학 제가 그래서 그냥 그.. 퍼펙트하게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더라도, 가장 진실에 가깝게 밝혀집니다. 그 하여튼 그 이야기 한참..

이성문 저는 요즘 제가 회계사님 말씀 듣고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70 정도 썼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밝혀진다 그러니까, 회계사님이 그랬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 안 맞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정영학 예예예.

이성문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할까, 진술서에. 보상금으로 한 30,40 썼고,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이리저리 빌려주기도 하고, 돈도 떼이기도 하고, 내가 이리저리 썼다. 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회계사님하고 아까 통화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정영학 그냥,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시행사에서 보상할 때 뭐 이렇게  
푼돈 이렇게 돈은 나갈 수 있습니다. 보상액이 수천억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냥 뭐 대표님도 다니다보면 업무상 그냥 이렇게 뭐.. 그런데  
그게 금액이 너무 크죠.

이성문 참! 차암~~! 아니 저는 진술서에 그렇게 쓸라고 그래요.  
선배님한테 어디 썼냐 안 썼냐 아니고, 선배님 그냥 보상금 몇십억 하고,  
나머지 돈은 내가 이리저리 썼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은 아니고, 내일 박현덕한테 이제 월, 연간 자금 쓴 내역들을 내일은  
내가 오늘 저녁까지 다 정리를 하니까 내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썼다고 그렇게 할라고 그래요.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A라는 용도, B라는 용도 그렇게 쓸 수도..

---

2 ○ 통화일시 : 2021. 4. 22. 20:11 (20분54초)

○ 통화자 : 정영학, 이성문

이성문 내가 안썼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 내가 김만배 회장님 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영학 네..

이성문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리고 저한테 법적인 책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화천대유만 문제가 되잖아요.

정영학 네네.

이성문 화천대유에서 가지급도 다 갚았죠.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빌려서 회사 이  
자 다 냈죠. 다만 그 자금출처가 공무원들에게 갔거나, 공적 신분에 있는  
사람에 갔느냐 안 갔느냐만, 그 법적인 책임을 거기만 하는 거예요.

정영학 대표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표님이 가지급 다 갚다 썼어요.

이성문 예.

정영학 연말에 대표님한테 달려있으면 괜찮아요. 대표님이 상여 받아서 갚았으면  
당연히 클리어해요. 그게 통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대주주가 다 갚아줬어  
요.

이성문 아 그건 안 믿겠죠, 당연히. 아니, 당연히 안 믿겠죠.

정영학 지나가는 소도 웃겠죠, 이게.

이성문 아니 잠깐만. 아니,

정영학 아니 아무, 대표이사가 니 마음대로 쓴 돈을 대주주가 그냥 갚아줘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성문 아니, 안 믿겠죠. 안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최소한 우리가 5월 4일  
까지 제출해야 되고, 5월 4일에서 연기하더라도 1주일, 10일이고, 늦어도  
5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가 최선의 길이에요.  
세무조사 나오고 수표 추적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거는 누구라도 책임  
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수표추적 나오면.

정영학 저는 조금이라도 형님이 내용이 있으시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실에  
조금 근접해서 소명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하거든요. 나 몰라라가  
아니라.

이성문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최소한 물어볼 겁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그 용도에 대해서만. 그죠? 그거 플  
러스해서.

정영학 네네네. 그걸 스스로 형님이 이러 이런 용도도 있고, 이걸 니네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뭐..

이성문 그러면 <sup>김영배</sup> 한달에 5천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는 이성문이라고 박현덕이가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

정영학 하하하. 대표님.

이성문 그런데 이제,

정영학 대한민국이 주변에서 다 그렇게 욕을 해도, 아니 대표님 소주 드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성 문      하하. 하하하.

정 영 학      술 좋아해서 맨날 어디, 진짜 어디 강남에서 분 냄새 맡으러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밥집에서 소주 한잔 하시는 게 낙인 분인데, 대표님이 쓰셔야 뭐 얼마 쓰셨겠어요. 그걸로.

이 성 문      박현덕이가 그러잖아요. 돈을 내가 30억, 40억 썼으면.. 사실 나도 옛날에 뭐 돈도 벌고 까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큰 수입이 없어. 공식적인 월급밖에 없잖아요.

정 영 학      네네네.

이 성 문      일부 뭐 가지급, 가불 좀 받아서 그것도 뭐 다른 거 뭐 내 우리 뭐, 다른 우리 형제들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급여날이 20일입니다. 내 연봉이 1억5천이예요. 실수령이 1억5천이니까, 실수령액이 천백만원이예요. 내가 박현덕이한테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4월, 이번에도 그랬어요. 4월 한 10일 됐는데, 야 박이사 빨리 5백 보내라. 급여를 빨리 5백 보내. 그거는 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정 영 학      대표님, 대표님 드셔봤자 소주 드시는데. 날마다 강남 룸싸롱 사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또 인제 이게 인제 남 눈 몰래 1년은 속일 수 있어요. 7년은 못 속여요. 그러시잖아요.

이 성 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 영 학      그런데 대표님이 뭐 우와 뭐 연간 수십억씩.. 저는 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성 문      안 맞더라도 일단 변수는 일단 그렇게 선배님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해볼까 싶어요. 하지마라 그러면 또 안해야죠. 그래 두루뭉술하게 진짜 넘어가보고. 그런데 수표 추적이 되고 계좌추적 되면 그거야 뭐 증거가 확실하

니까 어쩔 수 없죠.

정영학 제 생각에 그냥 좀 있으면 밝혀질 건데.

이성문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우리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 추적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정영학 네네네네.

이성문 나는 그 이야기까지 할 거예요.

정영학 그거를 지금 남욱이가 자기 아는 그쪽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남욱이가 도와준다. 박현덕 이야기가.

이성문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남욱이 이야기, 남 변호사 만났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안하시던데.

정영학 대표님, 4시간 반씩 회의하면 그런 내용이겠죠. 개가 뭐가 좋다고 보겠습니까.

이성문 아이구, 4시간 반 동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정영학 제가 봐도..

이성문 그런데 회계사님, 요건 다른 관점이지만, 선배님하고 어제도 몇 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선배님하고 1:1로 만나시고요, 남 변호사하고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정영학 제가 그쪽에서 사정사정을 해도 안됩니다.



이 성 문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러면 더 이상한 일 벌어질 것 같고요.

정 영 학 네네네네. 그다음에 남 변호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제도 지도 급해요. 지도 난리일 거예요. 가지급도 많고 막 복잡할 텐데. 지난번에 세금 많이 냈다고 이날 평생 세무대리인 욕을 하잖아요. 돈은 지가 빼놓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친구 세금 일을 해줬다가는 큰일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이 성 문 아니요. 만나지 마십시오. 우리 뭐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말라고. 그리고 남 변호사 만나지 마세요.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 성 문 일단 그렇게 정리해 보고요. 이것도 제 팔자죠 뭐.

정 영 학 참. 참. 형님한테도 아이구, 형님, 이 대표 소주 먹고 다니는데 그 돈을 썼겠습니까.

이 성 문 하하하하~

정 영 학 제가 그냥 형님 그 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한번 돈 많이 쓰는 사람, 아닌 사람, 형님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성 문 아유 아유, 논할 필요 없어. 논할 필요.

정 영 학 아니 그냥 그랬더니 뭐 뭐..

이 성 문 뭐, 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람이 이제 핑계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대표로서 핑계 안 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이한성하고 박현덕이 있을 때도 '화천대유는 내가 끊어가야 되고, 천화동인은 이한성 상무가 끊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정영학 그걸 어떻게 끊어갑니까? 이한성 대표가. 이한성.

이성문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영학 거기는 그나마 대표님은 상환이라도 했잖아요. 천화동인1호는 상환도 안돼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430억 대여금 달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버틸려고요?

이성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나 하면,

정영학 그럼 결국은 이한성이 제가 했어요, 제가 책임지고 했어요.. 아이고, 절대 못합니다.

이성문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때 김 선배님 계좌로 다 이체됐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화천대유는 이성문 통장으로 이체됐지만, 여기는 우리 김 선배님 통장으로 이체됐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한성 그거는 아니더라고. 내가 잘못 알고 알았어요.

정영학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성문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변명을 못하든 김 선배님이 변명을 못하든 어차피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여기서 내 손으로 끊어 가야죠.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것도 제 팔자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믿든 안믿든 간에 회계사님 그러면 용산에서 진술할 때, 내가 안썼고 우리 김 회장님, 김모 회장님이 다 했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 마주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게 내가 최소한 법적인 문제도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영학 저는 그냥 대표님 판단대로 하시고,

이성문 예.

정영학 저는 여태까지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 큰 시행사들 많이 봐왔는데요.

이성문 세무조사 당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봐오셨죠.

정영학 형사책임을 대신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하하.

이성문 아니 아니, 형사책임..

정영학 부모 형제간에도 안집니다, 서로.

이성문 아니, 형사책임 제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영학 네네. 그걸 생각을 하시는 게. 형사책임은 부모 것도 안 져주는 세상인데.

이성문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니까요. 우리 화천은 세무의 문제지, 형사적인 책임은 없어요.

정영학 화천에 세금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성문 조세포탈 없어요. 어떤 조세 포탈입니까. 조세포탈 없다니까요.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이성문 그러니까 현금 줬다고 조세포탈이 아니고, 조세포탈은 없어요. 그 부분은 세무조사 박현덕 이사가 대비 다 한 거고, 다 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수표 추적했을 때 그거는 이제 결국 계좌추적 하잖아요.

정영학 대표님, 화천은 제가 용역하지 말라는 거 많이 했기 때문에 다 그거 좀 걱정이예요.

이성문 예를 들면 뭐죠?

정영학 실제 용역 안했는데 용역 했다고 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성문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정영학 그건 저희가 모르죠. 뭐가 있는지. 저희가 장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성문 아유, 용역, 가라용역 없어요.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없으면 됐고요.

이성문 전혀 없어요. 그 꺼리가 없어요.

정영학 그 박현덕이나 김선오 부장이 장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안 보여준지.

이성문 아니 그거는 없어요.

정영학 내역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성문 그거는 회장님이 알려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정영학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저희가 뭘 압니까. 있는지 없는지.

이성문 가라 용역은 없고요. 가라용역 없어요.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이 성 문 정일천 사장 이런 것도 근거 다 있고요, 내가 회의록 다 있고.  
그거 그때부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메모 다 한 게 있고, 다 정리해놨고,  
노프라블럼이고.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이 성 문 다만 저는 딱 하나 걱정입니다. 수표가 어디로 갔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정 영 학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걱정 안해도 된다 하시면 편할 텐데.

이 성 문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제. 어제죠.  
수표가 가야 될 사람한테 안 가고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문제가 되면, 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걱정입니까 하니까, 야 그게 아니고 소명  
못하면 수사의 단초가 된다.

정 영 학 뭐 소리입니까 그게.

이 성 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왜냐면 수표가 많이 갔다 그러면,  
꼭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거 걱정이지. 뭐 수표를 술집에 줬고 뭐, 어디 뭐 건설업자한테 줬  
다고.. 개들한테..

정 영 학 뭐 상관입니까 그게.

이 성 문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죠.

정 영 학 그거를 잘못 답변하면, 그걸 할 테니까 답변 잘해라.. 이걸 황당한 거잖아  
요.

이 성 문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들면 이거죠. 수표 추적하면 다 나오니까 답변  
잘하라고. 아니 그러면 수표로 간 사람한테, 수표로 가더라도 예를 들면

회계법인 가고 변호사사무실 가고 민간 사업자한테 가게 되면 수표가 100억 가든 1억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영학: 뭐 상관입니까. 뭐 상관이에요. 돈 빼먹어서.. 시행사 보통 사장들이 돈 빼갖고 집 사고 뭐하고, 나중에 집 다시 처리를 못했습니다 값은 거 이런 건 문제 안 삼습니다.

이성문: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인 거죠. 그게.

정영학: 세금의 문제일 뿐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몰랐습니다, 절차를 몰랐습니다, 뭐 요 정도면 될 일인데. 저는 하여튼 뭐..

이성문: 그런데 그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정영학: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니까요.

이성문: 와아~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제출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형사 책임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없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내가 썼다 하더라도 수표 추적해서 내가 쓴 게, 쓴 걸로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썼는데. 그러기 때문에 관계없어.

정영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성문: 관계없습니다.

정영학: 그렇죠. 그분들은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 모르는 사람 이름을 어떻게 대요?

이성문: 예를 들면, 홍길동이 수표를 받아서 내가 썼다 그러면, 홍길동이 이성문 아냐?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홍길동이를 건네 건네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성문이라는 나를 모를 거 아니에요?

정영학 그렇죠.

이성문 하하하.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국세청 차원에서 조사가 아니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한다고 그러면, 월급쟁이 사장을, 진짜 바지사장을, 아무 주식 1퍼센트 없는 사장이 돈을 막 5억, 10억도 아니고, 50억을 썼다. 누가 믿겠냐고요? 안 믿습니다, 그게.

정영학 대표님, 실질 주주란,

이성문 안 믿어요.

정영학 일단 뭐 쪽 나오잖아요. 뭐 하여튼 뭐,

이성문 안 믿습니다.

정영학 일단 빵 프로인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이성문 그러니까 저는 형사책임, 책임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서 형사적인 책임을 수사관이 묻는다 하더라도 내가 다 변소 할 자신이 있으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계사님, 이렇잖아요. 여기 와서 내가 안 썼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일단 화천 차원에서 내가 내 선에서 막아야 되고, 그게 안 막아진다면 그러면 그거야 뭐 내 불가항력이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정영학 괜히 또 이번, 솔직히 B1 잘 해놓고도 진짜 독박을 쓰신 거잖아요.

이성문 아니 아니, 오늘 5시 반에 그러더라고. '야 이 대표, 내가 김종길한테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B1은 김종길이가 다 책임지고 하고, 양 전무하고 혹시 모르면 서포트하고, 이 대표는 그냥 혹시 결재 있으면 결재만 해라'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B1에 대한 역할은 제 역할은 다 끝났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김종길 부장보고 혼자 다 알아서 판단 다 해라 했습니다. 오히려

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정영학 예..

이성문 아니 저는 내가 아까 끊고 와가지고 그때 갑니다 라고 현장 들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역시 B1에 대해서 난 역할이 여기까지가 맞다.

정영학 대표님, 무능력한 놈들이에요. 대표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1 400억, 300억 결손 한다고 지 입으로 떠들었던 애들이에요. 거기다 뭘 일을 맡깁니까. 아유.

이성문 아니 이제 절차적인 거니까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절차적인 거니까.

정영학 아니 김종길이 저 회의할 때 옛날에 제가 옆에서 들었지 없습니까. 300억 적자 난다는 사람인데.

이성문 아니, 회장님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 제가 편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잘 됐다 싶더라고. 아니, 회계사님, 이거 내가 괜히 하는 소리예요? 아, 그거 잘 됐구나. 됐다 이제. 이제는 B1에 대해서.. B1은 이제 사업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적자사업은 아니잖아요.

정영학 그렇죠.

이성문 우리 투입비 다, 이쪽에 다 회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1억 버느냐 5백억 버느냐 문제지.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요.

정영학 아니면 정 자신 없으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권이나 준공되고 팔아도 되고요.

이성문 아니요. 분양해서 돈 버는데 왜..



정영학 아니, 자신이 없다 하면. 직원들 엄청 보수적으로 자신없이 하잖아요.

이성문 글썄, 모르겠습니다.

정영학 네네. 아유, 진짜 저는..

이성문 아니, 회계사님.

정영학 B1에 대해서는 할 말 많습니다, 저도. 그 욕을 먹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  
에.

이성문 아니요. 그것도..

정영학 대표님한테 뭐라 하시잖아요.

이성문 아니, 제 운명이에요. 제 운명.

정영학 저한테는 대표님 아니에요. 저한테는 니가 뒤로 쭈셔서 한 거 아니냐죠.  
전부다.

이성문 하하하.

정영학 제가 무슨, 제가 힘이 있습니까 그냥. 하여튼 뭐..

이성문 회계사님, 하여튼 제가 슬기롭게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장동 어찌됐든 내가 보니까 5월말까지는 공사 준공되  
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은..

정영학 아, 5월말이면 준공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이성문 예, 공사 다 마무리 됩니다. 뭐 어렵지만.

정영학 네네. 시끄럽더라도 나중에 사업은 끝나고 시끄럽겠네요.

이성문 아..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우리 엘시티가 그렇게 수사 받더라도 사업준공이나 그거 아파트나 B1사업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감니까. 그리고 은수미가 재선해야 돼요.  
내가 요즘 제1공단도 태양광 뚜껑 씌우는 거 아시죠?

정영학 그건 저는 전혀 내용 모릅니다.

이성문 제1공단에 엄청나게 어려운 뭐 태양광 뚜껑을 씌우나, 하여튼 그런 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연재 소장이 고맙죠. 해서, 이야 이거 세우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을 많이 우리가 절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2월달에 준공 못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2월달에 공사 제1공단 준공 못하면 난리납니다. 재선해야 되잖아요. 테이프 커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바꾼다니까요. 오늘 바꾸는 결로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됐고, 이제 공원과하고 균형발전과하고 설득하면 되고. 강해구 과장이야 당연히 협조되고, 공원과도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사비도 한 50억 절약합니다.

정영학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대표님하고 호흡 맞춰서 한 거는 다 잘 됐어요. 진짜 저기 보십시오. 개발부담금 보십시오. 140억이에요. 우리 큰 현장에. 기가 막혔어요.

이성문 그리고 오늘도 이현철 차장이 보니까 이러더라고. 이 양반이, 아 자기가 우호적인 사람한테 지가 나서서 잘하더구만.

정영학 맞다니까요.

이성문 회계사님 판단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성남의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하면서 야 이거는 아니고 이것 딱 맞춰서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게. 오히려 김

종옥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실무경험이 더 많다고 보이더라고요.

정영학 그분 오래됐다니까요.

이성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관하고 민하고 적정하게 섞어가지고 버물려서 요렇게 관철하자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제까지는 없잖아요.

정영학 대표님이 잘 사귀어 놓으신 거예요.

이성문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내 속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돈도 더 깎아주고. 하하하.

) 정영학 네네네네. 그런 걸 형님이 모르시잖아요.

) 이성문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 정영학 아 참, 칭찬 받으셔야 할 일을.

이성문 아니, 직접 안 보니까 모르죠. 하하.  
아이구, 뭐 어떻게 압니까. 그거야 다 내 일인데.  
내가 그래서 태양광 빼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했어요.

정영학 예..

이성문 회계사님 하여튼,

정영학 네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이성문 아니,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예예. 하여튼 제가 다음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정영학 네네.

이성문 그리고 이번에 그 조사하는 그거는 현명하게 잘 처신하겠습니다.

정영학 네네네.

이성문 예예, 들어가십시오.

정영학 네네네. 네, 대표님. 잘 쉬십시오.

이성문 이제 분당에서 올라갈려고 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정영학 네네, 감사합니다.

이성문 예예.

정영학 예.

---

- 3      ○ 통화일시 : 2021. 4. 23. 10:49 (18분08초)  
 ○ 통 화 자 : 정영학, 이성문

이 성 문      가지급 다 갚았으니까 사실 이제 소위 이제 1차적으로는 내가 현장에 지주  
 작업으로 썼든 뭘 했든, 그게 금액이 얼마 들었든 간에 일단 내 선에서 1  
 차적으로 정리해보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정 영 학      네.

이 성 문      그런데 아까 이제 아침에 박현덕 상무가 자료 정리 다 됐다고 자료 있다  
 하면서 나한테 자료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세무자료는 자기가 지금 나보고 보라고 그러고, 세무자료는 점심  
 후에 추가로 주겠다 했는데. 한 90쪽이 넘는데.

정 영 학      네네네네.

이 성 문      어제 밤 10시에 박 상무 이야기가, 회장님한테 전화 왔다. 밤에 자고 있는  
 데. 아니 왜 전화하셨던가? 하니까, 박 상무한테 '야, 그 돈 쓴 돈에 대  
해서..' 박 상무하고 나하고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돈 쓴 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거기에서 성과급에서 다 공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박 상무는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회장님  
 한테 밤늦게 뭐 맞다 틀리다 그런 반박이나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박상무 스타일이.

정 영 학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성 문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하면 성과급을 공제하고  
 안하고야 두 번째 문제고요.

만약에 내가 경찰 진술서에서 예를들면 내가 현장으로 회사를 위해서 지주  
 작업 하는데 50억 쓰고, 일부는 내가 한번 20~30억 썼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어찌됐든 공식적인 서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성문 씨를

↑

→ 김언비

그러면 이 선배님은 이거 가지고 대장동 사업 끝날 때까지 나를 볶아 죽일 것 같더라고.

정영학 아..

이성문 왜냐면, 니가 돈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 몰아서 사람 말라죽일 것 같아요. 성과급 깎이고 안 깎이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보니까.

정영학 음.. 박 상무는 제일 잘 알거잖아요. 본인이.

이성문 그래서 회계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배님이 그렇게 그게 아니라, 야 대충 둘러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어제 회계사님 이야기 한 대로 그런 게 아니라, 야, 실제로 니가 썼기 때문에 니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박 상무 어제 태도를 보면. 그래도 그러면,

← 나박형덕

정영학 솔직히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박 상무일 텐데.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성문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회계사님한테 왜 전화 드렸냐하면, 오늘 할 필요는 없고, 다음주에 제 입장을 정리해서 선배님하고 바깥에서 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으려고 그래요.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뭘 원하시냐 이게. 소위 내가 총대를 메기를 원하냐, 아니면 사실대로 밝히기를 원하냐, 아니면 내가 대표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냐. 그거를 선배님한테 진지하게.. 물론 정중하게 물어봐야죠. 큰소리 낼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번 물어봐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정영학 예.

이성문 이거를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썼습니다 안썼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걸 서로 간에 못 견뎌요. 안에서. 선배님 만약에 물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물러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려고요. 그것도 뭐 정중하게 해야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정영학 아 참.

김언씨  
↑

이성문 저는 선배님이 진짜, 회계사님은 믿으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선배님이 가끔씩 보면 제 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농담삼아 야, 재 제정신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진짜 진짜로.

전번에 제1공단에 왔을 때 그런 모습,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모습 보니까, 선배님 제정신이..

정영학 작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성문 저는 작전이라고는, 성과급을 깎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영학 아니요, 아니요. 그 아이디어가.

이성문 예. 그 작전상 그렇게 해가지고 선배님한테나 해서 도움될 게 뭐 있어요?

정영학 그렇게까지 해야 실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깎았다. 그러면 실제 저기가 맞다, 이렇게 인제 되는 거잖아요.

이성문 아니, 단순히 성과급을 깎기 위한 뭐..

정영학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 갖다 쓴 사람이 본인 저기까지 반납했는데

이성문 향후에 나는 안 쓰고 이성문이가 다 썼다?

김언씨.

정영학 그렇죠. 길게 보면. 길게 보면. 예.

이성문 하하하.

정영학 가장 명확한 게 박 상무가 제일 잘 알거잖아요?

이성문 박 상무는 그런 말 거짓말 못하지 않습니까.

정영학 그러면 사실대로 본인도 이야기를 해야지.

이성문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검찰사태나 수사나 국세청에 대비한 이런 부분들이 참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가 어떻게 썼다고. 그것도 그걸 예를 들면 선배님께서 야 이거 우리까지 말 맞춰서 좀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걸 갖다가 무슨 뭐 나를 뭐 횡령의 주범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영학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성문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죠. 다음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몇달동안 이어갈 수 없고요. 최소한도 경찰 진술도 최소한 5월 한 20일까지나 이렇게 내야 돼요. 5월 4일까지 낸다던가 10일정도 미룬다 하더라도 5월 15일까지야, 그걸 갖다가 6월달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영학 예. 예.

이성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주 정도나 선배님하고 내가 나하고 독대를 해서 선배님 의향을 물어봐야죠. 진짜 나를 물러나게 하는 게 진짜 그게 원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총대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내가 돈 갖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냐. 제가 물어볼려고 그래요.

실제로 갖고 갔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돈 갖고 간적 없습니다.

그러면 돈 갖고 갔다 생각하면 나를 형사고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선배님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배님을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선배님이 이럴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박수현이 정신 나갔을 때가 있거든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초인가 작년인가 이상한 행동하고 뭐 할 때 그, 박수현이 양 전무하고 같이 붙어 다닐 때, 지금도 붙어 다니지만, 정신이 나갔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횡령했다.. 허허허..

정영학 하하하.

이성문 아니, 박 상무가 나한테 주로 초기에는 내가 현금을 많이 전달해줬어요. 현금하고 수표를.

그러면 박상무가 예를 들면 회장님이 돈을 바꿔오라 했을 것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현금이다, 2억 수표다 그러면, 그럼 결국은 내가 회장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은 사항을 박 상무한테 야, 회장님이 서초동에서 수표 1억5천 갖고 오란다 해서 수표 찾아가지고 내가 몰래 썼다는 말이거든. 하하하.

정영학 예.. 아니 그런데 대표님 씹씹이가 제가 지금 사실 7년동안 기껏 해봐야 소주 한 두병이시잖아요. 나머지가 없는데. 그다음에 뭐 등산 가시면 등산 산에다 쓸 게 없잖아요. 산에다 뭘 돈을 써요. 나무에다 이렇게 돈 뿌리나요. 아니 그냥 그거는 그다음에 그 진짜 맨날 식사해도 그냥 간단하고 그냥 반주 곁들여서 하는 정도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제가 7년을 뵈는데 단 한번도 어디 이상한 데 간 적도 없고,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쓸데도 없으시잖아요

이성문 아니 회계사님, 저는 선배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무슨 성과급이 아까워서 깎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정영학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성문 그리고 이거를 미루자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실제로,

정영학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이성문 실제로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이, 정신이 나가버렸다니까요.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왜 저를 고소를 하지 왜 고소를 안하시나.  
돈 한 1,2억도 아니고 돈 한 수십억 정도 횡령했는데.

정영학 아니 안 쓰신 게 뻔한데 뭐.

이성문 그러니까 회계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상의 드린다고 보다는 이렇더라고요  
아, 선배님이 저렇게 하는 순간 내가 썼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 때  
문에 나 때려죽일 것 같아요.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걸로 야 니가 돈 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온갖 직원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갈 것 같애  
요.

정영학 네.

이성문 우리 양 전무나 심 상무나 이 상무한테 야 이성문이가 돈 썼단다. 한 30  
억. 그렇게 하면서 대외적으로 이기성 사장한테 돈 썼다고 횡령했다고 떠  
들고 다닐 거고.  
그거는 사실도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다음주에 회장님하고 오늘 할 필요는 없고, 담판을 한번 짓  
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영학 예..

이성문 참 저도 최근에 이제 이번 연말 연초 지나면서 회사 업무 관련해서는 그냥  
내 맡은 바만 조용히 하지, 내가 형식상은 의사결정 라인에 있지만 실제로  
의사결정 한 것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정영학 참 그 고생하셨는데..

이 성 문 주택사업 관련해서 주택과하고 건축만 챙기고, 김종길 부장이 실질적인 건  
다 하고 뭐.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건설사 내가 초기 한 거 빼고.  
도시개발사업 부분도 양 전무도 빨리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도 선배님이 이제 뭐 터무니없는 의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용히 있잖아요. 다른 의견 이야기 안하고 그냥 조용히 있습  
니다.  
이한성 상무하고도 별 대화 안해요. 이 상무하고 대화 두 번 해보니까 왜  
꼭돼서 내 뜻이 전달되더라고.

정 영 학 아..

이 성 문 그래서 내가 일부러 대화를 안해요..이 상무하고.  
이 상무가 일부러 전달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왜꼭되게 전달  
되고 오해가 있으니까 아 저런 대화도 안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

정 영 학 네..

이 성 문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뭐 내 팔자죠 뭐. 다음주에 아까 말대로 월요일날  
뵙고 선배님한테 그냥 뭐 답판이라기보다도 뒤에를 물어보고, 실제로 내가  
돈 썼다고 의심하시느냐. 그렇다면 저를 형사고소 하시라.. 그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정 영 학 네..

이 성 문 회사하고 현금 주면 고소하게 되면 내 계좌추적 다 될 거 아니냐. 내 쓴  
돈이나 이런 게.

정 영 학 그렇죠.

이 성 문 그것도 돈 1,2억도 아니고 몇십억인데 그걸 어떻게 씹니까. 수표도 많이  
찾았는데.

정영학 예..

이성문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진술서 내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김만배 회장께 다 드렸.. 다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 여파가 어떻게 되겠냐구요?

정영학 음..

이성문 아유~ 참! 우리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요.

정영학 예.

이성문 일을 잘못하면 바로잡아야 되고 그런 건 맞는데, 대장동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사람들끼리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영학 예..

이성문 그냥 뭐 별로..

정영학 저도 그게 무서워서 아예 안 가는 거잖아요.

이성문 결국 이 세상에 간신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군주의 눈과 귀가 어둡기 때문에 간신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것도 예를 들면 뭐 야 업무가 왜 좀 늦었냐. 공기가 공사가 올라갔는데. 그런 건 업무적인 질책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야 질책이 당연히 맞는 말이죠.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누구 책임이던.

정영학 네, 맞습니다.

이 성 문 그런데 이 돈을 니 맘대로 빼서 갖고 갔다, 이거는.. 아이구 참. 어디, 이런 이야기 어디 쪽팔려서 이야기도 못해요.

정 영 학 저도 태어나서 진짜 그 뭘니까. 그 저도 상상초월입니다.

이 성 문 이런 이야기는요 어디 가서 못해요.

정 영 학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대표님, 저도 상상초월입니다.

이 성 문 아 아~ 진짜. 야아~ 진짜 이거 창피스러워요. 창피스러워.

정 영 학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성 문 진짜 뭐 이런 이야기,

정 영 학 말도 안 되는.. 예.

이 성 문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할 수도 없어요. 회계사님 빼고. 왜냐. 내 얼굴에 침 빨기거든. 결국은 이런 이야기 대외적으로 하게 되면 내가 모시는 회장님 욕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 누구한테 합니까. 내 얼굴에 침 빨기인데. 아유~ 아니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일을 하겠어요? 진짜.

정 영 학 네에..

이 성 문 아~~ 진짜 회사 돈이라도 횡령했으면 좋겠다. 하하하.

정 영 학 대표님 소주 드시잖아요. 소주. 천원짜리. 하하하.

이 성 문 하하하하~

정영학 등산.

이성문 회계사님, 이것도 제 팔자고요. 하여튼 주말에 조용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영학 그러십시오. 예.

이성문 이렇게 뭐 선배님하고 연락해서 할 건 아니고. 주말에 생각해보고. 내가 박현덕한테도 그랬어요, 아까. 박 이사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내가 내일 다음에 회장님하고 별도로 외부에서 만나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삽니까. 구질구질하게. 분명히 회장님 그랬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성문이 돈 몇십억 썼다고 했을 것 같구요.

정영학 그런 것 같아요.

이성문 아니면 안했다 하더라도 조만간에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썼다고. 아이구~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그거 믿을까요?

정영학 네에..

이성문 아이고~  
회계사님 잘 알겠습니다. 운동 잘 하고 오십시오.  
주말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영학 주말에 좀 차분히 고민 좀 해보시고.

이성문 예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영학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진짜 그 그.. 제가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배웠고, 밤마다 반주에 소주 한병 드시는 분이 뭐가 필요했을까 고민도 해보

고.

이 성 문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 영 학 그다음에, 저분에 행색이 어디 뭐 그 어디 뭐 어디 분 냄새 맡으러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어디 쓸 데도 없으실 텐데. 돈이 궁해야 쓰거든요. 그런데 궁한 게 없으신데. 저도 뭐..

이 성 문 박현덕이한테.. 사실 나는 요즘 돈 없잖아요. 박현덕이가 이럽디다. 얼마 전에. 가끔씩 우리 급여가 20.. 어제가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일이나 보름 전에 야, 돈 500만 좀 보내라.

정 영 학 그게 뭐가..

) 이 성 문 내가 돈을 그렇게 수십억 횡령했다고 그러면 그거 옛날부터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정 영 학 그러니까요. 그럼요.

이 성 문 회계사님 죄송합니다.

정 영 학 그 여하튼 뭐 대표님,

이 성 문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운동 잘하고 오십시오.

정 영 학 예예예예.

이 성 문 다음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정 영 학 편하게 대표님 그냥 뭐..

이 성 문 아, 물 흐르는 대로 가면 됩니다.

정영학 잘 알겠습니다.

이성문 이걸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영학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끝)



○ 통화일시 : 2021. 4. 27. 13:24 (5분01초)

○ 통 화 자 : 정영학, 정재창

정 재 창 알지 말아야 될 걸 너무나 많이 알았어. 나 그냥 조용~~히 항상 그냥 떠나 보내주면 될 것들을.

정 영 학 예 예 예.

정 재 창 응? 예? 형!

정 영 학 음.

정 재 창 갖은 이유와 핑계로. 나, 형, 나 여기서 형도 상처입고 뭘 했지만, 형은 부자 됐더만. 김만배도 부자 되고.

나한테 그러지 마~ 끌랑 돈 30억 땀에 그러지 마~ 예?  
형! 나한테 그러면 다 벌 받아.

정 영 학 일단 부자 아니구요. 제가 이야기..

정 재 창 나한테 그러면 벌 받아. 나 분명히 얘기하는데, 형.

정 영 학 그러세요.

정 재 창 예. 나한테 그러면.

정 영 학 제가.. 자.

정 재 창 형! 끌랑 30억 땀에. 누구야? 나 주지 마라는 거 말해봐 인제. 응? 형!

정 영 학 자, 그 다음.. 아니, 제가 김만배한테 받으면 좋게.

정재창 아, 김만배 그.. 나, 개새끼를 죽여버릴 거야, 형. 나.

정영학 제가 진짜 받으면 좋게. 원래는 29일날 준다 했어요.

정재창 형.

정영학 준다 했는데, 내가 받으면 좋게요. 내가 그게 재무제표에도 떠있어. 일단 첫 번째 그거고.

정재창 그거하고 나하고 뭐 상관이야?  
김만배는, 형! 형이 아니어도 내가 죽일 거야. 응?

정영학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정재창 이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그러니까. 형, 나 건드는 거야.  
형이 지금 그런 식으로 돈 없어서 나를 못준다? 이런 얘기하면 나 형한테 1년 동안 나 한번도 전화 안했어.  
나 세상 사람 다 떠나보내고 살고, 아무도 인제 믿지 않고 사는데,

정영학 네네네.

정재창 마지막에 나한테 이러면, 형.

정영학 여태까지 아니 저도 잘 했잖아요. 나도 너무 억울해.

정재창 나 터져. 나.

정영학 일단 나도 너무 억울한 거 있잖아요.

정재창 그럼 다 한번 만나.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응? 개개인별로 만나지 말고.

정영학 저는 다들 보기 싫으니까. 나 다 보기 싫으니까. 나도 남옥이도 안보고,

만배 형도 이제..

정재창 아니 형은 돈을, 아니 형! 형은 돈을 많이 버니까.

정영학 제가 뭐 많이 벌어요?

정재창 많이 버니까 아무 아무 다 생까고 싶지.

정영학 일단.

정재창 뭘 지금 와서 추접스럽게 사람들이 왜 그래?

정영학 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고.

정재창 형, 나 진짜 아무.. 진짜 대장동에 '대' 자 얘기하기도 보기 싫어.  
근데 왜 김만배가..

정영학 아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도 받아서 준다고.

정재창 내가 왜 형하고..

정영학 자. 4월 29일날 안 들어오면 나도 소송할거야. 좀 기다려 주세요.

정재창 형! 형! 배당 안 받았어?

정영학 세금 내고 나니까 없어요. 이번에 얼마 안 들어왔어. 금액도 알잖아요.  
작년부터 세금이 연체예요. 체납이에요. 체납. 왜냐면 제가 전투를..

정재창 나하고 형하고 10여년을 산 놈이야. 나한테 그러지 마. 자, 형.

정영학 자, 있으면 나도 쥐. 자, 나도 있으면 쥐. 솔직히. 근데 줄 생각이 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소송해서 만배형한테 받아서 줄게.

내가 그거 아니면 받을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정재창 나를 핑계로?

정영학 아니, 나도 줘야 되니까 받아야 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재창 나를 핑계로?

정영학 실제 그거니까.

정재창 형! 형!

) 정영학 응.

) 정재창 나 그만 갖다 쓰고, 나 진짜. 응?

) 정영학 그럼, 나도 좀 받아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너무 스트레스야. 돈은 만배형이 갖다 쓰고, 즐려니까 돈은 없고.

정재창 형! 그건 형네들의 문제 아닌가? 다 형네들 한패고, 형은 경영하고, 저기 하고. 야, 형.

정영학 나 경영 안해요. 손 떴지 진짜, 근처 가지도 못한지 오래 됐어요.

정재창 형! 나는,

정영학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네.

정재창 아니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정리해줘요. 말일까지. 형은 지금 법률적..

정영학 안된다니까요. 돈이.

정재창 해주셔야지. 나도 형! 형, 나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 응? 나도 스케줄이라는 거 있어.

정영학 돈이 없어요. 자~

정재창 형, 그러면 정확하게 다 장부 보여줘. 형이 얼마 버는 거,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는 거 보여줘. 아니, 보여..

정영학 소송하시든지. 소송하시든지. 소송하세요 그럼.

정재창 형! 형이, 형이 유동규 갖다 줬다매.

정영학 내가 양해를 구했잖아. 좀만 기다려 달라고.

정재창 이거 양해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형.  
양해할 문제, 이게 왜 양해할 문제야? 형.  
나하고 형하고 그런 사이야? 양해할 사이 아니잖아?

정영학 그럼 소송하세요. 소송하시든지.

정재창 소송하라고?

정영학 예.

정재창 소송하라고? 형.

정영학 예.

정재창 형 분명히 얘기했다.

정영학 그래요.

정재창 나 고발하고. 형이 돈 빼가지고 공무원 다 줬다매? 형이 주범이라매?

정영학 뭔 개소리예요, 그게?

정재창 형, 나 진술서, 자술서 다 받았어. 형, 나한테 잘못 걸렸어. 소송하라고? 즉각 해줄게.

정영학 하세요.

정재창 다 뒤져버려! 다 뒤져버리라고, 형.

정영학 내가 누구 돈 줬다구요? 협박하지 마. (끝)